

KOREA

TEXTBOOK

교과서 연구

2013. 3. 제 71호

RESEARCH

특.별.기.획. I

참고서가 필요없는 '교과서완결학습'
체제 구축 연구의 방향

FOUNDATION

특.별.기.획. II

나는 이런 교과서를 찾는다

RESEARCH

TEXTBOOK



아이들의 재능을 활짝 꽃피우는 두산동아 교육기부

두산동아는 다양한 교육기부활동을 통해 '사람이 미래다'와 '인재의 성장과 자립'이라는 사회공헌철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두산동아와 KAIST 문화기술대학원 청소년문화기술체험센터가 함께하는

두산동아 - KAIST STEAM 창의캠프



두산동아 - KAIST STEAM 창의캠프란?

두산동아는 2011년부터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KAIST에 발전기금을 내고 과학교육의 큰 트렌드인 'STEAM 교육'을 도입하여 두산동아 - KAIST 융합형 창의인재 육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STEAM 교육이란? (STEAM :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 and Mathematics)

첨단기술, 공학, 문화 등의 다양한 소재를 과학적 사고, 예술적 감성, 수학적 능력을 이용하여 해결함으로써 융합적 사고능력을 키우는 교육으로 미래의 스티브 잡스를 육성하는 교육입니다.



두산동아 - KAIST STEAM 창의캠프 안내

- 대상 : 초등 3학년 ~ 중등 2학년 학생 및 교사
- 프로그램

STEAM 기초캠프 : 학교 단위로 모집하여 1박 2일 동안 진행하는 융합교육 프로그램

STEAM 응용캠프 : 전국의 학년별 학교장 추천자 대상으로 32명을 선발하여 한 학기 동안 진행하는 융합교육 프로그램

STEAM 미래캠프 : STEAM 응용캠프 수료 학생 중 우수자 16명을 선발하여 한 학기 동안 진행하는 융합교육 프로그램

STEAM 해외 페스티벌 : STEAM 미래캠프 수료 학생 중 우수자에게 해외 페스티벌 참가 기회 제공

※ 모든 프로그램은 두산동아에서 KAIST에 낸 발전기금으로 운영합니다.





교과서연구
계간지
2013년 봄
통권 제71호

목 차

권두언		
04	교과서 정복에 바란다	이면우
특별기획 I · 〈특별좌담회〉 참고서가 필요없는 '교과서 완결학습' 체제 구축 연구의 방향		
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재춘(영남대학교 교수) • 박소영(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 • 손병길(한국교육학술정보원 수석연구위원) • 이정기(백석대학교 교수) • 정재영(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조성준(금성출판사 교과서개발실장) • 현영호(한림성심대학교 교수) • 선종근(본 재단 이사장) 	
〈교사의 생각〉		
	완결학습을 도와주는 초등 사회과 교과서의 구현 방안	백혜조
	완결학습 체제 구축을 위한 과학 교과서의 발전 방향	임혜진
특별기획 II : 나는 이런 교과서를 찾는다		
24	일기장 같은 '에세이형' 교과서에 대한 꿈	이용애
26	내가 찾는 교과서 [국어]	강용철
28	학습자와 교감하는 세련되고 따뜻한 교과서 [사회]	임용수
30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는 그날까지! [수학]	조진호
32	내가 찾는 교과서 [체육]	이동태
34	내가 찾는 교과서 [음악]	권혜인
36	내가 찾는 교과서 [미술]	정윤성
38	내가 찾는 교과서 [미술]	강해중
40	내가 찾는 교과서 [진로와 직업]	전주현
논단		
42	한·일 초등 사회과 교과서의 비교 -역사내용영역을 중심으로-	김보미
연재		
46	스웨덴의 교육과 교과서제도(Ⅱ) : 스웨덴출판사 Bo Andersson 교육감 인터뷰	양예원
교과서 편집자의 변		
52	나는 초보자!	남광규
제언		
55	독일처럼 학생들에게 실제 정치를 가르치자!	김원태
61	집필자 역량 키우기,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윤성희
64	교권과 학생인권의 조화를 위하여	박정애
연구논문		
68	화력 에너지 관련 초·중·고 교육과정·교과서 분석 및 개선방안 탐색	이동원
나와 교과서		
77	나와 교과서	김안재
교과서 수필		
81	교과서 수필 입선작 : 중등부 수상작	
독자의 소리		
88	교과서 보는 안목 높여주는 [교과서연구]	이수진
89	교과서 개발 연수 안내	
90	'교과서 연구' 후원제도 안내	
92	교과서 개발 구입 안내	
95	원고 모집	
96	교과서 정보관 이용 안내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

Textbook Information One-stop Service



TIOS란?

TIOS는 Textbook Information One-stop Service의 줄임말로, 교과서 관련 민원 업무의 One-stop 처리가 가능한 교과서 관련 포털 사이트입니다.

- TIOS는 **통합**합니다!

그 동안 교과서 관련 민원의 분산처리로 인해 민원인의 불편이 초래되었고, 업무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확인되지 않은 다른 부서로 전화를 돌리는 현상이 발생하여 교육 수요자의 각종 요구에 대한 민원처리가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교과서 관련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해 대국민 만족도를 높이고, 교과서 관련 자료를 통합 관리하는 TIOS 시스템이 구축 되었습니다.

- TIOS는 **소통**합니다!

TIOS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교과서에 관한 정책을 소개하고, 교사·학생·연구자 등에게 교과서 관련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정보의 증가, 급속한 사회 변화 등에 따른 제반 사항을 교과서에 신속히 반영하기 위하여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www.교과서114.com

www.textbook114.com

Tel : 1566-8572



교과서 정책에 바란다!



이 면 우

춘천교육대학교 총장(내정자)

교과서는 그야말로 국가의 품격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단순히 교육의 힘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한 국가의 문화와 경제 수준을 그대로 드러낸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교과서만 비교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발전상을 적나라하게 추적해 볼 수 있다. 타국 교과서와의 비교를 통해서 선진국과 후진국을 쉽게 나눌 수 있다.

최근에 우리나라 교과서와 관련된 연구와 정책을 보면 상당히 고무적이다. 2007년에 있었던 “양질의 교과용도서 개발을 위한 교과서 제도 개선 방안”(2007.6.21.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국정, 검정, 인정도서에 대한 방식 개선, 교과서의 지속적인 질 관리 및 외형체제 개선 등을 마련했다. 이어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2010.1.12.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전자 교과서(e-textbook) 제도 마련, 교과서 심사제도의 선진화, 교과서 가격 조정 방법 등을 제안했다. 이 정부가 발표한 교과서 제도 개선안과 일련의 조치(예를 들면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 운영 등)를 보면 앞으로 우리의 교과서의 수준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장밋빛 상상을 할 수 있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스컴에서는 교과서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간간히 전해진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교과서가 바뀐 지 얼마 안 되어 2009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되었다. 그 결과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개발된 일부 교과서가 출판사 창고에서 그대로 폐지로 전락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민간 출판사와 정부 사이에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교과서 내용에 대한 잣대(검정 기준)를 둘러싼 논쟁도 상당히 뜨거웠다.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개정 요구 및 이에 대한 반발, 진화론과 창조론을 둘러싼 과학교과서 개정 요구 등에 대해서 많은 의견과 이견이 나왔다.

이러한 일련의 사례는 교과서의 질을 높이는 하나의 통과의례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이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어디에서 출발하는 것일까? 필자는 정부가 교과서 정책에 대한 과도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욕심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교과서는 그야말로 교육과정의 축약판이다. 한 나라나 특정 시기의 교육과정이나 교육의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흔히 교과서를 분석하는 것은 교육 연구자들의 상식이 되었다. 그만큼 교과서가 교육의 척도가 된다는 것이다. 우리 교과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교과서 정책을 구상해본다. 창의성을 연구했던 로더스(M. Rhodes)의 4P 이론을 차용해보자. 그는 과정(process), 산출물(product), 사람(person), 환경(press)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Rhodes, 1961).

첫째, 교과서 발행은 중요한 과정이며 동시에 지난한 과정(process)이다. 하루아침에 교과서가 연구되고 출판될 수는 없다.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해석해야 한다. 교육현장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교실과 학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학교 안팎에서의 요구와 사회나 국가의 필요를 파악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의 협력과 융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유지하려면 절대로 1~2년의 단기간을 설정하고 교과서를 출판해야만 한다는 정책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과서는 그야말로 교육의 산물이며 국가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산출물(product)이다. 우리나라 역시 우리 경제력에 걸맞은 교과서를 만들어내야 한다. 우리 교과서가 구미의 여러 나라보다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교과서의 판형, 종이의 질, 삽화나 그림의 수준, 내용과 디자인 면에서의 혁신도 필요하다.

셋째, 교과서를 저술하고 발행하는 전문가(person)를 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 연구기관, 교과서 출판사 등의 협력과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교과서 연구를 전담하는 기구를 만들자. 전문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 연구를 시작하자.

넷째, 교과서 스스로 진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press)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과서 완전 자유발행제를 실천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앞서야 할 것이다. 아직도 특정 교과에 대한 국가 통제(국정)가 유일한 방책이라는 생각을 버리자. 일찍이 경제학자 그레섬(T. Gresham)이 언급했듯이, “나쁜 돈이 가치가 있는 돈을 몰아낸다(Bad money drives out good).”는 우리가 생길 수 있다. 교과서에 대한 지나친 간섭은 가치가 없는 교과서만 양산될 수 있다.

교과서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 교과서에 대한 깊이 있는 꾸준한 연구, 교과서 제작 및 연구를 담당할 전문가 양성, 교과서 완전 자유발행제도의 정착은 우리 교과서의 품격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특별기획

I

특별좌담회

참고서가 필요없는 ‘교과서 완결학습’ 체제 구축 연구의 방향

박근혜 정부의 ‘행복교육’ 공약은, “교육은 행복공동체를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정책의 으뜸이 되어야” 하고,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습을 통한 개개인의 자아실현을 도와주는 데” 있으며, 교육의 기본방향은 “저마다 타고난 소질과 끼를 끌어내고, 열정을 갖고 적성에 맞는 꿈을 찾아가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라고 전제하였다.

이 공약은 25개의 구체적 사항으로 제시되었는데, ▷인성교육 우선 수업 강화,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운영에 이어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서는 이 공약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첫 걸음으로, 2013년도에 본 재단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몇몇 전문가들을 초대하여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을 위해 서는 어떤 연구가 필요한지 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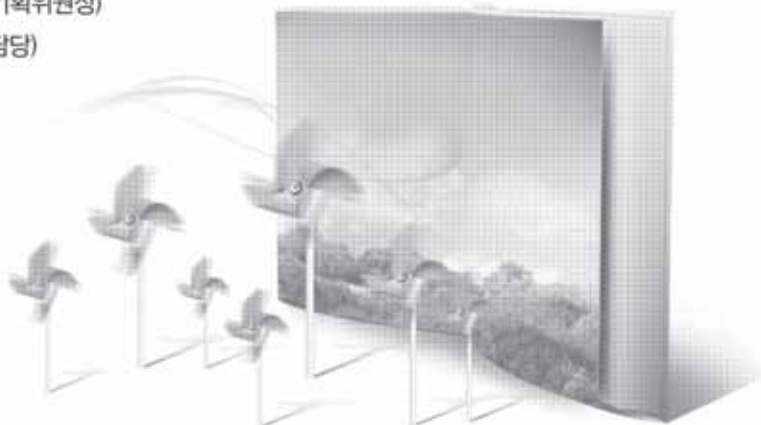
◎ 일 시 : 2013년 1월 8일 11:00~13:00

◎ 장 소 : 한국교과서연구재단 회의실

◎ 참석자 : 김재춘(영남대학교 교수) / 박소영(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손병길(한국교육학술정보원 수석연구위원) / 이정기(백석대학교 교수)
정제영(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조성준(금성출판사 교과서개발실장)
현영호(한림성심대학교 교수) / 선종근(한국교과서연구재단 이사장)

◎ 사 회 : 김만근(본지 편집기획위원장)

◎ 정 리 : 유순기(본지 편집담당)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

새누리의 진단

- 현재는 교과서가 정보압축형으로 개발되어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
- 학생들이 스토리텔링형 서책 교과서를 중심으로 학습하되, 필요한 교과서의 경우 디지털 교과서와 연계시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과서 환경을 구축할 필요

새누리의 약속

- 최고 전문가가 교과서 집필에 참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길러줄 수 있으면서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과서 개발
- 초·중·고에서 질 높은 교과서의 무상공급이 가능하도록 교과서 관련 예산 대폭 확대
- 태블릿 PC나 스마트패드를 통해 학습할 수 있는 디지털 교과서를 점진적으로 도입
 - 중학교 일부 교과부터 우선 도입 검토 및 서책형 교과서와 병행 활용

새누리의 실현

- 학습자 자기주도적 교과서 개발
-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및 예산 반영

사 회



김 만 곤
본지 편집기획위원장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선거 공약 ‘행복 교육’ 중에서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 완결학습 체제 구축’의 구현방향에 대해서는,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이 각자 우리 교과서 제도와 교육 상황 전반에 대한 평가와 해석에 바탕을 두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므로 정부와 학계, 교육현장, 교과서 발행사 등의 견해가 다를 수 있다. 이 정책의 실현에는 어떤 관점과 연구가 필요한지 고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 제 영

우선적 조건이 있다. 창의·인성 교육자료 개발·보급이 이루어져야 하고,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과정 운영’ 중에서 ‘자유학기제 운영’과 관련지어야 한다. 자유학기제 운영의 장이 교내인지 교외인지 고려돼야 하고, 교사들이 운영해야 할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고려해 봐야 한다.

사 회

어떤 교육정책이든 학교 교실에서의 교수·학습과 관련지어 총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오늘의 토론 주제가 ‘교과서 완결학습 체제 구축’이므로 교육적 맥락을 고려하되 교과서에 관하여 집중적 논의가 되기를 기대한다.

선 종 근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 완결학습체제’ 공약을 보면, 핵심개념은 자기 주도적 학습이다. ‘자기 주도적 학습’이 무엇인지 명확한 개념 정의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

정 제 영

자기 주도적 학습이란, 용어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학습에서 나왔으나 최근에는 스스로 계획을 세워 학습을 전개한다는 의미로 학령기 학생을 대상으로 한 용어로 쓰이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08년에 개념 규정을 한 적이 있고, 고입선발시험제도의 이름을 자기 주도적 학습전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의존적인 학습 특히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향이 극심했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 할 수 있는 학습 또는 평가 역량을 거의 잃어가고 있었다. 자기 주도적 학습을 새롭게 조명하는 것은, 학생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학습하고 평가하고 피드백해서 다시 학습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학습 전체의 주도적인 학습자가 된다는 의미이다. 이때 교사는 역할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학습 조력자, 협력자, 지원자가 되는 것이다.



정 제 영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선 종 근

그러면 부모가 ‘슈퍼맘’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학교에서 손을 놓으면 학생들은 결국 학원에 간다든지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

정 제 영

결코 학교에서 손을 놓는다는 뜻은 아니다.

사회

공약 사항의 실천사항에도 '학습자 자기 주도적 교과서 개발'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 개념과 연계하여 실제적인 논의를 해보자.

김재춘



김재춘
영남대학교 교수

오늘은 교과서에 관한 공약이 집중적으로 토론되면 좋겠다. 다른 공약과 연계하여 토론하려면 더 복잡한 논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교과서 완결학습 체제 구축의 기본 아이디어는 아이들이 교과서를 가지고 필요한 공부를 하고, 교과서를 잘 활용하여 공부하면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것과 맞물려 있는 공약으로 수능 역시 교과서를 기반으로 출제하며, 평가 역시 교과서와 연계하여 실시하는 것을 염두에 두었다. 수능과 논술도 교과서로 공부하면 어려움이 없게 하겠다는 의미이다. '정보 압축형 교과서' 보다는 혼자서도 읽고 생각하고 정보를 찾고 터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을 '스토리텔링형 교과서'라고 설명하였다. 풀어써서 양이 많아지고 두꺼운 교과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면 학습을 완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교과서가 두꺼워지면 휴대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필요하면 디지털 교과서와 병행하면서 관련된 정보를 학생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과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교사가 가르쳐 주고 학원에서 풀어줘야만 학습 가능한 것이 아니라 혼자 읽어서 문제해결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들자는 뜻이다. 이것은 공교육 정상화 정책에서 대입 논술고사 출제 범위가 교과서를 벗어나면 제제를 가하겠다는 것과 함께 가는 것이라고 본다. 그런 교과서가 나오면 좋겠다는 것이 진단이고 방향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 최고 전문가가 교과서 개발에 참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최고 수준의 전문가가 교과서 개발에 참여해도 인세도 적고 힘만 들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자율과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서 교과서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과서를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2017년까지는 고등학교까지 교과서 완전 무상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며, 태블릿 등을 도입한 디지털 교과서 제도에 대해서는 그 계획을 재검토하되,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중학교에서 먼저 적용해 본 후 전면 시행할 것이다. 확산과 안정화의 완급을 조절하여 완료 단계를 설정할 것이다. 현재까지의 스마트 교육 정책보다는 더 신중한 모드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중학교 일부 교과서의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해서 서책과 병행하여 운영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의 교과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교과서가 나와야 하며, 위의 조건에 만족하는 교과서가 어떤 것인지 브레인스토밍 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인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것을 정하지 않고 정책을 느슨하게 추진하면 좋겠다. 당장 실현하게 되면 부작용이 많을 것이다.

손병길

교과서를 보는 시각이 같은 공약 내에서 부딪힌다는 인상을 받았다. 인성교육 수업 강화

공약과 협력학습 계획을 확대하고 강의 위주 수업을 학습참여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교과서로 학습을 완결할 수 있다는 측면과 참여·토론 수업은 상충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과서라는 것의 개념은, 교사와 학생이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명확히 했으면 한다.

김재춘

‘완결학습’이라는 말은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해도 학교시험이든 상급학교 진학시험이든 얼마든지 치를 수 있어서 별도의 사교육이 필요 없다는 뜻으로,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하면 진학과 관련해서는 충분하다는 것이지 ‘지식의 완결’이라는 말은 아니다.

사회

‘교과서 완결학습 체제’란 교과서만 갖고 있으면 교수·학습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다는 뜻이 아니라, 교과서 외에 굳이 참고서를 더 동원하지 않아도 좋은 교과서, 문제집이 필요하지 않은 교과서, 다시 말하면 교과서 외에 추가적으로 공부하지 않아도 논술을 할 수 있고 수능을 볼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들자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김재춘

의미가 상충되는 면이 있다면 모순이라고 해석하기보다 다면성으로 보기 바란다. 학교에서 수업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업을 받고 집에 가서 읽으면서 학습을 연장할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들자는 의미이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사회

교과서 국제비교 관점에서의 견해를 들어보자.

이정기



이정기
백석대학교 교수

한국교과서연구재단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부에서 교과서와 관련하여 무엇을 연구해야 할지 그 리스트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또 우리나라는 교과서에서 학습해야 할 내용의 양이 절대적으로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교사들은 “악착같이 진도를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다 가르치지 않으면 학부모측에서 항의가 온다. ‘완결’이라는 말이 한 권의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이라는 데 동의한다. 스토리텔링 식으로 하면 좋은데 이미 나온 책들 중에서 잘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분석해서 교과서에 넣는 방안도 있다. 우리나라 교과서의 내용은 현재로도 좋다. 다만 가르치고 배우는 데 필요한 내용구성 체계가 약하다고 본다. 학습하는 방법, 팁 등을 넣으면 좋겠다. 나아가 교수·학습 방법까지 넣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사회

교과서 출판사에서 일하는 분의 견해는 어떤가?

조성준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는 사실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다. 종전에도 강조한 적이



조 성 준
금성출판사
교과서개발실장

있었지만 당시에 나온 교과서를 성공한 교과서로 보기는 어렵다. 이 후로도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었는데 아직 까지 그 방법을 제대로 찾지는 못한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중요한 관 점이 될 수 있는 것이 스토리텔링과 디지털 교과서의 결합이라고 보 았다.

이러한 방법으로 교과서 개발 방향을 예측한 연구도 있다. 서책 형 태의 교과서를 내되, 자기진단 및 평가가 가능하게 하고, 많은 자료는 디지털 교과서에서 제공하되 LMS 기능을 추가하도록 하여 집중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현 정책과 부딪히는 면이 있다. 기술적 문제나 예산 문제로 당장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정부에서 뷰어만 제공하겠다고 해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디지털교과서 한 권 제작에 5억 정도가 들어가므로 현재로서는 막연하다. 정책을 제대로 구현하려면 기술적 문제, 출판사 재원 문제, 저자 준비 문제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 과연 스토리텔링 교과서를 만들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하고, 급 격한 발전보다는 느슨하고 신중한 입장의 정책 추진이 성공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 요한 것은 교과서 자체보다 학원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 가 필요할 것이다.

현 영 호

티칭(teaching)은 있으나 러닝(learning)이 없다고 본다. 스토리텔 링은 있으나 이미지화가 없다. 학문을 중시하는 집필자 위주의 교과 서 개발이 문제이다. 콘텐츠를 어떻게 이미지화할 것인지에 대해 연 구해야 한다. 아트 디렉터가 교과서 개발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 집필 자 위주의 교과서 개발은 지양되어야 한다. 질 높은 교과서가 나오려 면 집필자가 모든 것에 권한을 가지는 전통적인 방법을 탈피하여야 한다. 러닝이 있는 교과서라야 학습에 흥미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현 영 호
한림성심대학교 교수

조 성 준

인기있는 저자, 즉 어떤 시스템을 가져야 좋은 교과서가 나올지 출판사 자체적으로 연구 해 본 결과, 우선 인세를 가장 많이 받는 집필자가 설득되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거의 어 렵다.

박 소 영

교과서 정책 자체가 혼선을 빚기도 한다. 어떤 점은 맞고 어떤 점은 맞지 않기도 한다. 가 령 기자에게는 “교과서는 하나의 자료”라고 설명하지만, 국민들의 인식은 그렇지 않다. 교 과서가 바뀌려면 교육과정도 바뀌어야 하고, 실제적으로는 먼저 어떤 교과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에 맞는 교과와 교과서가 있다. 예를 들면, 국어 교과서를 참고서가 필요 없 는 교과서로 만들 경우 600쪽으로 출판되어야 했고 원고는 1000쪽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 책가방이 다시 무거워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책을 놓고 다니라고 하면 두 권씩 구입하

는 상황이 발생한다. 교과서는 학교를 벗어나면 효력이 없어진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디지털 교과서는 효과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교수·학습 자료인데 왜 ‘교과서’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에 집착을 했는지 궁금하다. 자료가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교과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므로 막대한 예산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더 많은 교수·학습 자료를 요구한다. 교과서 중심의 수능 체제 때문에 EBS 수능방송이 나온 것이다. 서책과 디지털 교과서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 워크북 형태를 필요로 하는 교과도 분명 있다. 본 책과 워크북 역할의 분담이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최고 전문가가 교과서 개발에 참여하게 하려면 국정 교과서 체제로 가야 하는데 현재의 제도는 인정 교과서 중심이므로 현실적으로 실현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디지털 교과서도 현재 영어, 사회, 과학을 제작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는 인정제도가 우리나라 시스템에서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본다. IMF 때 영어가 검정으로 갔다가 다시 국정으로 돌아간 사례를 참조하면 좋겠다.

선 종근

교과서 가격은 자율화가 기본 정책이지만, 교과서의 수준을 향상시키려면 새롭고 수준 높은 자료 활용 등이 정가에 반영되어야 한다. 교과서 가격 적정화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 스토리텔링에 맞는 교과가 있고 맞지 않는 교과가 있는가?



선 종근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이사장

박 소 영

그렇다.

조 성 준

학교 급별로도 다르다고 생각한다.

박 소 영

과학 교과서를 두껍게 만들었지만 현장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한다. 학습형태가 맞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스토리텔링에 적합한 아이가 있고 요약 중심의 학습이 맞는 아이가 있다.

사 회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PISA나 TIMSS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 과학 성적이 세계적으로 높게 나왔지만 학습 흥미도는 가장 낮게 나왔다는 연구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교과서가 문제가 아니라 교육방법, 수업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이제 교과서의 개선을 위해 어떤 연구가 필요한지 더 구체적인 견해를 듣고 싶다.

김 재 춘

결국 교과서 완결학습을 하자는 것이다. 예전에 교과목별로 5종 정도를 합격시킨 적도 있지만 앞으로는 시장 논리에 따라 수준 높은 교과서 몇 종만 발행되도록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았다.

조성준

앞으로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것이다. 수익이 없으면 만들 수 없게 된다. 가격 자율화보다는 가격 상한제를 적용하면 좋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5~6개 출판사 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다만 해결해야 할 문제점은 소수의 출판사가 교과서 발행사로 남게 되면 콘텐츠를 독점하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손병길



손병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수석연구위원

한때는 디지털 교과서를 디자인하면서, 교수·학습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를 연구했고, 교과서를 콘텐츠가 아닌 툴(Tool)로 보았다. 장기적으로 효과 검증 후 적용하려고 했다. 그러나 현재는 고등정신능력 개발로 가지 않고, 콘텐츠 제공 즉 지식 전달형으로 보고 있다. 컴퓨터의 핵심기능은 지식 확대이다. 디지털 교과서가 어떤 역할을 할지 방향이 확실히 잡혀야 한다. 다양한 형태의 저작도구로서 교사, 저자용은 물론 학생용도 필요하다. 당시에 '디지털 교과서'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규정상 교과서가 아닌 자료를 쓰면 불법이어서 '교과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했다.

다양한 접근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제 평가 역시 지필평가 체제로는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입학사정관제에서도 디지털 교과서 사용 내역 등을 통해 포트폴리오처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의 적성·역량·흥미를 평가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현재 입학사정관제도 때문에 이를 관리하기 위한 학원이 생겼다는 말을 들었다. 한 달에 50~6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내야 하는 학원이 있다고 한다. 이런 실태를 정책 결정에 반영해야 한다.

이정기

연구과제와 방향에 대해 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교과서 내용 자체가 너무 많다 보니 교사들이 힘들어한다. 먼저 분량 조정이 필요하다.

손병길

교사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가장 이상적 방법으로 가르친다고 했을 때 얼마의 교수·학습 시간이 필요한지 파악하면 좋겠다.

조성준

삼성, LG, SK와 경쟁하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이다. Apple사는 Harcourt와 업무제휴를 했다. 대형 교과서 출판사가 대기업에 매각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손병길

다만 바뀌고 있는 것은 좋은 것이다. 전에는 하자고 해도 안했었다.

정제영

공약을 보면 정말 좋은 것이긴 하지만 '완결학습'이란 말은 사실상 선거용 아닌가? 그대로 100% 실현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그 방향을 인성교육을 포함한 교재 개발쪽으로 결정하면 좋겠다.

조성준

최근에 김정 출원하는 교과서에 인성교육 코너를 마련해 보았다. 음악, 미술, 체육을 그렇게 개발하였다.

현영호

학생들에게 묻고 피드백을 받아서 강의 계획을 수립했더니 강의에 대한 학생평가가 잘 나오게 되었다. 러닝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과 교과서 질을 높이기 위한 제안으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과서 단원을 스토리텔링으로 디자인하여 학습자 입장에서 무엇을 배우고 공부하고 싶은지 공모전을 실시해보자.

조성준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교과서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연구도 필요하다. 워크북에는 스토리텔링이 필요 없을 것이다. 수학 집필자와 함께 스토리텔링을 접목해보니 쉽게 되지 않았다. 기초연구가 더 많이 이뤄져야 한다. 어느 학교급, 어느 과목에 적용할 것인지 연구해야 한다.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의 주요 연구과제로 삼는 것이 좋겠다.

박소영



박소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사고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연구해 보면 좋겠다. 교과별 교과서 모형연구가 필요하다. 모니터링과 연계해서 사업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모형개발연구는 1998년 처음 시행하고 그 후로는 없었던 것 같다. 모니터링 역시 사실상 사전 규제가 힘든 시스템이라면 사후 관리를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하고 실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교과서의 잘못된 내용을 국가가 책임지게 하는지, 교과서 질에 대한 책무성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삼진 아웃제 등을 시행해서 질 관리를 시행해야 한다. 김정은 심사의 개념이지 질 제고를 목적으로 하기에는 부담스럽다. 검정심사는 심사로 두고, 질 제고를 위해 수정·보완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았으면 한다.

이정기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완해야 할 연구를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학습자와 교사의 요구사항 파악도 중요하며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이 어떤 것인지도 파악되어야 한다. 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에 대한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 즉 교과서 활용면에 대한 조사연구도 필요하다.

사회

지금까지는 정부가 지나치게 강력한 힘을 발휘한 면이 있다. 그러면 학교나 출판사 등 현장에서는 늘 정부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교사들은 할 말이 없게 되고, 제도를 선진화시키는 의미가 없어지고 만다. 국정을 검정으로, 검정을 인정으로 바꾸어도 교사들은 늘 교과서 제작의 주도권을 가진 측에게 주목해야 할 뿐이다. 현장에서의 활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논의를 마무리하도록 하자.

손 병 길

자기 주도적 교과서가 스토리텔링 교과서인가? 자기 주도적 학습에 스토리텔링의 개념이 포함된다고 하면 학습자가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하면 학습에 접근할 수 있는지 연구가 필요하며 자기 주도적 교과서의 개념에 대한 기초연구도 필요하다.

김 재 춘

공모제를 통한 연구를 전개해 보면 좋겠다.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교과서의 한 단원을 개발해서 제출하게 하고, 장관상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강의하는 과목 중에서 평가 틀을 통해 4명이 한 팀이 되어 교육학 교재를 개발하게 했는데, 아주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았다. 교사의 입장, 학생의 입장에서 좋은 교과서, 재미있는 교과서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는 것이다.

사 회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논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 논의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이러한 기회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논의는 앞으로의 교과서 연구에 소중한 동기가 될 것이다.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의 교과서 연구 사업에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 ~~~~~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공약 중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의 구현방향에 대하여 초등학교 사회과와 과학과를 사례로 현장교사들의 견해를 들어 본 것이다.(편집자 주)

완결학습을 도와주는 초등 사회과 교과서의 구현 방안



백 혜 조
서울 성문초등학교 교사

I. 들어가며

교과서는 국가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온전히 반영하여 이를 교실 수업에서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구체적 구현물이며 최선의 교수학습 자료이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교과용 도서외의 타 도서는 사실상 학교 수업에서 정식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서의 법적 위상은 학교 수업에서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김재복, 1997: 1).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교육과정 개정시마다 '어떠한 교과서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던 것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길러줄 수 있으면서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였다. 이는 학교 교육의 위상을 정립하고 교육과정의 본질을 구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학교 수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교과서라는 매개체를 통해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학교 교육의 위상을 정립하고 교육과정의 본질을 구현해 주며 완결 학습을 도와주는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모습을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 그려볼 수 있을까?

II. 초등학교 사회과에서 '완결학습'의 의미와 교과서의 형태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모습을 그려보기 전에 초등학교에서 '완결학습'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교육목표 2항에는 "학습과 일상생활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



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르고, 이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상상력을 키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교육과 학기술부, 2011). 이러한 목표를 토대로 초등학교에서 완결학습의 의미를 유추해 본다면, 「기초, 기본이 되는 지식과 기능의 습득이라는 토대 위에 기초, 기본 지식을 응용, 발전시켜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모학문의 내용을 자기주도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학습」이라고 그 의미를 규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초등학교 단계에서 기초, 기본이 되는 지식과 기능의 습득은 다른 설명을 덧붙일 필요가 없을 만큼 중요하다. 머릿속에 잘 정돈된 기초, 기본이 되는 지식은 자기주도적으로 탐구하려는 의지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탐구 방법 및 절차, 효과적인 자료 정리 방법 등을 잘 숙지하고 있는 학생들이 협동 및 탐구학습을 통해 나타난 학습 결과는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초등학교 사회과에서 참고서가 필요 없는 완결학습을 도와주는 교과서란 기초, 기본이 되는 지식과 기능을 완전하게 습득할 수 있는 교과서, 그리고 이를 응용, 발전시켜 최종적으로 자기주도적으로 탐구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풍부한 내용을 담은 교과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참고서가 필요 없는', '완결학습'을 도와주는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구현 방향

'참고서가 필요 없는', '완결학습'을 도와주는 교과서의 형태는 어떤 모습으로 구현될 수 있을까? 그리고 '참고서가 필요 없는', '완결학습'을 도와주는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째,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의 형태는 「탐구형의 교과서 본문 + 보충 심화의 해설 및 참고 부분 + 시험대비 부분 문제지」가 복합된 교과서라고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교과서 본문은 탐구형으

로 수업에서 이용하되, 이를 해설해주는 부분은 별도로 되어 있어 참고서를 살 필요가 없으며 결과적으로 사교육비를 줄여줄 수 있는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잘 만들어진 참고서 형태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시험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문제풀이 부분은 교과서만 잘 공부해도 시험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수능연계의 EBS 교재 형태를 상정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때 교과서가 두꺼워져 활용하기에 불편하다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데, 이렇게 두꺼워진 교과서는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단원별·분기별·학기별 등 시계열적으로 알게 분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홍후조 외, 2012).

둘째, 기초, 기본이 되는 지식 및 기능 습득이 중요한 학년 및 단원, 기초 지식의 토대 위에 이를 응용,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학년 및 단원에 대한 구분 기준이 먼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과 학습에서 때로는 기초, 기본 지식과 기능의 획득을 위해 교사가 주도하여 수업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비중이 더 큰 학년과 단원이 존재하는 한편,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응용, 발전, 탐구해 나가는 활동이나 협동 학습의 비중이 더 큰 학년 및 단원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분과 비중의 점진적 변화를 고려한 교육과정기준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만들어진 사회과 교과서는 학습내용이 더욱 정련되어 교사와 학생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셋째, 기초, 기본이 되는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할 수 있는 내용과 응용, 발전 탐구를 위한 내용을 사회과 교과서에 어떠한 형태로 담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기초, 기본이 되는 지식들은 서책형 교과서에 담아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든 쉽게 꺼내 볼 수 있도록 해 주고, 응용, 발전, 탐구를 위한 지식들은 디지털 교과서에 담아 학생들이 필요한 내용을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도 생

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온갖 명칭이 복잡하게 출현하는 사회과 지역화 교과서도 서책형 교과서의 형태로 제시하기보다는 디지털 교과서의 형태로 제공해 주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탐구형 디지털 교과서 활용시에는 자료의 범위, 출처, 사용할 수 있는 자료의 형태는 어떠한지 하는지를 학생들에게 명확히 알려주어 진정한 의미의 탐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과 교과서와 보조교재인 사회과 탐구의 역할을 재규명하고 가급적 통합하여 제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사회과 교과서에는 읽을 내용이 없이 학습 방법 위주로 제시되어 있고, 사회과 탐구는 산만하게 학습 내용이 많이 제시되어 있다(홍후조 외, 2010: 81). 교사들은 교과서에 제시된 워크시트를 무시하거나 재구성하기보다는 그대로 활용하고 있으며, 그 자체로 '교과서의 중요한 내용'으로 고착화됨으로써 오히려 다양한 활동을 제어하는 기능으로 활용되고 있다(홍미화, 2011: 133). 결국 보조교재에는 너무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 주교재와 보조교재의 구분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학습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2007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의도했던 '학습자 중심의 만들어가는 교과서'라는 본래 의도가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조교재를 서책형 교과서의 형태로 따로 제작하여 공급하기 보다는 사회과 교과서와 가급적 통합하여 제시하되, 디지털 교과서의 형태로 보완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지급용과 학교비치용 등으로 보완 교재의 개념을 새로이 전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홍후조 외, 2012: 67). 워크시트 역시 사회과 교과서 속에 일괄적으로 담기보다는 클라우드나 CD 등의 형태에 다양한 종류의 워크시트를 담아 교사에게만 제공하고 이를 교사 스스로 취사선택하고 재구성하여 사회과 학습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V. 나가며

참고서가 필요 없는 완결학습을 도와주는 교과서란 결국 꼭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하고 나아가 자기주도적인 탐구를 도와주는 풍부한 내용이 담긴 교과서일 것이다. 반면에 학습에 있어서나 교과서의 형태에 있어서 학생과 교사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교과서이어야 할 것이다. 학교교육을 위해 힘쓰는 사람들은 이러한 교과서를 통해서 학교 교육의 위상을 정립하고 교육과정의 본질을 구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11). 2009 개정 교육과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 김재복(1997). 교과서 체제 개선 연구 :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내용구성 방식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연구회 교육과정 개정연구위원회.
- 홍미화(2011). 2007 개정 사회교과서 적용에 따른 초등 교사의 사회 수업 변화 : 초등학교 4학년 사회교과서 활용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연구, 18(2), 125-142.
- 홍후조·김영순·민부자·이승미(2010). 교과 교육과정 내용 연계와 적정화 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연구보고서.
- 홍후조·조호제·하화주·민부자·김대영·정소영(2012). 교과서 개선 및 교과서 제도 개선 정책 제언. (사)한국검정교과서 연구보고서.



완결학습 체제 구축을 위한 과학 교과서의 발전 방향



임 혜 진

경기 분당
서현초등학교 교사

I. 들어가며

학교에서의 수업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며 교과서는 그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는 교과서가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 중의 하나라는 인식보다는 단 하나의 수업 자료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해 교과서에 대한 의존력이 높으며 그에 따라 질 높은 교과서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고 있다. 박인호(2011)의 연구에 따르면 과학 수업에 과학 교과서를 활용하고 있는 비중은 중학교에서 약 75%, 고등학교에서는 약 49%였다. 초등학교에서는 이보다 훨씬 높다고 할 때 과학 교과서는 교육현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과학 교과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과학 교과를 통해 과학개념의 통합적 이해, 탐구능력 향상과 과학 기술 발전에 대한 이해, 흥미와 호기심 및 과학적 해결 태도,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 등을 성취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즉 과학 교과서는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과학지식을 담고 있으면서 동시에 과학에 흥미와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학습 보조 자료의 역할도 해야 하며 탐구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실험, 실습의 내용도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시점에서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 완결학습 체제 구축'이라는 공약을 내세웠으며, 그 당위성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장래 우리나라 과학 교육 발전을 위해 과학 교과서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II. 교과서 완결학습 체제 구축과 과학 교과서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 완결학습 체제 구축'은 현재 교과서가 정보 압축형으로 개발되어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을 보완해 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주도적 학습이란 학생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평가하는 모든 과정을 뜻하는데, 학습내용을 모조리 제시해 주는 것이 과연 자기주도적 학습을 가



능하게 해주는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시험에 완벽하게 대비하도록 만든다는 것도, 시험에서 만점을 맞으면 학습이 완결된다는 것도 학습의 성격을 너무 좁혀버린다. 따라서 시험이 객관형 지필시험인지, 실험 관찰을 포함한 수행평가인지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는 수능 대비 EBS교재가 수험서는 될 수 있지만 교과서의 특성을 잘 드러내어 교사-학생간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교과서로는 부적합한 것과 같다. 더구나 지식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현대 사회에서 많은 양의 지식을 직접 제공해 주는 교과서가 옳은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지식들을 알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교과서가 옳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할 것이며, 교과서는 유일한 정전(正典)이 아니라 교육과정에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화하여 제시되는 여러 가지 학습 자료 중의 하나라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자연현상과 사물에 대하여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여 과학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과학적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길러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학적 소양을 기른다.'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학 교과서는 이러한 교육과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즉 과학교과는 많은 양의 지식의 전달보다는 직접 실험하고 관찰하는 체험활동이 더 필요한 교과로 내용적인 측면과 활동적인 측면이 모두 충족·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과학은 다른 학문에 비해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 지식의 내용이나 범위가 빠르게 변화하고 그 지식의 양이 방대한 분야이다. 이러한 새로운 과학 이슈나 최첨단 지식들을 과학 교과서에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과학 교과서는 새로운 내용들을 제시하는데 미흡한 점들이 많이 있어 이러한 시대적·사회적 변화를 수용하는 교과서로의 변화도 필요하다. 따라서 최첨단 과학 지식과 새로운

발견·탐구를 소개하고, 융합적 교육 요소를 반영한 교과서로 거듭나야 하며(윤종현, 2011) 이렇게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들을 교과서에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과학 교과서가 융합형으로 변화함에 따라 내용은 지나치게 많아지고 수업 시수는 한정되어 있어 활동 중심의 수업보다는 내용 서술 중심의 수업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이 표방하는 '창의성 신장'이라는 목표와도 상충되며 교과서의 양이 많아지면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을 보여준다. 따라서 교과서 체제나 기능을 변화시킬 때는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Ⅲ. 완결학습 체제를 위한 과학 교과서의 발전 방향

완결학습 체제를 위한 과학 교과서, 시대적·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과학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몇 가지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다양한 실험 관찰의 탐구 활동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교과서를 구성해야 한다. 과학교과에서 기초가 되는 것은 실험과 실습, 관찰을 통해 탐구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다양하고 새로운 내용의 제시나 시뮬레이션을 통한 학습으로 대체 활동이 아니라 다양한 실험 과정의 제시와 안내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고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즉 기본 개념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탐구 상황 및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과서를 구성하여 탐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기본 필수 내용과 보충 심화 내용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교과서가 절대시되는 상황에서 많은 양의 지식을 교과서에 수록해 제공하

다보면 어떠한 것이 꼭 알아야 하는 필수 내용인지 그 외의 내용인지를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학생들은 너무 많은 지식들 속에서 인지적 과부하에 노출되거나 거부감이 들 수도 있고 교사들은 진도를 모두 마쳐야 한다는 부담에 시달리고 사소한 것을 중요하게 다룰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불필요한 과잉학습 방식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필수 내용과 그 외 다양한 자료들을 확실히 분리해줄 필요가 있으며 교사들은 교과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들을 다 가르쳐야 한다는 의식을 버리고 학생들에게 핵심과 주변을 구분해 줄 필요가 있다.

셋째, 합본과 분책을 통해 교과서 활용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 현재 과학 교과서는 초등의 경우 기본 내용을 담고 있는 과학이라는 주교재와 실험, 실습의 내용의 담고 필기용으로 사용되는 실험관찰이라는 보완교재가 따로 분리되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과학책과 실험관찰의 내용이 중복되거나 필요한 내용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불편한 점들이 많으며 실험과정과 결과를 정리하는 부분이 따로 분리되어 있어 산발적인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보완교재를 주교재 해당 단원의 적절한 위치에 합본을 해야 쓰임새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참고서가 필요 없는 다양하고 풍부한 교과서를 만든다는 것은 결국 교과서가 두꺼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외형적으로 두꺼운 교과서는 사용하는 학생들이나 교사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고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으며 또한 가벼운 책가방을 선호하며 학교에 사물함을 설치해 주던 방향과도 상충된다. 따라서 현재 주교재와 보완교재를 합본하되 두꺼워지면 단원별, 2개월별, 분기별, 학기별 등 시계열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홍후조 외, 2012).

넷째, 디지털교과서와 보완관계를 구축한다. 완결학습 체제 구축을 위해 필요한 많은 양의 지식들을 모두 종이교과서로 표현할 것이 아니라 디지털

교과서에 담아 제공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종이교과서에는 필수 내용을 엄선하여 탐구형으로 수록하고 그 외의 보충적인 내용들은 디지털교과서에 담아 개인이 필요한 부분을 취사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교과서로 만들 수 있다. 특히 실험과 실습이 많이 필요한 과학과의 경우 1차원적인 설명보다는 시각적·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3D를 구현할 수 있는 디지털교과서의 보완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V. 나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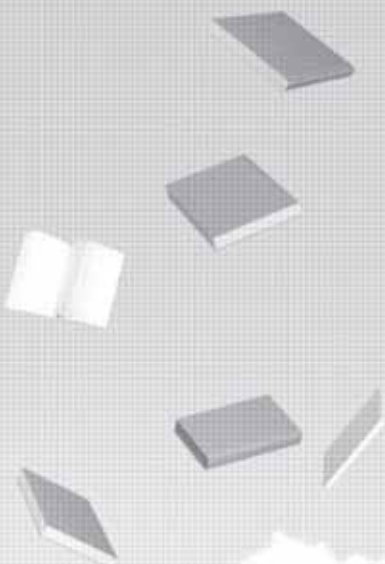
완결학습 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은 참고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학생들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해 나갈 수 있는 교과서를 말한다. 이러한 완결학습 체제 구축을 위해서 위와 같은 발전방안과 더불어 교과서의 특성을 반영한 교과서, 학생들의 호기심과 발달 단계에 맞는 교과서,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교과서, 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과서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교과서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및 체계적인 교육과정 편성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11). 2009 개정 교육과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 박인호 외(2011). 과학 교과서 개발 동향에 따른 교과서 심의제도 연구. 한국과학창의재단 연구보고서.
- 윤종현(2011). 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한 과학 교과서. 교과서연구, 65, 29-34.
- 이진승(2011). 과학과의 좋은 교과서. 교과서연구, 65, 29-34.
- 홍후조 외(2012). 교과서 개선 및 교과서 제도 개선 정책 제안. (사) 한국검정교과서 연구보고서.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의 방향에 대한 특별기획(특별좌담회 기록)에 이어 몇몇 현장 교사들로부터 어떤 교과서가 개발되기를 기대하고 있는지 들어 보았다. 교사들의 이야기가 이상적인 교과서의 전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교사들의 교육적 열정에 비추어 어떤 교과서가 나와야 할지 그 방향을 설정하는 근거는 찾을 수 있을 것이다.(편집자 주)





특별기획 II

나는 이런 교과서를 찾는다

- ▢ 일기장 같은 ‘에세이형’교과서에 대한 꿈
- ▢ 내가 찾는 교과서 [국어]
- ▢ 학습자와 교감하는 세련되고 따뜻한 교과서 [사회]
- ▢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는 그날까지! [수학]
- ▢ 내가 찾는 교과서 [체육]
- ▢ 내가 찾는 교과서 [음악]
- ▢ 내가 찾는 교과서 [미술]
- ▢ 내가 찾는 교과서 [미술]
- ▢ 내가 찾는 교과서 [진로와 직업]



이 용 애
용인이동초등학교 교사

일기장 같은 ‘에세이형’ 교과서에 대한 꿈

새 학년에서 사용할 새 교과서가 나왔다. 학년군 도입에 따라 교과서 이름과 형태도 다양해지고 종류도 많아졌다. 모두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교과서를 받아 갔다. 새 책 받은 느낌과 함께 앞으로의 다짐을 일기로 써 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과연 학생들은 새 교과서에 대해 어떻게 표현했는지 궁금하다. 다만 선생님은 일기장을 펼치면 나의 성장이 그대로 담겨있듯이 한 권 한 권의 교과서 속에 지금의 나의 모습과 미래 나의 모습을 담을 수 있도록 행복한 학교 생활이 교과서 속에 투영되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져볼 뿐이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은 교과서는 재미없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부족해 참고서나 사교육 보충지를 추가로 더해 공부해야 하는 무거운 짐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왜 그럴까. 현재 우리나라 교과서는 외형적인 표지 색상과 디자인, 종이의 재질 그리고 삽화의 채도 등 시각적 기준에 의하면 그 어느 나라의 교과서나 다른 책들에 비해 비교 우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호감도가 떨어지는 것은 ‘공감’ 없는 내용, 일상과 일치되지 않는 교육방법이라고 진단해 본다. ‘교과서 속 죽은 지식’이라는 학생들의 표현이 왜 교과서가 학생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지를 대변해 준다. 또한 미래 교과서는 ‘살아 있는 내 이야기’를 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새 정부가 ‘꿈과 끼를 끌어내는 행복교육’ 실행방안으로 제시한 ‘교과서 완결학습 체계’는 새로운 교과서 체제를 통해 교육 주체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는 교육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현재 교과서가 정보압축형으로 개발되어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하는 데 한계를 갖고 있다는 지적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미래 핵심역량을 담을 수 있는 교과서 체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첫째,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성취목표를 준거로 개발되어야 한다.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곳이지 교과서를 가르치는 곳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교과서의 의존율은 생각보다 높은 것이 우리 교육 실정이다. 그래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목의 20% 범위에서 교육과정을 증감할 수 있는 자율 권한을 학교에 위임하였다. 하지만 증감의 대상이 교육과정이 아닌 교과서라는 것이다. 교과서는 교과교육의 절대 지존이 아님을 알면서도 실행에 있어서는 교육과정의 재구성성이 아니라 교과서의 재구성성이 이루어진다.



교과별 혹은 학년별 교육내용의 재구성은 국가 수준에서 제시된 교과별, 영역별, 학년별 교육내용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이다. 즉 결정된 교육내용들을 상세화, 간략화, 특성화, 통합화하는 작업을 재구성이라고 한다. 어떤 교육목표가 결정되면 그것을 성취시키기 위해 교육 내용의 순서, 비중, 방법, 소재 등을 학생의 실태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해야 한다. 하지만, 재구성을 위해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이나 목표를 생략하여 지도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교과서를 재구성하다보면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되어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와 멀어지는 것이다.

교과서의 학교 현장 의존도가 높다면 현재 교과서가 내용 중심, 과정 중심으로 개발되는 것을 교육과정 성취기준 혹은 목표 지향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미래형 교과서는 스토리텔링형이어야 할 것이다.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는 미래사회의 여러 특징 중 '스토리'를 들고 있다. 최근 사랑받고 있는 명소나 대상을 보면 그 이면에 있는 스토리 때문이다. 이는 교육내용의 선정 기준의 패러다임이 이야기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을 시사한다. 즉 사실 위주, 정보 위주의 교육내용 선정에서 나와 연관된 스토리 위주의 내용 선정으로 전환함으로써 학생들이 교과서를 가지고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형 교과서의 내용은 교과서에 제시한 제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재 선정의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 규모, 위치 또는 배경 등에 따라 다양한 스토리를 찾고 그것으로 교육과정 목표를 성취하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교육과정 내용 선정과 조직 모형'으로서의 기능이 포함된 교과서 모습이다.

셋째, 교과서는 디지털 혹은 스마트 등 다양한 매체활용이 가능한 교육방법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서책도 필요하지만, 태블릿 PC와 스마트 패드로 학습할 수 있는 디지털 교과서의 개발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교육적 성찰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반 여건 조성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시장의 기능을 알아보자'라는 사회와 학습에서 학생들이 스마트 패드를 가지고 시장에 가서 직접 체험을 통해 학습할 수 있다면 효과는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인·물적 자원을 교육매체로 활용 가능하도록 교육방법의 다양성을 교과서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교과서는 다양한 평가가 상시 가능한 양방향 상호 평가체제이어야 할 것이다. 교과서 완결학습 체제 도입에서 제일 우려되는 것이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절대 지존을 만들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다. 교과서 완결학습 체제는 다르게 표현하면 교육과정 내실화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라고 본다. 따라서 교육과정 내실화는 교육과정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최적의 교육내용과 방법으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평가해서 이루어진 결과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내용 선정·조직, 교육방법, 교육평가가 하나의 선상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 학습이 이루어진 내용과 학습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온전한 자기주도학습의 형태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과서가 교육과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료형이어야지 절대적 정보를 담은 참고서형이 되면 안 되는 이유이다.

학교교육은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는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그동안 지적된 획일적이고 주입식인 교과서 체제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생활 모두가 교과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과서 완결학습 체제'가 추구하는 교과서의 모습은 특별한 인위적 자료가 아닌 일상의 생활을 소재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소박한 일기장 같은 '에세이형 교과서'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품어 본다.



강 용 철
경희여자중학교 교사

내가 찾는 교과서 [국어]

국정교과서에서 검정교과서 체제로 전환되면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수십 종의 국어 교과서들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마치 풍성한 밥상을 만난 것처럼 들뜬 설렘으로 다채로운 국어 교과서를 접하고 가르칠 교과서를 채택하였다. 대다수의 국어 교사들이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내용요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채택한 국어 교과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유의미한 국어 수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면 너무 많은 수의 검정교과서가 등장하게 되어, 교사들이 좋은 교과서를 고르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기도 했으며 교과서마다 다루고 있는 제재나 내용이 달라서 일말의 곤란함을 느끼기도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학교 현장에서 국어 교과를 오랫동안 가르친 교사로서, 평소 희망하는 교과서의 모습을 몇 가지 피력해 보고자 한다.

첫째, 나는 '적절한 분량으로 수업을 즐길 수 있는 교과서'를 원한다.

교과서를 사용하면서 느낀 곤란함은 바로 학습량이 지나치게 많아서 진도를 나가기에 급급하다는 점이다. 일부 학습활동이나 선택활동 또는 심화·보충학습은 학생들의 자율적인 활동이나 과제로 넘기는 경우가 생기곤 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어'와 '생활국어'가 합쳐졌지만, 제7차 교육과정과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2권의 국어책을 한 학기에 가르치느라 상대적으로 생활국어의 내용이 소략화되거나 취사선택적으로 사용된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학습량이 지나치게 많게 되면 학생들에게는 학습 부담으로 작용하고, 교사에게는 수업 부담으로 다가오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과서 발간시 규정된 쪽수 기준을 다소 낮추는 방안을 고려했으면 한다. 또한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현장 교사들의 수업을 재구성할 수 있는 자율권을 확대했으면 한다. 학생과 교사들이 적절한 분량의 교과서를 갖게 된다면 좀더 수업을 즐길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고, 무엇보다 교과 내용의 학습 성취에 대한 학생들의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둘째, 나는 '풍부한 독서를 권장하고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교과서'를 원한다.

다른 교과목도 그렇지만, 국어 교과서는 무엇보다 단순히 수업 시간에만 읽고 배우는 활동에서 머무르지 않고 수업 후에도 관련된 도서를 찾아 읽고 탐구하는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많은 학교에서 독서를 수업이 아닌 별도의 시간에 따로 하는 학습활동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국어 교과 안에서 교과와 연계된 독서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용 요소와 활동을 재구성했으면 한다. 수업 중에 독서의 필요성을 느끼고, 학생들이 수업 후에 자기주도적으로 책을 찾아 읽을 수 있도록 교과 연계 독서, 학습 연계 독서의 요소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신문 및 정보지를 읽는 활동, 중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활동,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해 매체를 비판적으로 읽는 활동 등도 국어 교과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 하겠다.

셋째, 나는 '생동감 넘치는 의사소통이 살아있는 교과서'를 원한다.

국어 교과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 가까이 배워도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논리적이고 정확하게 발표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곤 한다. 국어 교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말하기가 부족한 교실현장의 여건을 바꾸기 위해 국어 교과서 안에 생동감 넘치는 의사소통 활동을 더욱 확장했으면 한다. 토의, 토론, 협상, 회의 등 의사소통의 장에서 학생들이 마음껏 발언하고 소리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해야 하며, 무엇보다 배운 내용을 스스로 정리하여 발표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학습말하기, 공식적 말하기'를 대폭 반영했으면 한다.

넷째, 나는 '나와 우리를 거쳐 세상으로 향하는 글쓰기, 글짓기를 도와주는 교과서'를 원한다.

국어 수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기소개서나 자기의 학습과정을 표현하는 글을 쓸 수 있고, 대학입시


를 위한 논술 실력을 갖게 하는 교과서가 구현되었으면 한다. 때로는 멋진 문학작품을 직접 창작하고 서로의 글을 감상하는 식견을 길러주는 등 '자율적인 글짓기, 논증적인 글쓰기 교육'이 구현되었으면 한다.

다섯째, 나는 '수업 속에서 다양한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교과서'를 원한다.

학습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진단평가, 형성평가, 수행평가 등이 수업시간 중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한 교과서를 원한다. 예를 들어 UCC 만들기를 하는 수행평가라면 컴퓨터를 활용하는 능력, 스토리보드를 짜는 방법, UCC를 만들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활동이 수업 상황 속에서 체계적으로 전개되도록 분량과 시수를 확보했으면 한다. 넓은 안목으로 평가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환류를 함께 바라보도록 구성해야 한다.

여섯째, 나는 '종이책을 넘어 학생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 교과서'를 원한다.

출판 출판사들은 교육과정 기준에 의거하여 기본 내용을 담은 적절한 분량의 교과서를 발간하고, 국가에서는 여러 교과서에서 다른 제재를 소개하고 정리하며 다양한 읽을거리를 제공하는 사이버 교과서 지원체제를 구축했으면 한다. 제재 사용의 저작권을 해결해주고, 수준별 평가문제와 멀티미디어를 결합한 우수 자료를 제공하는 공신력이 높은 지원체제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가 바라는 교과서의 희망사항을 좀 더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동기 유발이 강한 교과서, 진로와 미래를 생각하게 하는 지향점을 갖춘 교과서, 자기주도적 학습태도를 고양하는 교과서'……. 이런 교과서가 나온다면 수업을 기다리는 교사의 행복한 표정, 잡지나 인터넷을 보는 마음으로 교과서를 바라보는 학생들의 즐거운 표정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임 홍 수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교사

학습자와 교감하는 세련되고 따뜻한 교과서 [사회]

I. 글을 시작하며

‘내가 찾는 교과서’, 혹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원하는 교과서’란 어떤 것인가? 현장 교사인 나로서도 이 질문에 바로 답하기는 솔직히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먼저 국가표준으로서의 규범적 성격이 강한 국가교육과정과 국정·검정·인정도서로 구분되는 교과용도서 제도의 경직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교과서는 국가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서 성전(Bible)처럼 규정되고 이런 상황에서 교사인 필자는 교과서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개선요구 등 교과서와 관련된 정교화된 의견을 갖기가 어려웠다. 또한 연령과 학교급 등 학습자의 지적 발달단계와 교과 등에 따라 교과서의 내용 구성과 조직, 제시방법이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데 고등학교에서 일반사회교과만 십 수년 간 가르친 필자의 한정된 경험과 그에 따른 의견개진이 교과서 전체에 대한 의견으로서 일반화 될 수는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교과서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과 참여가 점점 더 필요하고 또 확대되는 상황이 되고 있다. 국가교육과정 개정의 흐름과 교과용도서제도 개선, 교육과정의 개정 과정과 교과서의 집필, 수정, 개정 등에 교사들의 참여 기회 확대 등은 이제 교과서가 교사와 무관하게 ‘주어진’ 존재가 아닌 교사들의 관심과 참여에 의해 ‘만들어 지는’ 존재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런 맥락에서 교과서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요구 등 현장교사의 의견은 교과서를 개선하는데 있어 중요한 환류효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글에서는 필자가 지금까지 교육현장에서 느꼈던 교과서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필자가 바라는 교과서의 모습을 그려보고자 한다.

II. 내가 찾는 교과서의 모습

‘학교에서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주된 도서’(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8660호)로 정의되는 교과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교재로서의 주된 지위와 역할을 지니어 왔다. 전통적으로 학교에서 교사는 교과서의 내용과 순서에 따라 학습계획을 세우고 교과서의 내용을 기록하고 암기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며 교과서 내용의 숙지 여부를 물어보는 방식으로 평가가 진행되었다. 또 고등학교에서 교육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는 최고 중요한 요인인 대입 수험능력시험 또한 교과서를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교과서의 위치는 더없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과정에 충실한 교과서, 학생들의 사고력을 높이는 교과서, 쉽게 가르치고 재미있게 배우



는 교과서,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교과서 등 교과서에 대한 바램은 교사들의 숫자만큼이나 여러 가지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인데, 그 중 필자가 바라는 교과서의 모습 몇 가지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1. 학습자와 교감하는 교과서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들 사이의 학습은 여러 수단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자료는 두 말할 나위 없이 교과서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은 학습에 있어 다른 어떤 매체보다도 교과서와 접촉하는 시간이 많으며 교과서와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많게 된다. 따라서 교과서는 학습자와 감성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매체가 되어야 한다. 교과서 특유의 형식적이고 활자화된 문서로서 지니는 딱딱함을 완화하고 교과서를 통해 학습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과 학습자와 대화가 가능한 방식으로 교과서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 학습자와 친근하고 실생활과 관련 깊은 자료와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교과서를 통하여 학습자들이 쉽게 내용을 익히고 도전적인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교과서, 나아가 사회문제에 관심과 흥미를 갖게 하고 그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학습을 안내하는 즐거우면서도 치밀하게 준비된 교과서라면 더욱 좋겠다.

2. 세계적 안목을 넓혀주는 교과서

이제 세계는 빠르게 좁아지고 가까워져 국제적 상황이 우리 생활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끼치며 중요한 생활의 일부분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교육은 국제적 마인드와 감성을 키워 세계적 상황에서 기능하는 시민을 키워야 하므로 교과서 또한 세계적 안목을 키워주는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의식을 키우는 내용은 물론 전 지구적 문제에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을 고민하게 하는 참여 의식과 자세를 키워주는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과서에 실리는 내용과 자료, 삽화, 과제 제시 등이 좀 더 세계적인 사건과 인물, 세계의 동향 등과 관련하여 세계사 흐름의 맥락에서 체계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덧붙여 경제적 · 정치적으로 소외된 국가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도움을 주는 방법을 모색하는 교과서가 되었으면 좋겠다.

3. 세련된 교과서

거친 누런 종이에 검은색의 글씨와 분별하기 힘든 흑백사진으로 구성된 과거의 교과서로 공부한 기억이 있는 필자에게 현재의 교과서들은 팔목상대라 할 만큼 크게 발전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 사회의 총체적 발전의 결과가 고급 종이와 컬러사진, 다양한 색상의 글씨 등 교과서의 외형의 발전에 반영된 결과라 할 것이다. 교과서와 상호작용할 시간이 많은 학생들에게 교과서는 디자인, 구성, 색상, 그래픽 등 그 외형이 가지는 특성이 학생들에게 명시적으로 또 암시적으로 미적 감각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디자인이 개인의 생활과 감성에 끼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고 또 디자인 산업이 국가 경제적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며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미적으로 세련된 교과서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다고 볼 수 있다.

4. 함께하는 삶의 가치를 고양시키는 따뜻한 교과서

교육현장은 사회의 축소판이며 교육은 삶 자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교육을 통하여 보다 행복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빈곤층, 다문화가정, 새터민 등 사회적 약자들의 소외와 양극화 현상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문제를 좀 더 활발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유기적으로 전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 해결 없이 사회구성원 행복의 크기를 증대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이론적 지식의 나열보다는 교육현장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문제해결력을 돕는 교과서가 필요하다.

III. 결론

교과서의 수준은 한 국가의 발전의 수준을 나타낸다. 우리의 교과서가 지금껏 발전해온 것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발전수준이 교과서에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한편 교과서에 대한 다양한 바램들이 제시되고 그것이 투입될 때 더욱 좋은 교과서가 만들어질 것이다. 위에서 필자가 제시한 교과서의 모습들은 교육과정의 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다소 낭만적이고 원론적인 부분이 많다는 점 등 여러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머지않아 이런 바램들이 반영된 교과서를 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본다.



조 진 호
마포고등학교 교사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는 그날까지! [수학]

어느 교육감이 2013학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업무계획의 핵심은 “학생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교사가 보람을 느끼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대다수 국민이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내용을 언급했다. 그런데, ‘수학’ 교과를 예로 들면 학교현장에서 수학의 실체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현재 모습은 무서운 괴물이 되어버렸다. 대다수 학생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악마가 되어버렸다. 수학 때문에 학교생활이 싫어지고, 수학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잠을 못 자고, 수학 때문에 학생 및 학부모가 불행해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어느 학년부터 수학은 공공의 적이 되어 버리고, 상위권 학생에게는 입시에서 살아남기 위해 넘어야 할 큰 산이 되어 버린다.

수학 때문에 학생들이 행복하고, 수학 때문에 등교하기가 즐거운 모습을 꿈꾸면서 고등학교 수학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제안한다.

먼저, 외형적인 측면에서 수학 현장, 교육과정 그리고 입시와 연동하여 살펴보자.

광복 이후 70년이 지났어도 다른 교과목에 비해 교수·학습 방법에서 요지부동인 교과가 고등학교 수학이다. 현재 교직에서 17년 수학을 가르치고 있지만, 나의 학생시절과 비교하면 교수·학습 방법에 큰 차이가 없다. 아니 거의 똑같다.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다.

입시라는 큰 산맥 앞에서 철저한 현실주의자로 변신하여 문제를 잘 푸는 선수를 육성하는 코치가 되어 버렸다. 요약된 설명과 공식, 출제 예상문제 위주로 구성된 손수 만든 자체 교재와 교과서를 활용하여 족집게 연금사 수학교사가 되어 버렸다.

학부모 및 학생들의 입시 성적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앞만 보고 달리기만 한다. 수학의 아름다운 얼굴을 학생들에게 보여 주지도 않은 채, 오늘도 앞만 보고 열심히 뛰라고 잔소리 한다.

고등학교 수학은 입시와 별개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고등학교 자연계열 학생인 경우 3학년 2학기 때 기하와 벡터를 배운다. 수능은 11월에 보고, 서울의 주요 대학 논술고사는 수능시험 이전에 대학별로 본다. 다 배우지도 않은 내용을 국가가 주관하고 있는 수능시험에 출제를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의 현재 모습이다.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면 학생들은 수능시험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낙오자가 되고,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은 말을 하지 않아도 불을 보듯 뻔하다. 아직 크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보면 대부분의 학교가



교육과정을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단면을 입증하고 있다. 일부학교에서는 3학년 2학기 내용까지를 2학년 말까지 끝내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로 인하여 학생들은 수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은 멀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은 점차 늘어나거나 살아남기 위해 선행학습을 하는 등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을 학생과 학부모들이 떠안고 있다.

이런 구조적인 모순을 최소화하려면 교육과정, 교과서, 입시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현재 세 가지 주요정책들이 따로 따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다. 교육과정, 교과서, 입시를 담당하시는 정책 실무자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권자들이 함께 모여 교육의 백년대계와 함께 현장의 모습까지 반영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제발 따로 따로 정책을 결정하지 말고 논의하여 정책을 만들어야 공교육의 정상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고등학교에서의 교육은 입시를 외면하고서는 아무리 좋은 만병통치약도 효과가 없다. 하루빨리 세 분야의 담당자들이 모이기를 바란다.

다음으로 내형적인 측면에서 수학 교육과정 또는 수학교과서를 살펴보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언급하는 수학의 변화는 “요약된 설명과 공식, 문제 위주로 구성돼 있는 기존 교과서에 수학적 의미, 역사적 맥락 및 실생활 사례 등을 스토리텔링 방식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계해 수학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인다.”라고 발표했다. 초등학교 1, 2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경우 올해부터, 고등학교의 경우 내년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맞춘 교과서로 이런 방식의 수업을 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수학 교과가 개념 정의, 예제 문제, 연습 문제, 종합 문제 등 문제풀이 위주로 이뤄졌다면 어떤 수학적 개념을 왜 배워야 하는지, 그 개념이 나온 배경이 무엇인지, 특정 수학자는 그 개념을 왜 만들게 됐는지부터 먼저 이해하고 갈 수 있다는 이야기다.

다양한 수학 교육 정책 변화가 제시되면서 앞으로 학교 현장이 어떤 형태로 달라질지는 미지수다.

제안하고 싶은 것은 수학 교육과정의 내용을 현재

보다 30% 이상 줄이는 것이다.

고등학교 수학이 수능 시험용으로 변별력 우선보다는 창의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학문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수학은 문제풀이용 학문이 아니다. 다양한 사고와 수학적인 창의성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학습할 내용이 너무 많아 교사 위주의 일방적인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내용을 말할 틈도 없이 시작부터 종찰 때 까지 앵무새처럼 교사 혼자 콘서트를 하고 있다. 수업 및 평가가 수학 지식의 단순 암기 및 문제풀이 위주로 이루어져 창의성을 신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어려운 수학 문제들을 보다 많이, 빨리 익히고 풀기 위해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사고력과 창의력 등을 키우는 데는 미흡한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학습하는 양은 많으나 응용력과 창의성은 향상되지 않고 있다.

교육과정 내용을 30% 이상 줄여 기본 개념과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 그리고 50분 수업 중 15분 이상을 발표 또는 또래학습을 할 수 있도록 배정해야 한다.

내형적인 측면에서 두 번째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수학을 공부할 때, 참고서보다는 교과서를 먼저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학생들의 교과서에 대한 의존도는 30% 미만이다.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어서 어느 정도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교과서를 제작해야 한다. 동기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체험과 탐구 활동이 가능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기존 교과서의 모습인 ‘재미없고 실생활에는 거의 도움이 안 되는 과목, 암기 및 문제풀이 중심의 교과서’에서 ‘쉽고 재미있으며,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과목, 실생활과 연계한 개념·원리 이해 및 문제해결의 종결자의 대변자’로 변모해야 한다.

수학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개인적인 목표는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는 그 날까지!”이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학 때문에 행복한 학생, 웃는 학생, 학교생활이 즐거운 학생이 많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 동 대

전라북도

장수계북중학교 교사

내가 찾는 교과서 [체육]

체육교과 교육과정 목표는 신체활동 가치의 내면화와 실천을 통한 전인교육을 목표로 한다. 즉, 신체활동을 통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삶에 필요한 지식과 실천능력, 자신의 미래를 계발하는 데 필요한 도전능력과 창의적 사고력,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선의의 경쟁을 함과 동시에 협력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 있다. 학교폭력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체육교과에 대한 많은 관심이 대두되고 있으며, 행복한 교육과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협동정신, 희생정신, 배려와 나눔 정신을 교육활동 내에서 체험할 수 있는 체육교육의 패러다임 변화는 필수적이다.

먼저 2013년에 새로 시행되는 중학교 체육 교과서는 너무 두껍고 무겁다.

중학교 1,2,3학년이 모두 사용하는 책으로 구성되어서인지 한 권의 체육책이 너무 무거워서 학생들에게 부담감을 줄 수 있다. 체육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적인 내용만을 담고 교과서는 좀 더 슬림화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체육교과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책까지 무겁다면 학생들이 체육 교과서를 지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체육 교과서 내용이 시대적 트렌드에 맞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각 학교급에 맞는 필수적인 내용은 최소한으로 담고 그 외 내용은 시대적 요구사항(현재 사회의 문제점이나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학교폭력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즐겁고 재미있는 신체활동이 세로토닌(serotonin)과 도파민(dopamine)을 분비하여 학생들의 공격성을 감소시킨다는 심리적인 내용들이 포함된다면 실제 삶과 좀 더 연계된 학문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과정에는 과학적 원리, 생리학적 원리, 심리학적 원리 등이 현실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화시켜야 한다.

예를 들자면 원반던지기나 골프운동에서 구심력과 원심력의 원리가 우리 주변의 위급한 상황(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원심력과 구심력을 이용하여 로프를 멀리 던지는 경우),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 무거운 부하와 가벼운 부하가 왜 근섬유를 굳게 하여 근육을 형성하고 근지구력을 만들어주는지의 원리, 신체활동을 하면 체온이 상승하고 뇌혈류량이 증가하여 심지적 활동물질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분비되어 불안과 충동적 행동을 억제해 주는 원리와 같은 학교교육과 사회생활 속에서 연계되는 직관의 교육활동으로 구성될 때 바람직한 교과서가 될 것이다.

스포츠 클럽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하여 체육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를 보면 학교체육과 사회체육이 공존한다. 선진국의 경우는 오후3시 이후에는 모든 학생이 정규 학교교육과정을 마치고 자신이 좋아하는 특기와 적성에 맞는 활동을 한다. 축구, 수영, 야구, 농구, 미술, 음악, 독서 등의 동아리 활동을 학교 밖 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주말이면 부모와 함께 자신이 익혀온 종목에 참여하여 스포츠클럽 리그 디비전(division)에 참여한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4시까지도 모자라서 4시 이후에는 국·영·수 과외학원으로 달려간다. 물론 중요 과목을 다른 나라에 비해 잘 한다고 보자. 그렇지만 과연 공부에 열중하고 잘 하는 학생이 몇 %나 될까? 선진국 학생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동안 자신들이 좋아하는 특기 적성을 계발한다. 미래에는 다양한 지식을 통합하고 재구성하여 재창조하는 창의적 사고를 가진 인재를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의 교육과정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학교 밖 동아리 활동을 할 때에 학생들이 이용하게 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설 이용료를 지원하여 학생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선진국이 그렇게


이용하는 것처럼 말이다.

스마트폰과 패드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전자책(앱)이 개발되어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체육 교과 경시풍조와 전자기기의 발달을 고려해 볼 때 체육 교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텍스트만이 아닌 그림과 동영상을 구현할 수 있는 전자책(앱)을 개발하여 스토어에 올려놓게 되면 모든 학생들이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고 무거운 교과서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학교체육은 평생체육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배운 체육활동과 체육(건강)에 대한 지식, 그리고 각 스포츠에 대한 기술을 익힘으로써 성인이 되어서 자신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 재미있게 배운 스포츠 활동에서 자신에 맞는 취미활동을 찾을 것이고 성인이 되어서 성인 스포츠클럽에 들어서 자신에 맞는 클럽활동을 하게 된다면 자신의 건강관리 뿐만 아니라 건강·체력 저하로 나 타날 수 있는 의료비의 절감을 가져와 국가적으로 의료비 절감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는 단편적 지식위주의 암기보다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창의력과 사고력이 요구되는 시대이다. 교과서의 내용도 시대적 요구에 맞게 개발되어야 한다. 체육 교과 속에서 학교폭력과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실생활과 연계된 프로그램과 원리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학교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토대로 행복한 학교, 즐거운 학교생활을 영위함으로써 활기찬 삶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고 바람직한 품성과 사회성을 갖춘 경쟁력 있는 민주시민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권 혜 인

서울 한성여자중학교 교사

내가 찾는 교과서 [음악]

1. 음악 교과와 음악 교과서

‘음악’은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하여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음악성과 창의성, 음악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안목을 키움으로써 음악을 삶 속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교과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다시 말해, 음악 교과의 목표는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다양한 음악 활동과 경험, 둘째, 음악성과 창의성을 기르고 표현하기, 셋째, 생활 속에서 음악의 활용이다.

‘음악 교과서’가 다른 교과에서의 기능에서 나아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까닭은 음악은 예술적 경험을 다루기 때문이다. 예술적 경험은 일상적 경험과 달리 비현실적이며 지식과 감정이 모두 포함된다(Hoffer, 2001:22). 음악성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청각적 능력이라는 점에는 모든 학자들의 견해가 일치하지만 음악성의 구성 요인과 선천적 또는 후천적 정도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합의를 보지 못했다. 창의성에 대한 정의와 범위, 과정, 종류에 대해서도 학자 간 견해의 차이가 존재하는 영역이다. 이렇듯 음악은 인간의 감성과 감정에 기초하며, 개량화되기 힘든 질적이고 주관적인 성격을 가진다. 음악 교과서는 이러한 음악 교과 특성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에 적합하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2. 음악 교과와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박근혜 정부의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는 완성도 높은 교과서 개발을 통해 과열된 참고서(학습자료 포함) 시장을 억제하고 학교 수업의 질 향상을 꾀하고자 한 취지로 보이나, 음악 교과의 경우에는 참고서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음악 교과에서의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는 음악 교과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음악 교과서는 중등은 인정 교과서, 초등은 검정 교과서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필자는 현장 음악 교사인 동시에 음악 교과서 개발자로서 느끼고 고민한 음악 교과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3. 좋은 음악 교과서

첫째, 좋은 음악 교과서는 활동과 음악적 개념을 조화롭게 연계한 교과서이다. 엘리엇(Elliott, 1995:49)에 따르면 음악은 동적인 음악 행위 그 자체이다. 하지만 오늘날 다수의 교과서는 다양한 음악 활동을 강조한 나머지 음악적 개념이 음악 활동과 연계되지 않은 채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몇 년



의 음악 수업을 받은 학생도 '화성'과 같은 기초적인 음악적 개념에 대해 정의내리기 어려워한다. 음악은 가락, 리듬, 화성, 형식, 음색, 셈여림, 빠르기 등의 요소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음악의 구성 요소와 원리에 대한 이해는 음악 활동과 음악 수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여준다. 이는 또한 적은 학습량을 통해서도 음악의 핵심 구성 요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학습 개념이자 전략이다. 따라서 현재 음악 교과서의 다양한 활동의 나열이 음악적 개념과 조화를 이루며 연계된 방식으로 전개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좋은 음악 교과서는 과거와 미래,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교과서이다. 음악 교과서 평가에서 빼놓지 않고 언급되는 부분이 악곡이다.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면, 새로운 악곡과 기존 악곡 간의 비율이 60:40을 선호한다고 조사된다. 교과서 수록 곡이 구식이라는 평은 최악의 교과서라는 평에 버금가는 혹평으로, 좋은 악곡 선정은 음악 교과서에서 특히 중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새롭다는 것이 주관적 기준이라는 것이다. 모든 출판사의 교과서는 나름대로 새로운 악곡을 담은 교과서를 내놓지만, 교사의 입장에서 특정 교과서의 악곡은 식상하다. 새로움을 강조하다보니, 역기능으로 의미있는 오래된 악곡의 가치가 무시되기도 한다. 예컨대, '스승의 은혜'나 '어머니의 은혜'와 같이 시대를 초월하여 사랑받는 악곡을 수록한 음악 교과서가 의외로 적다. 오래 알고 있을 것이란 편견에 가르치지 않다 보니 못 배우고 넘어가기도 한다. 좋은 교과서라면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동시에 과거의 전통을 계승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 특히 악곡 선정에서 과거와 미래, 전통과 혁신이 공존할 수 있도록 교과서 제재를 엄격하고 철저히 선별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좋은 음악 교과서는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과서이다. 음악은 음악 자체를 체험하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음악 교과서의 내용은 깊이보다 폭이 우선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느끼는 경향이 있는데 음악에서도 익숙한 음악만을 편안하고 좋아한다고 여기기 쉽다. 일례로 수업시간 중에 중앙 아시아의 음악을 다룬 적이 있는데, 몇 차례 반복 끝에 음악에 대한 편견을 지우는 데 성공하였다. 음악 교과서는 다양한 시대와 지역, 문화의 음악을 다루어야

한다. 2007과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나 다수의 교과서에서 이 부분의 비중이 구색 맞추기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음악을 통해 다양성에 대한 가치 존중을 배울 수 있도록 음악 교과서는 세상에 널리 알려진 음악과 함께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음악을 폭넓게 다룰 것을 제안한다.

넷째, 좋은 음악 교과서는 좋은 지도서로 완성된다. 국정보다는 검정이, 검정보다는 인정 교과서가 규격과 틀에 있어서 보다 자유롭다고는 하지만 교과서 개발의 현실에는 타협의 선이 존재한다. 부연 설명이 풍부한 교과서가 이상적인 것도 아니다. 공부의 시기에 따라 해설집이 필요한 시기와 요약 정리집이 필요한 시기가 있다. 음악 교과서의 경우 학생들의 발달 단계와 능력 수준, 흥미도 및 지역성의 편차가 크다. 더구나 음악 교과서는 다른 교과에 비해 수업 주제의 성격과 특징에 따라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이 가능하다. 음악 교과서는 현재의 정보압축형으로 개발하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교사용 지도서 개발을 보다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교사용 지도서에 다양한 수업 자료를 비롯하여 관련 자료를 얻는 절차적 정보를 강화하고 학생의 필요에 따라 교사가 이를 제공한다면, 학생과 교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4. 좋은 교과서의 결실

좋은 교과서는 훌륭한 교사로 결실을 맺는다. 허백의 종이 교과서를 썼던 때에도 지혜로운 선생님 덕분에 뛰어난 인재들이 길러졌고, 그 인재들에 의해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이 발전할 수 있었다. 좋은 음악 교과서 개발은 물론이며, 교육에 대한 사명과 열정을 지닌 교사를 통해 우리나라 교육이 나아지길 기대해본다.

참고 문헌

- 교육인적자원부 (2009). 2009개정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11-361호
- 권덕원 외 (2008). 음악 교육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 Hoffer, C. R (1993). Introduction To Music Education-2nd Edition, 안미자 역(2001), 음악교사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Elliott, D. J. (1995). Music Matter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정 윤 성

서울금복초등학교 교사

내가 찾는 교과서 [미술]

나는 3차교육과정(?)이 적용되던 1970년대에 국민학교를 다니고 2010년대에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20년 넘게 가르치고 있다. 학교 건물과 기자재, 시설은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좋아지고 수준이 높아졌음을 느낀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더불어 학생들의 체격과 모습도 매우 빠르게 변화되고 서구화되어감도 느낀다. 그러나 학생들의 학습능력에서는 의문부호를 찍게 된다. 요즘 아이들의 학습에 대한 의지와 학습 수준을 물어본다면 대답은 “글쎄요.”가 될 것 같다. 학생들의 학습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답이 이렇게 망설여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왜 예전의 학생들에 비해 학습능력이 발전되었다고 답할 수 없을가에 대한 고민을 나름대로 해본 결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의 교과서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문제해결력을 키우도록 돕는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문제를 풀 때 쉽게 풀리는 것에는 도전하고 뿌듯해하지만 조금 어려운 문제는 막히는 부분에서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전적 사고를 하지 않는다. 친구의 것을 본다거나 친구나 선생님께 물어보고 쓰려고 한다. 물론 학생들에게 질문은 좋은 공부 방법이다. 그러나 한번 풀어보고 잘 모를 때 열른 묻는 질문은 오히려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생각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고민하거나 노력 없이 정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질문은 학생들에게 사고의 과정을 생각하게 만들고, 조금 어려운 것은 포기하게 만들어버린다. 내가 만난 초등학교생들의 대부분은 이런 모습이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너무 많은 내용을 빠른 시간 안에 머릿속에 넣어주려는 우리의 욕심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자녀가 더 많은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기 위해 오후를 방과후학교, 학원, 과외 등으로 계획한다. 이에 호응하듯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재인 교과서에도 많은 내용을 담으려 애쓴다. 그 결과 부모님과 선생님이 아이에게 가장 많이 하는 물음이 “다했니?”가 되어 버렸다. 이 물음과 대답이 문제이다. 답을 적으면 다한 것이므로 아이들은 빨리 빨리 답을 적고 다했다고 말한다. 물론 여기서 답의 수준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이 아닌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동문서답이어도 아이들은 ‘쫘다’라는 사실 만으로도 답을 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고 그것에 모두 수긍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교과서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과 사고의 과정보다는 결과만을 보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능력 발



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교과서의 내용 구성면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미술교과서를 예로 들고자 한다.

첫째, 많은 양의 학습 내용을 넣기보다는 필수적으로 배워야 할 내용을 주제별로 추출하여 구성하는 것이다. 현재 교과서에 실린 학습 내용은 너무 많다. 학년별 필수 이수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내용을 모두 넣었기 때문에 내용이 많아졌다면 초·중·고교 급별로 필수 내용을 골라 학년에 나누어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둘째, 발상을 자극할 수 있는 자료를 많이 수록하는 것이다. 김인정 교과서를 보더라도 교과서의 대부분은 유명 참고 작품과 학생 작품으로 채워져 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미술과는 전문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다양한 생각을 자유롭게 해내는 창의적인 능력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창의적인 발상은 더욱 절실하다. 발상을 자극할 수 있는 자료도 학생들의 경험을 떠올릴 수 있는 자료부터 큰 브로마이드 크기의 자료, 동영상 자료, 실물 자료 등 여러 가지 종류의 자료를 다양하게 싣거나 제공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부록에서 창의적인 발상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셋째, 한두 개의 작품이라도 작품 사진만 실지 않고 그 작품이 만들어질 때까지 발상단계부터 재료 탐색, 구상하기, 표현 계획 세우기, 표현하기, 수정하기, 감상하기 등 일련의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면 한다. 흔히들 '교과서가 너무 불친절하다'고 말한다. 이 말은 곧 시작과 중간단계를 생략하고 작품만 수록되어 있어 작품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정보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또 다른 표현이다.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지 않아도 학생이 스스로 보고 여러 갈래로 생각하면서 표현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과서가 진정한 친절하고 자기주도력을 키워주는 교과서가 될 것이다.

넷째, 학년에서 가르치기에 적절한 내용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으면 한다. 현 교육과정에 의해 2

개 학년 군으로 묶어 교과서 한권을 2년 동안 공부하는 것은 좋지만 기초와 심화부분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어서 저학년에서 학습할 내용과 고학년에서 학습할 내용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잠정적으로 기초영역을 저학년에서, 심화영역을 고학년에서 가르치고 있는 학교가 많지만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서 또는 교사에 따라서 기초와 심화영역 중에서 가르치는 학년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가르치기도 한다. 결국 다음 학년에서 다른 교사가 맡아 다시 가르치게 되는 중복학습이나 어떤 학년에서도 가르치지 않아 배우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단계별 체계성을 갖추어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다. 발달이 빠른 학생과 더딘 학생도 있지만 6학년 교과서의 내용 중에는 3학년에서 가르쳐도 될 만한 수준의 내용이 있기도 하고, 3학년 교과서의 내용 중에도 6학년에서 가르치기에 알맞은 수준의 내용이 눈에 띄는 등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교과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도 한다.

학생들을 가르칠 때 여러 가지 도서를 읽고 참고 자료를 찾아서 보충하기도 하지만 가장 자주 사용되면서 가장 훌륭한 교육 자료는 교과서이다. 초등학교 교육이 사회의 가장 어린 구성원인 어린이가 꼭 배우고 익혀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교육에서 차지하는 교과서의 위상은 상당히 높다. 학생들이 교과서를 통해 기본 내용을 배우고, 교과서를 통해 사회를 보는 눈을 익히며 교과서를 통해 품성을 기른다. 그러므로 필수적인 내용을 주제별로 추출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심화하여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교과서를 기대한다. 또한 교과서를 통해 깊이 있게 생각하고, 끝까지 해결하려는 학생들의 모습도 그러본다.

교과서 한 권을 집필하고 제작하는 데 많은 분들의 수고가 합쳐져 있음을 잘 안다. 또한 만들기보다 비평하기가 훨씬 더 쉽다는 것도 알고 있다. 비록 앞에서 제시한 교과서의 모습이 이상에 가까울지 모르지만 그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발전의 과정이 아닐까 생각한다.



강 해 중
통영육지중학교 교사

내가 찾는 교과서 [미술]

들어가며

미술이란 무엇이며 미술의 전 영역에서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떤 눈높이로 어떻게 담아내어 미술교과와 특성을 살리고, 오늘과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이 미술을 통해 그들의 삶을 얼마나 살찌울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은 6년전 교과서 제작에 참여하게 되면서 시작되었고 지금도 진행형이다. 교과서 개발에 참여하면서 교과서의 가치와 소중함을 새삼스럽게 느끼면서 현장에서 미술교과서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었다.

미술교육의 목표가 자신과 주변 세계에 대한 미적 감수성을 기르고,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으며, 미술의 가치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미술 문화를 향유하게 하고 삶을 윤택하게 하는 교과목의 달성에 있다면, 교과서가 담아내야 하는 내용의 선정이 가장 긴 시간을 요구하는 고민의 과정이라 할 수 있었다. 그간의 교과서 제작에 참여하면서 좋은 미술교과서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본다.

□ 좋은 미술교과서는 무엇을 담아야 할까?

교과서의 핵심은 누가 뭐래도 내용의 선정과 조직에 있다. 미술교과서가 중학교의 경우 전 학년 한권으로 통합되어 무엇보다도 내용의 체계성을 가지게 된 것은 다행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교과서의 질을 높였다고 생각한다. 교육과정의 반영을 통해 대상 학년의 수준에 맞는 내용을 찾아 학습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이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면 사랑받는 교과서가 될 것이다.

첫째, 우리나라 미술교육은 기본적으로 전인교육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미술의 표현과 감상을 기본적인 활동으로 삼던 측면에서 점차 자연과 생활문화 속에서 미적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할 뿐 아니라 세상과 상호작용하고 시각적 소통을 원활히 수행하는 측면까지 확장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미술교육의 방향은 미적 안목을 높이고 미술을 소비하는 소비자 중심의 미술교육을 통해 시각문화에 기초한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시대정신을 이해하는 교육의 방향이 큰 흐름이라고 한다면, 좋은 교과서를 구성하는 기본방향 또한 즐거운 미술시간을 위한 재미있는 교과서, 미술의 지식을 이해하고 학습하는 학문으로서의 교과서 내용구성은 미술교육의 목표에 접근하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둘째,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과목표와 내용이 잘 구현되도록 단원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는 교육과정이 전체적인 학습의 위계와 체계성을 통해 무엇을 담아야 할지에 대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특성이 시대적인 가치와 사회문화의 현상을 민감하게 수용하는 미술과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교육과정에 따른 소단원의 선정이 곧 교과서 구성의 철학이고 집필진의 미술에 대한 인식의 반영이기도 하다. 기본적인 미술의 지식보다는 교육현장에서의 체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필요와 요구가 반영된 현실성 있는 개념의 적용과 체험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좋은 교과서” “사랑받는 교과서”의 내용 조직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학생 눈높이에서 미술의 가치를 발견하고 미술을 사랑하고 미술을 통해 학생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믿음과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 신선한 내용과 학습자의 수준이 고려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넷째, 생활에서 미적 대상을 발견하고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정서를 풍부하게 해 주며, 미술을 생활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도록 하고,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미술을 이해하고 애호하는 태도를 가지게 하며, 전통 미술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구성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미술교육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능력은 표현능력과 감상능력 뿐 아니라 세계를 체험하고 내면과 소통하는 능력, 생활문화와 아울러 미술문화에 대한 비평능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 좋은 미술교과서는 단원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까?

좋은 미술교과서의 조건은 미술교육의 본질을 충분히 담아내는 구조로 구성되어야 한다. 학습목표에 도달하도록 내용요소를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통합적 사고력을 지향하는 생활중심의 내용구조와 이해를 통해 표현활동과 체험, 감상, 비평으로 단계별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첫째, 동기 유발을 통해 이해와 표현의 욕구를 북돋워 주고, 주제, 표현 방법, 조형 요소와 원리, 재료와 용구 등에 관한 체계적인 탐색 활동과 능동적인 표현 활동을 통해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친절함과 성실함이 보이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학습목표는 교육과정의 내용체계와 학습자의 성취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한다.

셋째, 학습내용은 ‘이해’, ‘체험’, ‘표현’, ‘감상 비평’의 흐름으로 구조화하고, 각 영역별 학습 내용 간의 관련성, 학년군별 학습내용 간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하며, 학습과제의 성격, 과제 해결을 위한 기본 절차와 방법, 사전 지식의 활용, 학습 활동, 피드백 등을 세부적으로 제시한다.

넷째, 학교현장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학교와 지역사회의 특수성, 학생 수, 학생구성원의 특성과 시설 및 용구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다섯째, 개념의 이해를 위한 관련 도판의 선정은 물론 원리와 개념을 시각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구성이 또한 중요하며, 체험 및 표현활동의 과정은 세부적인 설명과 안내를 통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해야 한다. 일반적인 화보집 성격의 구성은 가장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 좋은 미술교과서는 어떻게 활용되어야 할까?

미술 교과서의 활용은 미술 교과서의 정체성과 미술 교육의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교사는 교과서가 담고 있는 내용요소와 구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업을 설계하고 출판사가 제공하는 자료들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현장상황을 고려한 수업을 연구하여야 한다. 교과서는 교사에게는 수업의 기본적인 안내자료로서, 학생들에게는 교과서에 기술된 개념과 원리를 통해 미술의 가치를 발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 주 현
진례중학교 교사

내가 찾는 교과서 [진로와 직업]

교과서와 만나게 되는 것은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면서부터 이다. 우리는 12년을 교과서와 함께 매일 수업을 받았고, 교과서는 시험을 위해 반드시 익혀야 할 대상이었다. 시험 문제에서 애매했던 답은 교과서에서 찾아 맞추어 보았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받았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교과서에 정오표가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랐다. 교과서에서 틀린 것이 있었다는 것이 어린 나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내용의 오류는 아니었고 단순한 오·탈자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부터 교과서를 볼 때 혹시라도 잘못된 곳이 없는지 찾아보곤 했다.

학생으로서 만난 교과서와 교사가 되어 만난 교과서는 느낌이 달랐다. 어린 시절 그렇게 권위가 있는 것으로 느꼈던 교과서에 허점도 많았고 이보다 더 좋은 내용도 있는데 꼭 이 재재를 선택해야 했을까하는 불만도 많이 느꼈다. 그러다가 교과서 심의를 하게 되었을 때 교과서의 여러 부족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역설적으로 교과서 개발자와 집필자들의 고충을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재재의 선택이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니었고 그것을 운문하면서 원문의 맛을 살려 쓰는 것도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작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과서 개발에 허용된 시간이 길지 않아서 집필자들에게는 좋은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더욱 어려운 일이 되었다는 것도 알았다. 대부분의 교과서가 검정에서 인정으로 심사체계가 바뀌면서 이전에 교과서가 가지고 있던 무거운 변화의 움직임을 벗어버리고 조금은 가볍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특히 '진로와 직업'이라는 교과서는 늘 새로운 내용이 첨가되거나 수정되어야 하는데 만약 그 때마다 검정 심의를 통과해야 된다면 교과서의 가장 기쁨이 되는 정보의 현실성을 잃게 될 것이다. 따라서 수시로 내용이 개정되어 새로운 내용으로 업데이트가 될 수 있는 교과서가 가장 좋은 교과서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변하지 않는 지식의 체계를 가르치는 것이 고전적인 교과서의 몫이라면 이제는 변화하는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여 학생들이 새로운 지식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과서의 필수적인 역할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진로와 직업' 교과서는 필수적으로 e-book을 겸해야만 한다



고 생각한다. 활자화된 종이 교과서의 내용은 수정을 한다고 해도 1년에 한번뿐인데 관련 정보는 거의 매일이다시피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최신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길잡이 역할을 교과서가 수행할 수 있다면 청소년들의 진로탐색이나 진로정보 획득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진로와 직업’ 교과서에서 두 번째로 아쉬웠던 것은 지역사회와 관련된 정보가 적다는 점이다. 실제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없는 체험기관이나 프로그램의 경우 단순한 소개에 그치기 때문에 특히 비수도권의 학생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만 심어줄 뿐인 경우가 많다.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전적으로 주변의 직업으로 한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자기 고장 사람들의 삶에서 발견하거나 관찰하여 알 수 있는 직업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주변의 생활환경이나 관련 기관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도외시한 채 상대적으로 먼 곳에 있는 정보만 실려 있는 교과서는 학생들의 흥미를 떨어뜨리게 된다. 반면에 비슷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나 프로그램을 중복하여 교과서에 다 실는 것도 지면의 낭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e-book이나 스마트폰 앱의 형태를 통해 적절하게 보완한다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흥미로운 진로체험을 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진로와 직업’ 교과서를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교육의 목표는 결국 학생들을 각자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개척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에 있다고 할 것이다. 물론 모든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에 잇닿아 있겠지만 ‘진로와 직업’ 교과서가 그 모든 것을 모아 개인의 포트폴리오로 쓰일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면 하는 것은 너무 큰 바람일까? 진로진학 상담교사를 10

반 당 1명씩 배치하여 모든 학년에 진로 수업을 일주일에 1시간 이상 받고, 자신에 대해 탐색하고 교과 지식의 축적하고 실력을 쌓아 나가는 모든 과정을 일주일에 한번쯤 정리하여 ‘진로와 직업’ 교과서에 축적하여 나간다면 완벽한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질 것이다.

모든 교육이 꿈꾸는 것은 개별화된 교육일 것이다. 각자에게 알맞은 교육이 적기에 잘 실시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까지 될 수 없다고 해도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이 가진 재능을 찾아서 발전시켜 나갈 때 우리 사회의 총량적 행복이 증진될 것은 분명하다. 공교육이 정상화되어 학교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만으로도 상급학교 진학이나 더 나아가 직업의 선택에 이르기까지 다수가 만족하는 교육의 변화를 꿈꾸고 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진로교육이 있고, 진로교육은 결국 ‘진로와 직업’ 교과서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진로와 직업’ 교과서에 대해 바라는 큰 기대는 나 한사람의 꿈은 아닐 것이다.





한일 초등 사회과 교과서의 비교

- 역사내용영역을 중심으로 -



김 보 미

히로시마대학교 박사과정

사회과는 학생들이 자신의 생활 현실을 인식하고 해석·확장하는데 도움을 주며,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의 관점, 사고방식 및 실천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과이다. 사회과 수업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현상 및 과정을 이해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학습자·학문·사회의 관계를 들여다보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들 간의 관계 또는 맥락을 파악함으로써 더욱 포괄적인 지식의 습득 및 이해가 가능하며, 이는 책임 있는 행위를 위한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과서는 아직까지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교과서 의존적 수업을 탈피하려는 많은 모색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당분간 교수-학습의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교과서가 존재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의 교과서는 사회과 수업을 위한 여러 가지 단서를 충분히 유의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한국과 일본의 교과서, 그 중에서도 역사내용영역¹⁾의 특징을 비교함으로써, 이 물음에 답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교과서 분석을 위하여 사전에 엄밀한 분석 범주를 설정하기보다는, 일본 교과서 자체의 특성을 서술하고 이를 한국의 교과서와 비교하는 것으로 논의를 이끌어가고자 한다.

1. 교과서 내용 구성의 비교

사회과는 학생들 자신의 이미 관계를 맺고 있거나, 앞으로 관계를 맺는 대상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역사 또한 이와 같은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하기에, 교과서는 학생들이 역사적 사실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사실에 대한 해석을 통해 자신들의 현실에 투영할 수 있도록 구성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연대기순의 통사적 접근을 통하여 역사를 다루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현 사회과 교과서는, 나라 중심·전쟁 중심의 역사적 사실만을 빼곡히 담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1) 본고에서 분석 대상으로 하는 교과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행한 초등학교 '사회5-1, 5-2'와 일본문교출판에서 발행한 '소학사회6-상'이다. 지금까지 일본의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 대한 연구는 주로 동경서적에서 발행된 교과서에 치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비교대상을 일본문교출판의 교과서로 결정하였다.

〈표 1〉 사회교과서 목차 비교

	사회(교육과학기술부)	시 기		소학사회(일본문교출판)	
5 학 년 2 학 기	1. 조선 사회의 새로운 움직임 ① 영조·정조 시기의 사회 발전 ② 달라지는 경제생활과 신분 질서 ③ 서민 문화의 발달 ④ 서양 문물과 서학의 전래 ⑤ 실학의 등장과 사회 개혁 노력	17세기	17세기	5. 에도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① 신분과 사람들의 생활 ② 조년문화와 새로운 학문	6 上 (후 반)
	2. 새로운 문물의 수용과 자주독립 ① 외세의 침략과 조선의 개항 ② 자주독립을 위한 노력, 대한제국 ③ 근대 문물의 수용과 일상생활의 변화 ④ 국권 상실과 민족의 수난 ⑤ 주권 수호와 독립운동의 전개	19세기	19세기	6. 메이지유신에서 세계 속의 일본으로 ① 흑선(이양선)의 출범 ② 신정부에 의한 정치 ③ 조약정권과 중국·러시아와의 전쟁 ④ 농업의 발달과 사람들의 생활 변화 7. 아시아·태평양으로 번지는 전쟁 ① 전쟁으로의 길 ② 전쟁과 사람들의 생활	
	3. 대한민국의 발전과 오늘의 우리 ①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② 민주화와 경제 발전 ③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여	20세기	20세기	8. 새로운 일본으로의 발걸음 ① 새로운 일본에의 출발 ② 평화롭고 풍족한 나라를 향하여	

보인다. 이러한 점은 양국 교과서의 세부목차를 비교를 통해서도 뚜렷하게 알 수 있다.

두 교과서 모두, 구석기시대부터 현재에 이르는 역사의 흐름 가운데 교과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집단은 지배계층이며, 인물의 경우 해당 시대의 지배자 및 유명한(정치인 겸) 지식인이다. 물론 '사실(史實)'을 근거로 구성하는 교과서에서 이는 옹당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연대기 중심의 교과서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그 과정에서 학생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궁리는 조금 더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II. 교과서 내용 전개 방식의 비교

그렇다면 교과서에서 내용을 전개하는 흐름을 비교해볼 때, 학생들에게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서기 위한 노력 그리고 사회과 안에서의 역사교육으로 다가서기 위한 노력의 측면에서는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고 있을까? 한국 교과서에서는 '이야기'와 '에피소드'를 삽입함으로써 각 시대의 단상에 접근하고자

〈표 2〉 초등 사회교과서의 내용구성 방식

구성	사회(교육과학기술부)	비 고	소학사회(일본문교출판)	비 고
도입	단원도입	사진, 삽화 제시	나의 질문 학습방법, 조사방법코너	사진, 삽화에 관한 궁금증 제기
전개	주제학습 ① 주제명, 도입 글 ② 주제학습을 위한 질문 ③ 차시별 소재목, 내용 ④ 토막(읽을거리) ⑤ 활동 ⑥ 주제정리	1, 2학기 교과서가 거의 동일한 구성	① 해보기(방문해보기, 조사할 테마 정하기, 조사해보기, 테마를 넓히 기, 정리하여 발표하기) ② 자료로부터 생각하기 ③ 나의 의견, 생각	①, ②, ③은 꼭 짜인 틀이라기보다, 융통성 있는 학습 과정의 성격이 강함
정리	단원정리	활동중심(의사결정 문제해결, 탐구 등)	확인하기 점프 업	

하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이차돈의 순교 이야기'나 '손변의 재판 이야기'처럼 흥미롭고 인상적인 이야기를 활용함으로써 학생으로 하여금 각 시대의 배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성을 꾀한 것이다. 그러나 이때 제시되는 각 시대별 에피소드는, 말 그대로 개별 이야기일 뿐 그 배후에서 각각을 연결해 주는 공통의 흐름을 찾아보기 힘들다. 일본 교과서의 경우에는 이야기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는 않지만, 교과서 구성구석에서 짙직한 역사적 에피소드가 소개되고 있다는 점이 우리와 유사하다.

〈표2〉를 볼 때, 한국 교과서는 도입-전개-정리라는 하나의 틀 안에서 본문의 서술내용을 변경하면서, 5학년 1년 동안 같은 내용 구조를 반복한다. 이에 비해 일본 교과서는 느슨한 구성을 취하고 있으며, 학생에게 주어지는 활동 자체도 우리에게 비해 양적으로 매우 적다. 기본적으로 양국 모두 교과서의 각 단원에서 다루어지는 소주제는 한 단원을 관통하는 큰 주제를 통해 최종 정리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소주제별 정리활동이 제공되고, 대단원의 마지막 부분에 최종 정리활동이 제시된다. 이에 비해 일본의 경우는 주제별 정리활동이 없으며 지면의 삽화와 말 주머니를 통해 핵심개념을 정리하며, 대단원의 마지막에서 정리활동을 제시한다. 즉 하나의 대단원에 한국의 경우 5+a개의 활동을, 일본은 1+a개의 활동을 제시하고 있어서, 활동의 성격을 차치하더라도 한국 사회교과서의 활동이 양이나 난이도 측면에서 어렵다고 볼 수 있다.

III. 교과서 서술 자료의 비교

역사학습에 있어 연표는 필수 학습요소 중 하나지만, 시간의 상대적 길이를 비교하여 물리적으로 표현하는 연표는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과정을 내포한다. 한일 양국의 교과서는 연표를 보다 쉽고 친숙하게 설명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수업의 과정에서 학생 스스로 연표를 구성해보도록 하는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 교과서의 경우, 각 단원의 첫머리에 항상 해당 시대의 연표를 제시함으로써 대표적인 사건을 소개·정리하는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 점은 일본 교과서 또한 유사하다. 그러나 일본 小·社·(소학사회)의 경우 표지 안쪽에 시대 전체의 흐름을 나타내는 연표와 각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의 위치가 표기된 역사지도도를 실어, 역사 전체의 흐름 속에서 각 시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은 눈여겨 볼만한 특징이다.

또한 일본 교과서 서술 자료의 두드러지는 특징은 각 단위마다 반드시 해당 시대의 음식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1·2학기를 통틀어 단 한 장의 사진이, 전통음식의 소개 차원에서 등장한다. 이에 비하여 (물론 '복원'이라는 꼬리말이 붙기는 하지만)일본 교과서는 평민이나 귀족의 상차림 혹은 전쟁시절의 상차림 등 그 시대의 특징과 사람들의 생활을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음식 사진을 전체적으로 제시한다. 이점은 학생들이 한 소재를 통하여 역사에 대한 전반적 흐름을 알 수 있도록 구성한 흥미로운 내용이다.



〔그림 1〕 소학사회(일본문교출판)의 연표 활용 사례

사회(교육과학기술부)	소학사회(일본문교출판)
 <p>〈사회 p.123 전통음식〉</p>	<div>  <p>※ 狩りや漁をしてくらしていたころの食事 (復元)</p> <p>〈p.9 수렵생활기의 식사〉</p> </div> <div>  <p>※ 煮物が広がったころの食事 (復元)</p> <p>〈p.11 농업 생활기의 식사〉</p> </div> <div>  <p>※ 貴族の食事 (復元) 貴族の食事の材料には、農民が納めた税金の残りが使われていました。</p> <p>※ 農民の食事 (復元)</p> <p>〈p.27 귀족의 식사, 평민의 식사〉</p> </div> <div>  <p>※ 農民などの食事 (復元)</p> <p>〈p.48 농민의 식사, 무사의 식사〉</p> </div> <div>  <p>※ 武士の食事 (復元)</p> <p>〈p.65 조선통신사 환영 음식〉</p> </div> <div>  <p>※ すいとん</p> <p>〈p.121 전시 먹었던 수제비〉</p> </div> <div>  <p>※ 金銀の食事 (復元) 貴族の食事の材料には、農民が納めた税金の残りが使われていました。</p> <p>〈p.133 전시의 금식〉</p> </div>

[그림2] 한일 사회교과서에 실린 생활소재 사례

이와 같은 단적 사례만으로 한국은 역사적 사실을 중시하고, 일본은 생활사적 사례를 중시하여 교과서를 제작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다만 일본 학습지도요령에 따르면, '아동으로 하여금 시대의 사실을 많이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특징을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는 표현을 제시함으로써, 하나의 소재나 상징물을 중심으로 각 시대의 이미지를 구체화하고자 시도했음을 미루어 추측 가능 하다.

진정한 의미의 '교과서 개선' 을 위해서는, 제작이 끝난 결과물로서의 교과서 비교연구는 물론 교과서 제작단계에서 집필진 및 연구진이 지니고 있는 고민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한국과 일본 상호간에 풀어야 할 정치, 경제, 역사적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양국은 사회과의 출발과 교과서 제작 등 협조적이고 공통적인 연구 분야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양국이 교과서의 구성과 제작단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공유하고 풍부한 아이디어를 교류할 수 있는 교과서 연구가 진행된다면 이는 한일 상호간의 현실적 문제를 건전하게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08),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사회편).
- 조용채(2001), 제6, 7차 교육과정 '사회' 교과서의 비교분석 - 6학년 역사영역을 중심으로-, 초등사회과교육, 제13집, pp.171~189.
- 하경수(2006), 한국·프랑스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비교 연구-역사교육 영역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연구 13(1), pp.99-120.
- 한국교원대학교 국정도서사회편찬위원회(2011), 사회 5-1,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교원대학교 국정도서사회편찬위원회(2011), 사회 5-2, 교육과학기술부.
- 허영식(2000), 독일 초등학교 교과서의 내용 제시 방식,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개발 방향 세미나, pp.125-161.
- 문부과학성(2008), 소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사회편).
- 일본문교출판(2010), 小學社會, 6-上.



스웨덴의 교육·교과서 제도(3)

-스톡홀름시 Bo Andersson 교육감과의 인터뷰

- ▷ 일 시 : 2013. 2.27(수) 10:00~11:00
- ▷ 장 소 : 스톡홀름 시청 교육행정실 Andersson 교육감 사무실 (Hantverkargatan)
- ▷ 연락처 : bo.allan.andersson@stockholm.se
- ▷ 대 담 : 양혜원(Senior Researcher,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Kingdom of Sweden)



양혜원

주 스웨덴 한국대사관
신임연구원



Bo Andersson

스웨덴 스톡홀름시 교육감

양혜원

매우 개괄적인 질문이겠지만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의 종류와 편찬 주체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Andersson

딱 잘라서 대답하기가 곤란하군요. 왜냐하면 스웨덴의 학교에는 정해진 교과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사가 자율적으로 과목에 맞는 교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일임하고 있고, 교사는 학교법과 school curriculum(연재 2 참고)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어떤 교재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화책을 사용해도 되고, 인터넷에서 자료를 구해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교사가 직접 교과서를 제작해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굳이 교재 없이도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교재 없이 몇 달간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경우에는 다양한 교구, 자료 등을 인터넷을 통해 파악하여 수집하여 쓰고 있죠. 경험이 많은 교사일수록 교과서를 적게 사용하죠.

하지만 스웨덴에도 당연히 교과서를 전문으로 출판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스웨덴에는 크게 5~6개의 주요 회사들이 있습니다. 교사들은 한 회사의 교재만을 사용할 이유도 없고, 이런 출판사가 학교와 계약 거래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말했듯이 교사가 개인적인 판단 하에 교과서, 교구 등을 선별하여 사용하기 때문이죠.

굳이 평균을 내자면 보통 한 과목(예, 영어)에 4~5개 교과서를 사용합니다. 영어를 예를 들어 읽기, 쓰기, 말하기, 문학 등 다양한 세부 분야로 나뉘고, 그에 적합한 교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목에 상관없이 학생 개인별로 적게는 3개, 많게는 5개 정도의 교과서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제능은 예외이고요. 초등학교는 교과서를 더 많이 사용하고 중고등학교는 상대적으로 교과서를 덜 사용하죠.

양혜원

정말 놀랍군요. 교사가 직접 교과서를 만들 수 있다니요. 교과서의 내용과 체제 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교과서를 만들고, 그 교과서가 정말로 학생들한테 유익하고, 교수법에 적절한지를 무엇으로 판단할지 궁금합니다.

Andersson

스웨덴에는 20년 전까지만 해도 정부 산하기관인 교과서 감수기관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대부분 이 기관이 추천하는 교과서 전문 출판회사들의 교과서를 사용했고, 정기적으로 교과서가 자기네 기관이 규정한(스웨덴 교육연구부 기준의) 가이드라인을 잘 따르고 있는지, 교과서 내용이 학생들에게 적절한지 등을 검토하곤 했죠. 하지만 현재는 그런 기관이 없고, 또한 그런 기관을 대신하는 기관도 없습니다.

현재는 교과서 출판회사들이 교과서 제작을 할 때 회사들 간의 경쟁, 판매율 등 당연한 시장 원리로 더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출판회사들이 자연스럽게 'school curriculum' 기준에 따라 만들기 때문에, 비록 교과서를 감수하는 정부기관은 없지만 교과서의 질은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교사가 직접 교재를 만들고 교과서를 제작하는 경우, 그것을 학교에 팔 수도 있습니다. 물론 좋은 교과서일 경우예요. 이 경우 교장이 검토해서 학교에서 구입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교사가 직접 교재를 만들고 팔 경우는 당사자가 출판회사를 차려서 사업 형식으로 팔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실제로는 매우 드문 일이죠.

양혜원

교사와 교장간의 정기적인 미팅 같은 것으로 교과서 제작이나 수업 방식 등을 논의하나요?

Andersson

그런 미팅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 1년에 10회, 뭐 그런 식의 규칙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모든 학교가 이런 미팅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미팅의 여부는 교장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런 미팅을 꼭 참가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결국 어떤 사람도 교과서나 수업 방식을 통제하지 않고 자유롭게 운영하는 것이 원칙일 뿐이죠. 교사의 사명감, 책임감 등으로 학교 수업 방식, 교재 등을 선택하고 있고, 나중에 국가고사(스웨덴 전역에서 실시

하는 시험) 결과를 통해 그 학교의 질이 드러나게 되겠죠. 스웨덴의 거의 모든 학교들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극히 소수의 학교만이 모든 수업에 똑같은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수준에 따라 학교 수준이 좌우된다고보다는 교사의 수업방식, 학생의 성적 등 전통적인 기준에 따라 학교의 수준이 평가되는 것입니다.

양혜원 ▶ 시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Andersson ▶ 과거에는 국가고사(national test)가 5학년과 9학년에 있었고, 약 4년 전부터는 3학년, 6학년, 9학년에서 치르고 있습니다. 9학년을 제외하고는 보통 2~3개의 기초과목(예, 국어인 스웨덴어, 수학 등)을 보고 9학년 때는 6과목(스웨덴어, 영어, 수학, 물리·생물·화학 등 기초과학) 중 한 과목, 사회과학 중 한 과목, 요즘은 중국어가 인기인 제3외국어)를 치릅니다. 9학년에 올라가면 봄학기부터 거의 시험만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영어를 예로 들어도 딱 1번의 시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독해, 작문, 듣기, 말하기 등의 분야에 따라 여러 번에 걸쳐서 보기 때문이지요. 제 생각으로는 9학년 때 갑자기 너무 많은 시험을 보는 건 그리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에게도 큰 부담과 스트레스가 있지만 교사들도 무척 바쁘고 긴장되는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스톡홀름시의 모든 학교의 시험결과가 나올 뿐만 아니라, 스웨덴 전역의 학교와도 비교되어 학교수준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험 결과가 좋지 못할 경우 보통 학생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학교의 탓으로 돌리는 분위기가기 때문입니다.

양혜원 ▶ 교과서에 대한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교과서를 전문으로 출판하는 회사들끼리 경쟁이 심할 것 같기도 한데, 회사들은 교과서 이외의 다른 책을 만들기도 합니까?

Andersson ▶ 교과서 전문 출판사이긴 하지만 물론 다른 책들도 만들고, 시장원리에 의해 당연히 경쟁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기네들끼리 연합된 모임이 있습니다. 바로 'Swedish Association of Educational Writer(SLFF)'라는 조직입니다. 출판사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교구나 교과서를 제작하는 교사, 연구자 등도 회원으로 가입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정기적인 모임도 갖습니다(www.slff.se). 오랫동안 교과서 제작으로 가장 유명한 출판사로는 'Natur och Kultur' (<http://www.nok.se/>)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교과서 출판을 주로 하는 3~4개 출판사가 있고, 주요 교과서 출판사들은 이 모임을 통해 교과서를 쓰는 연구자들에 대한 연구비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양혜원 ▶ 한국은 현실적으로 교사들이 대체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 위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스웨덴은 어떻습니까?

Andersson

저는 오랫동안 독일을 가르쳤던 교사 출신이라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스웨덴이 아무리 평준화, 기회 균등 등으로 유명하다고 해도, 당연히 경쟁 원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고 주의가 산만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업에 방해가 되는 학생들의 경우 엄격하고 신중하게 관리합니다. 다만, 그런 학생들에게는 방과 후 특별 지도라든지, 좀 더 쉬운 교재를 써서 수업을 진행할 때 따로 진도를 맞추든지 등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궁극적으로 좋은 성적과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지요. 성적을 향상시키는 데만 초점을 두지 않고, 문제 학생의 행동과 마음가짐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어 관리합니다. 반대로 아주 똑똑한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수준에 맞게 지도하고 또 9학년 때는 진로를 담당하는 교사가 따로 있어서 진로상담, 학교선택 등 학생들의 인생설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학교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또한 당연히 학교의 질은 국가고사 결과를 통해 평가받기 때문에 더 많은 학생들이 더 즐겁고 보람되게 학교를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양혜원

한 학급에는 보통 몇 명의 학생들이 있나요? 아, 이것도 너무 일반적인 질문이겠네요, 그래도 대략적으로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Andersson

초등학교는 보통 10~15명 정도이고, 중·고등학교는 25~30명 정도 됩니다. 스톡홀름 내에도 부촌이 있고, 이민자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있기 때문에 그 동네에 있는 학교들 사정에 따라 학생 수가 달라집니다. 부촌이나 중산층이 사는 동네의 학교는 자연스럽게 인구가 더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한 학급당 25~30명이지만, 빈곤층 지역의 학교는 20명 안팎입니다.

스웨덴에서는 학교를 학생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원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으므로 그건 학생의 자유죠. 하지만 학생들은 미성년자라서 당연히 학부모가 결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평준화가 된 학교들이 많을지라도 인기 있는 학교에 학생이 몰리게 되고, 그런 학교에 들어가려면 몇 년 전부터 그야말로 대기 중이어야 합니다. 스톡홀름 내에 정말로 유명한 오래된 학교의 경우는 말이지요, 그래서 학교 수준도 최근 들어서 격차가 더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학교에는 당연히 똑똑한 학생들이 많아서 수업 방식의 수준도 높고, 학생 성적도 좋고, 진학률도 높죠. 그래서 그 학교의 명성이 알려지면 지원자가 몰리게 되고요, 유명한 고등학교(upper secondary school, gymnasium)의 경우 성적이 좋아서 3년간 16과목(각 과목당 20 point)에서 다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졸업 전에 320point를 이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좋은 대학으로 진학하거나 미국이나 영국으로 유학을 가지요.

양혜원

교사들은 최소한의 지침서나 교사용 지도서 같은 걸 갖고 있나요?

Andersson

교사들에게는 정부가 주는 지침서가 따로 없습니다. 다만, 교사 노조(teacher's trade union)

가 만든 윤리 지침서(ethic guideline)를 제공받습니다. 이 윤리 지침서에는 교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며, 어떤 가치관으로 학생을 지도해야 하는지 등이 나옵니다. 그 외에 학교법, school curriculum, 스톡홀름시가 배포하는 안내서 등이 있습니다. 즉, 윤리지침서, 학교법, school curriculum, 스톡홀름시가 만든 안내서 등 4가지는 교사가 당연히 필요로 하는 준비물이겠죠. 그 중에서도 학교법과 school curriculum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양혜원

음…… 실제로 학교법과 school curriculum을 위반한 교사라든지, 정말로 근무 태만과 업무 능력 부족 등으로 자격 미달이 되는 교사라든지…… 이런 교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교장이 판단하여 해고를 시키나요?

Andersson

아니요, 아무리 자격 미달이고 지침서와 학교법을 어긴 교사일지라도 바로 조치를 취하거나 해고를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정말로 극히 드뭅니다. 설사 해고를 시켜야 하더라도 오랜 시간에 걸쳐 조사하여 사태를 파악한 뒤 판단합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스웨덴의 모든 조직 사회가 그런 분위기입니다. 직설적으로 문제를 삼아 해고를 시키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정말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등 사태를 파악하고, 교사의 자질과 역량을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교사를 채용할 때도 신중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아주 드물죠. 만일 문제가 심각하다면, 교장이 문제가 있는 교사에게 학급을 맡기지 않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수업을 맡길 수 없도록 하고, 다른 교사가 휴가나 병가가 있을 때 대체 교사로만 듣지 등의 업무제한으로 인해 결국 교사 스스로 학교를 떠나도록 합니다. 이걸 일부러 교사가 눈치 채고 떠나라는 식이 아니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고 시간을 준 뒤에 정말로 교사가 스스로 학교를 떠날 때까지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문제가 된 교사라서 다른 학교로 이직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career change'를 유도합니다. 스톡홀름시가 반년 월급을 그대로 주고 다른 직장을 구하는 기간 취업에 도움 되는 강좌 등도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혜원

끝으로 교육감으로서 스웨덴 교육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십시오.


Andersson

최근 국제학력평가에서 스웨덴 학생들의 학력이 과거 10년보다 뒤떨어져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핀란드가 1위, 한국이 2~3위 그리고 일본, 중국이 상위권에 있고, 스웨덴은 20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현 교육연구부 장관이자 부총리인 Jan Bjorklund 장관은 6세(한국 나이로는 8세)부터 국가시험을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년에 실시되는 스웨덴 총선 이후 결정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스웨덴 학생들이 과거 십여 년 전보다 읽기 능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인해 짧은 기사와 대화

에만 익숙하고, 깊이 사고하고 문제를 탐색하려는 호기심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고전문학을 더 많이 읽도록 하는 것이 우선 필요한 것 같습니다. 스웨덴 교육은 토론을 중심으로 모든 학생들이 골고루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문제를 협력하여 풀도록 하는 것을 장려합니다. 그래서 동의를 이끌 때까지 비판적이고 객관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동료 학생이나 교사와 대화하는 것에는 익숙합니다. 그렇지만 치열한 승부욕이 적은 것 같습니다. 대학에 진학해도 많은 학생들이 중퇴를 하고, 그 후 직업을 찾는 데 여러 가지 비용이 듭니다. 이것은 국고 낭비일 뿐 아니라 한 개인의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스웨덴 문화는 모든 것을 실패로 보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냥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장단점이 공존한다고 봐야 하겠죠. 이런 스웨덴 교육의 특징 때문에 개인이 학업으로 인해 겪는 스트레스와 경제적 부담감은 적고, 개인이 국가로부터 취업이든, 학업이든 선택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부여받지만, 한편으로는 국가 원동력으로서 인재를 개발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교재, 수업비 등 대학교까지의 전 과정이 무료이기 때문에(물론, 대학교에서는 자기가 필요한 교재를 스스로 따로 구입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대학교도 무료) 학생들이 이러한 복지 혜택을 너무 당연히 생각하여 학교를 중퇴하는 경우도 많죠. 중퇴한 뒤 10년이 지나도 복학할 수 있고, 전공을 바꾸는 것도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이죠. 저는 한국 학생들이 공부를 정말로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작년 9월 스웨덴 국영방송(SVT)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에서 15세 여학생이 하루에 16시간(학원 수업 포함) 공부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한국의 교육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습니다. 꼭 한국을 방문하고 싶습니다.

양혜원

바쁜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면담 내용은 스웨덴의 교육과 교과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나는 초보다!

교과서와 동고동락하며 지낸 시간이 벌써 6년이 되어간다. 계속된 교과서 개발로 지난 6년을 돌아볼 시간이 나에겐 없었던 것 같다. 지난 6년은 나에겐 1~2년 동안의 긴 교과서 준비기간의 연속이었다. 교과서를 만들면서 오는 육체적인 고통과 스트레스에 '다시는 교과서 편집은 하지 않겠다.' 다짐하지만 합격통보를 받은 순간 그 생각들은 씻은 듯이 없어진다. 편집하는 동안 순간순간 느끼는 희열과 합격통보를 받은 순간 느끼는 성취감이 나를 계속 이 자리에 서도록 만들었다.

그동안 나는 초등 보건 두 권과 중·고등까지 총 4권을 개발했으며 중학교 보건 교과서는 다시 개발되어 인정 심사에 합격했다.



남 광 규

도서출판 들샘 부장

대학교재를 전문으로 하던 들샘 출판사는 우연한 인연으로 보건이라는 신설 과목을 교과서로 만들기로 결정했다. 나는 교과서를 해보겠다는 의욕 하나로 교과서 기획편집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담당자가 되어 본격적인 교과서 편집을 시작하면서 상상도 못하던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교육과정 내용 분석과 연속적인 기획회의, 집필 회의, 자료수집 등등...

처음 교과서 기획은 나에게는 남의 일로만 느껴졌었다. 어떤 정신으로 교과서를 만들었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도 제 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 누군가 나를 조종해 교과서를 만들도록 이끌었던 것은 아닌지 지금도 아득하게 느껴진다.

교과서 개발은 교육과정 분석에서 시작한다. 교육과정의 내용과 기준 사항들, 집필상의 유의점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 짚은 교육과정의 개정은 내게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었다. 내가 교육과정을 옳게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아

이들이 공부할 교과서라는 점에서 부담감은 배가 되었다. 집필자들과 끊임없이 토론하며 현장에서 필요한 책이 무엇인지 연구했다.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교과서는 어떤 것인지 고민하고 교육과정에 따라 내용을 구성하면서 교육과정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질 높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보건 교과에 대한 2009년도 교육과정 해설서가 없었던 이번 인정 교과서 개발은 오롯이 교육과정만으로 구성을 잡아야 한다는 점에서 더 난해한 작업이었다. 다양한 전개방식과 구성 속에서 어떤 것을 버리고 취할지 편집자의 결정 사항이 더욱더 많아지면서 고민도 커져갔다. 창의적인 교과서 부분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교육과정의 틀을 벗어나는 것은 아닌가 걱정해야 했고 교육과정에 딱 맞는 책을 만들다 보면 너무 이론적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생겼다. 또한 쪽수와 편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탓에 더 많이 고민해야 했다.

세부적인 집필 사항이 결정되면 저자들의 원고 집필이 시작된다. 처음 받은 원고를 가편집하고 제출 전까지 수정이 계속된다. 대학교재를 전문으로 편집하던 나는 교과서의 어마어마한 수정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10교를 넘어 셀 수 없이 수정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수정이 계속될수록 점차 교과서는 모양을 잡아갔다. 시간을 많이 들이고 수정이 거듭되면 책은 더 좋아진다는 점을 경험을 통해 알았다. 제출 마지막 날까지 교과서를 손에서 놓지 못하는 나의 행동은 이 때문일 것이다.

또한 저자들과 끊임없는 회의와 토론을 하는 시기이기도 한데 서로 의견 조율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많다. 교육과정에 맞춰 교과서를 합격시켜야 하는 편집자와 현장에서 아이들의 흥미를 이끌어 내야 하는 교사들, 관련 지식을 연구하는 교수들 사이의 다른 견해를 때문일 것이다. 이 경우 편집자는 난감한 경우에 빠지기도 하지만 이러한 토론의 과정을 거쳐 서로의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다보면 더 좋은 교과서가 탄생한다고 믿는다.

교과서는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하기에 이 과정에서 편집자는 원고에 있어서 더 최신의 자료는 없는지, 정보는 정확한지를 검토한다. 그러기 위해서 저자들보다 더 많은 이론을 접해야 하며 때로는 저자들을 위해 조언을 할 수 있도록 공부하고 노력해야 한다.

편집자가 원고를 최악으로 바꾸는 건 너무나도 쉽다. 이 점을 숙지하고 검토와 검토를 해야 한다. 나 또한 이 점을 가슴 속 깊이 새겨 부단히 노력하고 더욱 정확한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 해야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해 본다.

가장 어려웠던 일은 학습자의 수준과 난이도를 맞추는 일이었다. 수준을 잡는 것은 내용뿐만이 아니다. 삽화나 사진도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조금만 높이면 너무 어른스러워지고 조금만 낮추면 동화책처럼 변하니 적당이라는 기준을 잡기가 어려웠다. 교과서는 그림의 선택에 따라 분위기가 180도 바뀌는 경우가 많다. 우선은 내용에 맞는 그림을 설명해 주고 그림의 초안을 받는다. 하지만 내용 수정에 따라서 삽화도 계속 수정되어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성비의 비율까지 따져 가며 수정에 수정을 요구한다. 그 과정에서 삽화가는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다. 엄청난 양의 삽화와 짧은 기한, 그리고 끊임없는 수정 요구에 감정이 상한 삽화가를 어르고 달래는 과정이 수없이 반복된다.

엄청난 회의 끝에 한 장의 원고가 탄생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교정과 교열은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디자인뿐만 아니라 교정, 교열에 있어서도 교과서의 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론의 명확성뿐만 아니라 글자 하나 문장 한줄 모든 것이 정확해야 한다. 오타자와 비문이 섞여 있는 교과서는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믿음직한 이미지를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지막 제출 전까지 놓지 못하는 부분 중 하나이다. 제출 전 '마지막 검토!' 라고 다짐하며 보는 편집본에 있는 오타자에 절망하며 밤을 꼬박 새운 적인 한두 번이 아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찾아낸 것이 다행' 이라고 자기 위안을 한다. 우리나라의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장래를 위해 꿈을 위해 일어나가는 책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번은 제출 며칠 전 샘플 출력물을 확인하던 중 파일 전환 과정에서 표가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일이 있었다. 우리 팀 전원이 모여 이유를 찾아 뛰어다녔다. 원인은 버전 오류였다. 답답한 마음에 숨도 쉴 수 없었다. 하지만 그럴 여유를 부릴 시간도 없었고 모든 지식과 인맥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했다. 드디어 해결했을 때 세상을 얻은 기분, 뿌듯한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었다. 마음 다잡고 출력물 끝까지 확인 이제는 일정에 맞춘 준비 끝!

난 매번 '다신 교과서 안 해! 정말 안 해!'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교과서만 벌써 6종 그리고 6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교과서 편집을 하는 동안 편집부 부장이라는 자리에 올랐지만 나는 아직도 내가 초보 교과서 편집자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다.

지금도 교과서 기획편집에 뒷머리를 잡고 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하면 할수록 또 교과서 편집에 도전하고 싶다는 것이다. 어려움과 고통이 많이 따르는 만큼 결과에 대한 희열도 비례하기 때문이다. 마치 그 큰 희열에 중독된 사람처럼 매년 나는 교과서를 준비하고 있다. 저 밑바닥에 서서 고통을 맛보아야만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는 희열을 느낄 수 있다. 교과서가 그러하다. 편집 과정 중에 겪는 고통이 마지막의 희열과 성취감을 더욱더 크게 만든다. 나는 교과서 편집이 편집자라면 꼭 한번은 경험해 볼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꼭 소신을 가지고 도전하길 충고하고 싶다.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과서를 만드는 편집자라는 책임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현재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교과서는 과거와는 많은 변화를 꾀하고 있다. 단순 지식 전달에서 보고 즐기면서 배우는 교과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일차원적인 주입식 교과서에서 벗어나 쌍방향 교과서로 탈바꿈을 하고 있는 시점이다. 편집자 또한 의식의 전환을 꾀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교과서와 E-Book을 함께 만들어 내는 시기이다. 우리 출판사 또한 E-Book을 개발하고 있다. 비록 지금은 관련 동영상과 게임 요소를 넣어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에 그치지만 머지않아 더욱더 발전한 E-Book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맞춰 편집자들도 지금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 또한 이점 명심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

뒤돌아보면 힘들고 지친 기억보단 얻은 것이 많다. 지금까지 늘 함께한 집필진에게 감사함을 느낀다. 학교 폭력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이 아픈 학생들이 많아지는 이 시기에 보건 교육의 중요성을 느꼈다. 또한 사명감을 가진 집필진에게서 자기희생 정신을 배웠다. 그러한 책을 만든다는 자체가 나에게 큰 버팀목이 되었다.



김 원 태

모라고등학교 교사

민주주의 체제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공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은 학교교육의 임무이다. 학교는 교육을 통해 젊은 세대들에게 현대 경제와 사회에서 스스로 알맞은 방향을 찾아 나가게 해주고, 민주주의적 근거에서 정치적 의문과 문제를 판단하여 공적인 관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려주어야 한다.

위와 같은 학교 교육을 충실히 하는 국가로 독일을 꼽고 싶다. 독일의 경우는 시민교육이나 사회과 교육 등의 용어보다 일반적으로 '정치교양(Politische Bildung)'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정치교양의 일반적인 기준은 '보이텔스 바흐 합의(1976)'인데 그 세 가지 명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화 또는 주입을 금지한다. 가르치는 사람이 원하는 생각에 따라 - 어떤 수단을 쓴다 할지라도 - 학생들을 조종함으로써 이들이 자주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방해할 주어서는 안 된다. 둘째, 학문과 정치에서 논쟁적인 것은 수업에 있어도 역시 논쟁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셋째, 학생은 어떤 정치적 상황과 그 자신의 이익(또는 이해관계) 상황을 고려할 수 있고 또한 그의 이해관계에 따라 당면한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의 '교화의 금지', '논쟁점 취급', '개인의 이익 상황 고려'라는 기준은 독일 학교 정치교육의 근본적인 원칙 또는 본질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 합의는 학생 개개인을 강조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1980년대에 들어서는 공익, 집단 정체성, 사회 전체에 대한 책임, 연대 의식을 강조하는 입장 등이 부분적으로 보완되었다고 한다.

'실제 정치'를 다루고 있는 정치교육 교과서

독일의 정치교육 과목의 교과서 이름들은 '실제정치(TatSache Politik)', '시대문제(Zeitfragen)' '함께 행동(Gemeinsam handeln)', '촉발(Anstöße)', '인간과 정치 I, II (Mensch und Politik I, II)', '사회의 이해와 행동 I, II (Gesellschaft verstehen und handeln I, II)' 등인데, 우리나라 교과서는 천편일률적으로 '사회'이다. 먼저 독일의 16개 주 중 9개 주에서 인정교과서로 선택된 '실제정치(TatSache Politik)' 교과서의 목차를 소개한다. 대단원의 제목이 사회과학학문 위주로 이루어진 우리 교과서와 달리 독일 교과서의 대단원 제목들은 학생들의 생활에서 겪게 되는 문제 중심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 ◀ 교과서 제목이 TatSache Politik(실제정치)라고 쓰여져 있다. 이 교과서에 담겨진 내용들은 학생들의 실제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단원의 목차들은 '청소년이 처벌을 받아야 할 상황이 된다면', '현장 정치: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선거는 함께 결정하는 것 아니야?', '브라질의 빈곤: 나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등으로 학생들이 사회 문제를 자기 문제로 인식하도록 하여 실제 정치에 참여하게 만든다.

자료 중심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정치 교과서

우리 교과서는 저자가 집필한 교과서 본문을 교사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반면 독일 교과서의 구성은 거의 학생들이 스스로 주도해서 학습을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교사의 역할은 자문을 하거나 조정을 하고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되어 있다. 독일 교과서들은 모두 자료 조합식 구성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단락마다 주제에 적절한 자료들(법규, 성명서, 신문기사, 그래픽, 통계 등)을 엮어서, 마치 모자이크를 하듯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수록된 자료들의 분량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내용도 매우 객관적이다. 그

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비고
실제 정치 2 TatSache Politik 2 (중급1과정 공용, 탐색과정)	Verlag Moritz Diesterweg (Frankfurt am Main)	1998	한국중학교 1학년수준

(목 차)

1. 학교생활 - 배우고 함께 하기

- 우리 학교 - 경험 나누기
- 우리들이 꿈꾸는 학교 - 희망제작소
-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학교 모델
- 사회 경험 -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과 관계 맺기
- 어려운 결정 - 갈등 해결하는 법
- 함께 해나가기 - 학교라는 민주적인 조직 이용하기
-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기

2. 가족생활

- 한 지붕 다섯 가족
- 관계 상자 - 세대간의 갈등
- 가족 내에서 역할 분담 - 어떻게?
- 형제자매 관계
- 다른 이야기 - 한부모 가정
- 실업 - 그 다음에는...
- 가족 -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곳?

3. 상품을 시장에 내 놓는다.

- 문제 : 어려움에 처한 진-텍스 주식회사
- 직업계획서
- 현재의 진 시장에 대한 정보 수집
-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유행과 소비패턴에 관한 정보 수집
- 시장에 내놓은 방법 연구
- 광고
- 학습 결과 발표

4. 포장! 포장 해체! 쓰레기!

- 포장 이야기
- 얼마나 포장해야 할까?
- 포장은 결국 쓰레기가 된다.
- 재활용 - 해결책?
- 쓰레기 - 없애고, 줄이고, 활용하고, 분리한다.

5. 중독? 나하곤 상관 없는 일이야!

- 일을 하고 난 이후에 중독이 될 수 있다!
- 기분이 나쁘다구? 이유는 항상 있는 법!
- '....' 넌 외톨이야!
- 엄마, 아빠가 뭘 아시겠어!?
-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 인간의 위기
- 환각제 : 평화, 즐거움, 위험과 부작용을 동반한 팬케이크
- 알코올 : 흥분, 걱정을 없애고, 병들게 하는 것
- 마약을 무력화 - 문제는 어떻게?
- 항상 주의할 것!

6. 청소년이 처벌을 받아야 할 상황이 된다면.....

- 청소년 범죄 -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 법정엔 선 메넷- 역할극
- 청소년 범죄의 원인
- 외국인 범죄에 관한 논쟁
- 청소년 감옥 - 찬반 논쟁

7. 현장 정치 :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 우리 지역사회 조사
- 지방자치단체 : 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 지역 조례 : 누가 결정하는가?
-주법률
-지방의회를 탐방한다
-시장님 일과를 조사한다
-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외국인 : 참정권을 얼마나 행사하고 있는가?
- 지역사회와 교통
<노아-이젠부르크에서 일어난 도로분리대논쟁 1부>
<노아-이젠부르크에서 일어난 도로분리대논쟁 2부>

8. 선거는 함께 결정하는 것 아니야?

- 우리가 꿈꾸는 정당을 만든다.
- 왜 선거를 할까?
- 선거전 - 필요악?
- 유권자 - 힘 있는 존재 아니면 힘 없는 존재?
- 스스로 해보기 - 선거전 프로젝트
- 선거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9. 브라질의 빈곤 : 나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 여러 개의 얼굴을 가진 브라질
- 산토스 가족 : 소농에서 일용 노동자로
- 멘데스 가족 : 새로운 개혁지를 찾아서
- 코임브라 가족 : 도시로 도피
- 문제를 명확하게 하기 - 해결책 찾기

리고 수록 자료들은 학생들이 스스로 추가적인 자료를 찾아낼 수 있도록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다. 학생들이 모둠을 결성하여 역할을 나누고 서로 토론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를 하고 나중에 발표하는 형식이다. 수업을 하는 자체가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선택을 하는 과정으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키우는 과정이다.

다양한 사회문제 탐구 방법론 소개

교과서 단원마다 그 단원에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방법론이 나온다. 교과서 전체를 통틀어 다양한 방식(조사, 통계, 역할극, 토론 ...)을 자세히 소개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각각의 방법론을 이용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알 수 있다. 교과서 한 권당 약 20개 이상의 사회문제 탐구 방법이 소개되고 있다. 7단원 '현장 정치 :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지역 간의 갈등 문제를 다루면서 학생들이 갈등을 분석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5. Konfliktanalyse

Zur Analyse der sozialen Konflikte ist es notwendig, sich in vier Schritten zu bewegen:

1. Ermittlung der Ursachen des Konflikts

Wieso sind die Konflikte zustande gekommen, denken wir bei ihnen? Was ist die Ursache? Was sind die Interessenkonflikte?

2. Ermittlung der Beteiligten und der gegnerischen Gruppen

Wer sind die Beteiligten? Wer sind die Gegner? Wer sind die Interessengruppen?

3. Ermittlung der Interessen, Grundüberzeugungen und Wertvorstellungen der gegnerischen Gruppen

Was sind die Interessen? Was sind die Grundüberzeugungen? Was sind die Wertvorstellungen?

4. Darstellung einer eigenen Zielvorgabe

Was ist die eigene Zielvorgabe? Was ist die eigene Zielvorgabe?

5. Darstellung einer eigenen Zielvorgabe

Was ist die eigene Zielvorgabe? Was ist die eigene Zielvorgabe?

6. Darstellung einer eigenen Zielvorgabe

Was ist die eigene Zielvorgabe? Was ist die eigene Zielvorgabe?

Was ist die eigene Zielvorgabe? Was ist die eigene Zielvorgabe?

Was ist die eigene Zielvorgabe? Was ist die eigene Zielvorgabe?

Was ist die eigene Zielvorgabe? Was ist die eigene Zielvorgabe?

Was ist die eigene Zielvorgabe? Was ist die eigene Zielvorgabe?

Was ist die eigene Zielvorgabe? Was ist die eigene Zielvorgabe?

Was ist die eigene Zielvorgabe? Was ist die eigene Zielvorgabe?

Was ist die eigene Zielvorgabe? Was ist die eigene Zielvorgabe?

Was ist die eigene Zielvorgabe? Was ist die eigene Zielvorgabe?

Was ist die eigene Zielvorgabe? Was ist die eigene Zielvorgabe?

Was ist die eigene Zielvorgabe? Was ist die eigene Zielvorgabe?

Was ist die eigene Zielvorgabe? Was ist die eigene Zielvorgabe?

Was ist die eigene Zielvorgabe? Was ist die eigene Zielvorgabe?

Was ist die eigene Zielvorgabe? Was ist die eigene Zielvorgabe?

Was ist die eigene Zielvorgabe? Was ist die eigene Zielvorgabe?

Was ist die eigene Zielvorgabe? Was ist die eigene Zielvorgabe?

Was ist die eigene Zielvorgabe? Was ist die eigene Zielvorgabe?

Was ist die eigene Zielvorgabe? Was ist die eigene Zielvorgabe?

Was ist die eigene Zielvorgabe? Was ist die eigene Zielvorgabe?

Was ist die eigene Zielvorgabe? Was ist die eigene Zielvorgabe?

Was ist die eigene Zielvorgabe? Was ist die eigene Zielvorgabe?

ZUR METHODE

Wie für eine Konfliktanalyse durchführen könnt

Die gesellschaftlichen Konflikte sind eine wesentliche

Ursache für die Entstehung sozialer Konflikte.

Die Analyse dieser gesellschaftlichen Konflikte

erlaubt es, die Ursachen der Konflikte zu verstehen.

Die Analyse der Konflikte ist ein wichtiger Bestandteil

der Konfliktanalyse.

Die Analyse der Konflikte ist ein wichtiger Bestandteil

der Konfliktanalyse.

Die Analyse der Konflikte ist ein wichtiger Bestandteil

der Konfliktanalyse.

Die Analyse der Konflikte ist ein wichtiger Bestandteil

der Konfliktanalyse.

Die Analyse der Konflikte ist ein wichtiger Bestandteil

der Konfliktanalyse.

Die Analyse der Konflikte ist ein wichtiger Bestandteil

der Konfliktanalyse.

Die Analyse der Konflikte ist ein wichtiger Bestandteil

der Konfliktanalyse.

Die Analyse der Konflikte ist ein wichtiger Bestandteil

der Konfliktanalyse.

Die Analyse der Konflikte ist ein wichtiger Bestandteil

der Konfliktanalyse.

Die Analyse der Konflikte ist ein wichtiger Bestandteil

der Konfliktanalyse.

Die Analyse der Konflikte ist ein wichtiger Bestandteil

der Konfliktanalyse.

Die Analyse der Konflikte ist ein wichtiger Bestandteil

der Konfliktanalyse.

Die Analyse der Konflikte ist ein wichtiger Bestandteil

der Konfliktanalyse.

Die Analyse der Konflikte ist ein wichtiger Bestandteil

der Konfliktanalyse.

Die Analyse der Konflikte ist ein wichtiger Bestandteil

der Konfliktanalyse.

Die Analyse der Konflikte ist ein wichtiger Bestandteil

der Konfliktanalyse.

Die Analyse der Konflikte ist ein wichtiger Bestandteil

der Konfliktanalyse.

Die Analyse der Konflikte ist ein wichtiger Bestandteil

der Konfliktanalyse.

Die Analyse der Konflikte ist ein wichtiger Bestandteil

der Konfliktanalyse.

Die Analyse der Konflikte ist ein wichtiger Bestandteil

der Konfliktanalyse.

Die Analyse der Konflikte ist ein wichtiger Bestandteil

der Konfliktanalyse.

Die Analyse der Konflikte ist ein wichtiger Bestandteil

der Konfliktanalyse.

Die Analyse der Konflikte ist ein wichtiger Bestandteil

der Konfliktanalyse.

Die Analyse der Konflikte ist ein wichtiger Bestandteil

der Konfliktanalyse.

Die Analyse der Konflikte ist ein wichtiger Bestandteil

der Konfliktanalyse.

갈등분석을 하는 방법(ZUR METHODE)

A. 갈등분석

다음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

1. 이 갈등의 원인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2.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가?
3. 서로 대립하고 있는 집단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4. 서로 대립하고 있는 집단은 어떤 이해관계를 대변하는가?
5. 자신들의 방식을 관찰하기 위해 어떤 수단을 사용하는가?
6. 서로 대립을 하고 있는 집단의 기본적인 생각은 무엇인가?

B. 자신의 입장 정하기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한다.

1. 이 갈등상황에서 어느 집단의 생각이 내 생각과 같은가?
2. 내 생각과 같은 집단이 이일 이외에 다른 면에서도 기본적인 생각이 나와 같거나 비슷한가?
3.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4. 어떻게 이 집단을 지원해 줄 수 있을까? (예를 들면 가입을 한다, 이 집단을 위한 활동에 참여한다....)

생생한 시사자료와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관점을 제시

어떤 하나의 주제에 대한 단원에 많은 페이지를 할애함으로써 그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한국의 교과서가 백과사전 식으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 나열하고 거치는데 반하여, 독일의 교과서는 한 문제를 질릴 정도로 치밀하게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게 한다.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자료도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토론의 자료를 제공해준다.



- ◀ '선거는 함께 결정하는 것 아니야?' 라는 단원 도입부에 '우리가 꿈꾸는 정당을 만든다.' 라는 학생활동을 소개한다. 학생들은 정당을 만들고 전당대회를 열고 당 강령을 정한다. 후보자를 지명하고 선거전을 벌치고 당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를 실제로 경험하게 한다.



- ◀ '독일연방의회의 국회의원'이라는 소단원에서는 독일의 다양한 정치인들의 의정 활동의 생생한 모습 사진을 그대로 전달한다. 우리나라는 정치인의 작품은 수록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정치적 편향성을 막기 위해 특정 정치인의 사진, 이름, 서술 및 정당로고, 타인이 쓴 정치인에 대한 글은 수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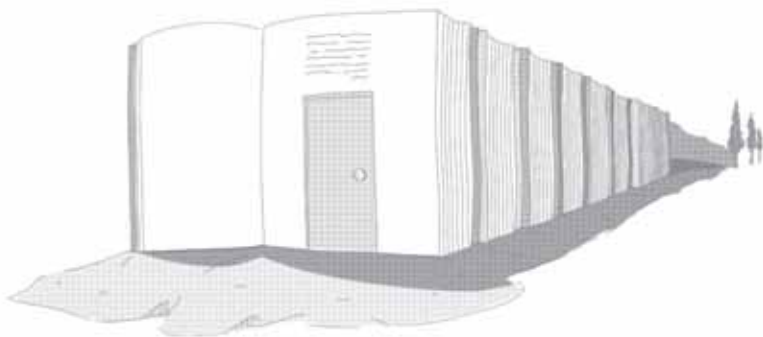
막연하게 자료 두개를 놓고 찬반 토론을 해보라는 식의 한국의 교과서와는 차별성이 보인다. 상반되는 시각의 자료 두 개를 놓고 그냥 토론을 벌여 보라는 식의 막연한 수업방식으로는 자칫 '인상비평' 이나 근거 없는 '자신의 평소의 가치관' 을 드러내는 것이기 쉽다. 집요할 정도로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고,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묻고, 다른 학생들을 설득해나가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교과서를 서술하는 관점의 문제도 있다. 여성이나 외국인이 받는 차별에 대한 언급이 거의 매 단원마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우리로서는 눈여겨 볼 대목이다. 여성 문제는 이제 비교적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지만 막연하게 양성평등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각 주제와 관련하여 실행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로서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다. 막연히 양성평등권을 선언하는 것으로 양성평등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세한 항목이 중요하다는 것을, 한국에서 이제 막 제기되기 시작한 외국인 노동자 문제, 외국인 문제도 마찬가지 이다.

우리나라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의 중립성 관련 검정기준 적용지침 및 검정 절차 개선안' 을 마련, 올해 2~8월에 진행되는 2013년도 교과서 검 · 인정심사 때부터 적용한다고 한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교과서의 정치적 편향성을 막기 위해 정치인의 작품은 수록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특정 정치인의 사진, 이름, 서술 및 정당로고, 타인이 쓴 정치인에 대한 글은 수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고 전해진다. 더 나아가 '정치인' 의 범주도 명확히 해 ▲대통령이나 총리, 각부 장관 등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 ▲선출직 공무원 및 공직선거 입후보자 등 공적 권력을 추구하는 자 ▲공적권력을 추구하는 집단(정당)에 소속된 자 가운데 일반 당원을 제외한 당직자를 정치인으로 규정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나라 학생들은 가상의 사회, 현실이 배제된 정치를 배울 수 밖에 없고, 이런 교육으로는 젊은 세대들에게 현대 경제와 사회에서 스스로 알맞은 방향을 찾아 나가게 해주고, 민주주의적 근거에서 정치적 의문과 문제를 판단하여 공적인 관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윤 성 희

경남교육청
교육과정과 장학사

“장학사님, 정말 교과서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의욕만 가지고 시작했다가... 얼마나 힘든지 방학 때 실 틈도 없이 낭패를 보고 있어요.”

얼마 전 교과서 개발진 워크숍에서 만난 한 집필위원이 한숨을 쉬며 내게 말했다. 이전에 교육청 주관의 장학자료 개발에 여러 번 참여했던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장학자료 개발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하물며 교과서 집필이 얼마나 힘이 들겠는가는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중등 교과서의 대부분이 인정도서로 전환되면서 발행사가 이윤이 남지 않아 개발을 포기한 고등학교 심화과목 및 전문교과에 대하여 16개 시도가 과목별로 분담하여 현재 인정도서를 개발하고 있다. 시도가 분담한 인정도서는 시도별로 많게는 70여종, 적게는 10여종에 이른다. 경남에서는 고등학교 체육, 예술, 기술가정의 심화 과목과 공업 및 수산해운의 전문과목 교과서 21종을 분담하게 되었다. 인정도서 개발과 심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남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개발 업무를 맡고, 경남교육청에서는 개발된 교과서의 심사를 실시하는 2원 체제로 진행하게 되었다.

우리 도에서 분담한 21종 인정도서의 개발을 위해 2011년 11월부터 100명의 교수

및 교원을 공모 또는 추천을 받아 집필진을 구성하여 2012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을 진행하였다. 지금은 집필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음에도 많은 위원들이 교과서 집필을 처음 해 보거나, 편집을 담당하는 출판사가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하다 보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많았다.

교과서를 개발하는 것은 교육과정에 맞도록 내용을 집필할 수 있는 필력뿐만 아니라, 사진과 삽화 선택, 형성평가 문제 작성 등 해당 교과에 관한 전문지식 이상의 구성까지 필요로 하기에 우리 도에서 위촉한 집필진들이 가지는 부담은 처음부터 매우 컸다. 또한 인정도서를 대폭 확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2010. 교과서 선진화 방안은 '창의적인 산 지식'의 구현을 교과서 개발의 방향으로 잡고 있는데, 이를 위해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교과서의 개발은 고스란히 집필진의 역량과 노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과서 선진화 방안에 따른 인정도서의 확대 정책은 다양한 교과서를 자유 경쟁을 통해 개발할 수 있도록 교과서 심사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학생들이 더 좋은 교과서를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교과서 선진화 방안의 취지에 따라 처음 인정도서가 전면 적용되는 2013년 중학교 1학년 교과서 심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교과서 선진화 방안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이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하여는 의문이 많다.

첫째, 인정도서 확대 정책을 통해 얼마나 다양한 지역, 계층, 분야별 전문가들이 교과서 개발에 뛰어든 것인가 하는 점이다. 2011년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처음 인정도서 업무를 맡게 되었을 때,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가 정말 크다는 것을 실감한 적이 있다. 2011년 말경, 경남에서 인정한 인정도서의 권수는 20권에도 채 못 미치는 데 반해,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는 많게는 400권 이상의 교과서에 대하여 인정 심사를 실시하고 있었다. 책 한권을 만드는데 연구진, 윤문진, 검토진을 제외하고서라도 집필진과 심의진만 각각 최소 5명이 필요하다고 가정하면, 경남에서 보유한 인력풀

과 수도권의 인력풀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다. 당시 업무담당자였던 나로서는 어떤 이유로 인력풀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된 것인지, 인력풀의 차이가 교육 전반과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보가 IT기기를 통해 분산되고 공유되는 21세기에도 교육계, 특히 교과서 집필과 관련한 교원 역량 강화에 있어서는 수도권과 지역의 차이가 현저한 것이다.

인정도서의 확대에 따라 경남교육청이 심사를 분담한 교과서는 중학교 선택교과인 진로와 직업 과목으로, 해당과목의 심사를 위해 2012년에 50여명의 심의진을 발굴하여 활용하였다. 이들 심의진이 심사를 마친 후에 공통적으로 하는 평은 심사를 통해 관련 과목의 교육과정을 더욱 잘 알게 되고, 교과서의 내용 구조와 각 발행사별 교과서의 특징을 훤히 꿰뚫게 되었다는 점이다. 현재의 심사진들은 미래의 잠재적인 개발진들이다. 인정도서의 확대에 따라 기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교과서 개발과 심사의 역량이 지역과 공유되고, 전국 16개 시도가 더욱 더 역량 있는 교원을 양성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개발과 심의를 위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또한 교과서 개발에 적극적인 연결고리를 하는 발행사와의 접근성도 떨어지며, 인정도서 개발 및 심사의 중요성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인식도 미약한 상태다.

앞으로 인정도서 확대 정책을 통해 교과서의 질적 제고와 다양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한정된 인력을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역의 인력들이 대거 교과서 개발에 뛰어 들 수 있는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에서는 교과서 정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집필진 및 심사진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연수를 실행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교과서 개발 및 심사와 관련한 승진 가산점 제도까지 개선해 나가야 한다.

둘째, 교과서 선진화 방안의 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이 현재의 집필진들에게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다. 앞서도 이야기 했듯이,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사

고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며, '창의적인 산 지식'을 구현하는 교과서의 개발은 전적으로 집필진의 역량에 달려있다. 그러나, 집필진을 꾸려 교과서 개발을 시작하고, 심사를 실시하기까지 시도교육청의 교과서 업무담당자들은 새로운 교과서 업무에 맞부딪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만 했다. 업무담당자들이 업무의 절차적 체계를 잡는 동안, 집필진들은 제대로 된 연수조차 받지 못하였다. 특히 2013년에 적용되는 중학교 제2외국어는 개발 기간이 6개월밖에 되지 않아 집필진들이 창의력을 발휘하기에 역부족이었다. 앞으로 교과서 선진화 방안의 참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교과서 정책의 변화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집필진, 심의진을 위한 사전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과서 개발 및 심사와 관련한 교원 인센티브는 충분한가? 하는 점이다. '교과서 선진화 제도를 통해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묻는다면 나는 감히 교과서를 개발하는 교사라고 말하고 싶다. 인정도서의 확대에 따라 다양한 인정도서가 개발되면, 교사는 자신이 직접 만든 책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 교과서의 판권에 나와 있는 집필위원이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는 '저자 직강'의 구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에 대한 권위가 저절로 생기게 되고, 학생들은 교사를 더욱 존경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 교과서의 집필을 했다는 사실보다 학생들에게 전문성을 더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교과서를 개발하고 심사하는 것만큼, 교사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자기 연찬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집필했거나 심사한 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고, 교과서 판권에 집필자로 게재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교원들이 앞다투어 교과서를 개발하거나 심사하는 데 동참할 것이라 예상한다면 큰 오산이다. 집필에 대한 원고료의 지급이나, 판권 게재가 가져다 주는 명예에 비해 쏟아부어야 하는 노력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과서 개발과 심사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가장 매력있는 인센티브 방안은 승진가산점을 도입하는 것이다. 교과서 집필만큼 교원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연수는 없을 것이다. 기존의 연수 가산점을 대체하거나 전문직 시험 응시 가산점 중에 교과서 집필 또는 심의 경력을 포함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관련 인식이 높아지고 논의가 발의된다가 하더라도, 해당 교육청에서 승진 가산점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일이 걸린다. 교원들은 승진 가산점 구조에 매우 민감하여, 시도교육청에서는 가급적 승진 가산점 제도를 변경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아주 강하다. 새로운 승진 가산점을 항목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부정적이기까지 하다. 이런 시도교육청의 오랜 관습을 볼 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적극적으로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권장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교과서에 관한 제도나 법령의 개선 이후에, 교육과학기술부나 시도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보았다. 교과서 정책이 크게 변화하였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달라지는 점이 무엇인지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도서가 확대되어 심사의 문턱이 낮아졌지만, 많은 교사들은 아직도 대형 발행사가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교과서에 의존하고 있다. 원고료와 판권계재는 많은 교원들을 교과서 집필이나 심사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달라지는 교과서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고, 집필진 및 심사진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나아가 교과서 개발 및 심사와 관련한 교원 인센티브 방안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더 다양하고 질 좋은 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인정도서 확대에 따라 2012년부터 시도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실시한 인정도서 심사 업무는 이제 서서히 기틀을 잡아가고 있다. 2014년에 적용될 고등학교 교과서의 개발도 곧 마무리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인정도서의 개발과 심사가 시도교육청에서 무리없이 진행되고, 더욱 더 좋은 교과서가 많이 개발되어 현장에서 사용되길 기원해 본다.



교원과 학생인권의 조화를 향하여...



박 정 애
갈매초등학교 교감

학교의 실상 알기

학교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와 교사로부터 배우는 학생 사이에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학습공동체이다. 교육은 교사가 방향을 주도하고 학생의 요구를 존중하는 활동이다. 교사-학생간 상호존중, 상호신뢰가 교육활동의 바탕이 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교사와 학생간에는 '금'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심지어 학생들이 무서워 제대로 교육활동을 펼치지 못하는 교사들도 적지 않다고 하여 마음이 아리다.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는 교사가 여전히 위계적 권위만을 내세운다는 불만도 있다.

2월 중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 주최한 신규교사 임용예정자 연수에서 만난 새내기 교사들은 그 어렵다는 임용고시를 합격한 기쁨에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학교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에 진지한 태도로 질의하고, 모둠토의 시간에는 그들만의 반박이

는 재직과 교직에 대한 희망 섞인 열정을 내보였다. 학교를 모범적으로 다니고 학교가 좋아 학교로 되돌아온 신규교사들의 출발을 환영하고 마음껏 축복하고 싶었다. 다른 한편 교직의 선배로서 부푼 꿈을 가진 그들에게 나는 학교 현장을 무지개 빛으로만 이야기할 수는 없었다. 교실 현실은 녹록치 않아서 선배교사로서 좋은 일터를 만들지 못한 미안함도 감출 수 없었다.

교사보다 더 높은 학력, 더 많은 교육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일부 '오만한' 학부모들의 학교와 교사에 대한 낮은 기대와 과도한 요구, 공주와 왕자, 고아와 거지가 동화처럼 뒤섞인 혼란스런 교실, 교권과 학생의 인권,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이 맞물려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교사들이 가꾸고 지켜야 할 교권에 대해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미성숙하고 성장 도중에 있는 어린 학생들과 갈등은, 결국 성인인 교사들에게 책임이 지워지기 일췌이므로 교사들로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청되기 때문이다.

교권 침해로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

흔히 교직은 선망의 직업으로 여겨져 왔는데, 최근 들어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유린으로 인해 학교를 씹쓸히 떠나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교권침해 사례는 2009년 1,570건, 2011년 4,801건, 2012년 1학기만 4,477건 등으로 2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하였다. 이 중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는 2009년 11건에서 2012년 1학기만 95건으로 8배 증가하였다. 이런 현실로 인해 명예퇴직 교사는 2009년 2,776명, 2010년 3,818명, 2012년 4,743명으로 늘었다. 초중고 교사의 63.6%는 명예퇴직을 고려하고 있으며, 특히 중학교 교사는 77.8%나 되고 있다. 교육환경 변화와 교권 추락 현상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교권침해는 교사의 교육권한,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에 대한 교육행정기관, 학교행정가, 동료교원, 학부모, 학생 등에 의한 침해를

말한다. 교원에 대한 폭행, 폭언, 욕설,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통한 명예훼손 및 협박, 수업진행 방해, 담임 교체 등 학부모의 무리한 요구, 안전사고보상에 대한 요구, 행정기관, 관리자의 권한 남용 등을 들 수 있다. 사안별 유형을 보면 학생 안전사고를 둘러싼 것, 학생 지도에 따른 것, 학부모의 폭행·폭언 등에 의한 것, 학생의 폭행·폭언 등에 의한 것, 교원 및 교육행정기관에 의한 것 등으로 나뉜다.

학부모 요인에는 자녀에 대한 과잉 사랑 및 보호,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 학교 및 교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학생관련 사안 발생 시 해결 방법의 견해차, 담임 교사와의 대화 부족 등이 있고, 학생 요인에는 교사에 대한 존경심 부족, 담임교사와의 대화 부족, 학교생활 및 학습부진에 따른 스트레스, 학생 개인의 권리 주장, 교사에 대한 충동적 반항 등이 있다. 또한 교사 요인에는 학부모와의 소통 부족, 학생생활 지도 및 상담 기술 부족, 학생 지도를 교사의 권한이 아니라 권리로 오인, 교사의 감정적이고 자의적인 지도, 스승이라는 사명감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제자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에 의한 교권침해는 교사들을 절망하게 만든다. 학생들의 성희롱 욕설을 들으면서 무능한 교사로 찍힐라 속앓이 하는 교사, 제자에 폭행당하는 교사의 초라한 뒷모습, 야단치면 도끼는 치켜뜨고 반항하는 학생, 교사에게 대들면 동료들 사이에서 영웅이 되는 학생, 담배피우는 아이 집에 알렸더니 부모가 허락했는데 왜 참견하냐는 학부모의 엉뚱한 대꾸가 교사의 자리를 비좁게 만든다.

교권을 단단히 지키는 길

교사로서 나만 잘 하면 된다고 말하기도 어렵지만 그래도 경험에 비추어 보면 미성년 학생을 가르치는 초중등학교에서 교권을 지키는 것은 교사의 가장 큰 의무이기도 하다.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면 교육 자체가 위협해진다. 교권은 학생을 위해서도 단단히 지켜져야 할 가치이기도 하다. 최근 들어 학생인권 조례 등

에 의해 교권과 제로썸 게임을 하는 듯하여 매우 안타깝다. 체벌금지와 학생인권만 앞세우며 교권을 위축시키거나 교권만 강화하여 학생의 인권을 축소할 수도 없다. 둘 간의 조화는 언제나 필요하다.

둘이해보면 좋은 교사들에게는 언제나 교사로서 합당한 권위가 학교 관리자, 동료 교사,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주어졌다. 험난한 세태 가운데서도 좋은 교사를 향한 학생과 학부모의 존경은 줄어들지 않았다. 흔히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업신여긴 이후에야 다른 사람도 나를 업신여긴다는 격언을 되새길 필요도 있다. 또한 뿌린 대로 거둔다는 속담과도 연결된다. 수업에서 최선을 다해 잘 가르치는 교사, 학생들에게 정성을 쏟아 지도하는 좋은 교사에게 학생들은 인간적으로 응답한다. 학생들은 교권의 위기 시에도 이런 교사들 편에 서서 교권을 옹호해준다. 평소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것이다.

평소 교사로부터 특별히 개인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함부로 교사를 대하지 않는다. 이런 신뢰를 쌓으려면 학년초에 담임교사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거는 높은 기대를 개별적으로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다. 학생들은 교사와의 특별한 개인적인 약속을 믿고 교사를 대할 것이다. 교사도 학년초에 학생들과 개인적으로 한 약속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중등학교에서 여러 학급의 2~3백명 학생들을 대하지 않을 수 없는 교사들도 있다. 교사나 학생들은 익명성에 기대어 서로를 소홀히 대할 때가 종종 있다. 특히 우리나라 교실 풍토에서는 학생간 비교 경쟁이 적지 않아 학생들의 자존감이 낮아져 있고 화가 나 있는 학생도 적지 않다. '누구라도 걸리기만 하면 그냥 안 두겠다'는 비장한 자세로 웅크린 학생도 있다. 마치 성냥불만 대면 활활 타오를 것 같은 기세다. 교사들은 평소 수업에서 학생간 비교 경쟁하는 수업 풍토를 줄이고 상호간 존중과 배려, 협동과 유대를 강조하는 수업을 늘려가야 할 것이다. 학생들 사이에 협동을 유도하는 가운데 자연히 교사-학생간에도 상호 배려와 존중이

자랄 수 있을 것이다.

교권 확립을 위해서 학교관리자들의 교사에 대한 존중도 필요하다. 교사의 수업을 존중하고 학생에 대한 지도 권한을 존중하는 것을 학생과 학부모들이 인지할 때 교권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최근 들어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사에게 폭행을 가한 학생들을 단계적 조치에 따라 강제로 전학시키겠다는 것도 옳은 결정이라고 본다. 특히 사립학교의 관리자들은 교주로서 교사들 앞에 군림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런 제왕적 교주노릇은 교사들의 권위를 여지없이 무너뜨린다. 교육청이나 교과부도 교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말단 공무원 취급하는 풍토를 없애나가야 한다. 학생을 교육하는데 절실하지 않는 일로 교사의 시간·노력을 앗아가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일이 없어야 교권이 설 수 있다.

학교밖의 가정과 언론의 협력이 아쉽다

교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학부모들과도 소통도 더 필요하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으로 인해 교사의 학부모와의 소통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도 사실이다. 문제부로부터 문제학생이 양산되고 있다. 교사가 개별적으로 학부모와 소통을 위해 노력해야 하겠지만 학교나 교육청 등에서도 학부모교육을 부지런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 어디까지가 학부모가 학교와 교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한계인지도 분명히 알려줄 필요가 있으며, 학부모의 책임과 의무도 알려줄 필요가 있다. 학부모의 부당한 요구가 결국 자기 자녀와 나아가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해를 끼친다는 것도 사례를 들어 제대로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학부모교육도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빚고 있어 교육이 필요한 이들은 불참하고 교육이 필요없는 모범적인 학부모들은 교육에 더 잘 참여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학부모교육과정기준을 만들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할 교육 프로그램을 엄선하

는 중인 줄 안다. 학부모교육이 활성화되는 것도 교권 확립이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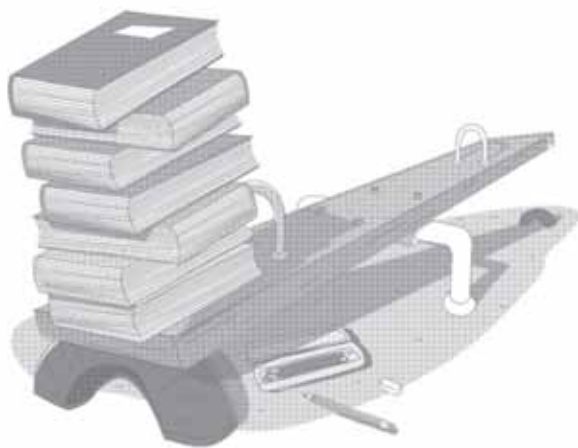
특히 언론이 학교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보도할 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침소봉대하여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사실인양 보도함으로써 교권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과거 언론이 교과부와 함께 교사들을 촌지나 받는 물염치한으로 몰아간 것은 우리나라에서 교권이 크게 추락하도록 만든 계기였음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평소에는 그렇지 않으면서 불미스러운 일을 다룰 때에는 꼭 '스승과 제자'라고 칭하면서 언론이 교권의 실추에 앞장서기도 한다.

가정과 언론은 학교 안의 일을 가급적 교사들에게 맡겨주었으면 한다. 가정과 거리에서 일어난 일조차 학교 안으로 들어밀어 교사들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일도 없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확립된 교권은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으로 되돌려질 것이다.

학생의 자람에 따른 권위의 점진적 이양

법은 교권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장치를 가지고 있다. 교권침해가 일어나면 이를 구제할 대책도 적지 않다. 그러나 교권은 교사의 일상적인 실천의 누적으로 지켜진다고 본다. 교사와 학생은 함께 학교·학급 공동체를 만들어갈 공동 책임이 있다.

가정교육에서 자녀가 자람에 따라 부모의 권위가 차츰 자녀에게로 이양되듯이, 학교에서도 교사의 권위는 학생이 자람에 따라 차츰 학생에게 옮겨간다. 학생은 의존적·타율적 존재에서 점차 독립적·자율적 존재로 변해간다. 이것이 교육이다. 학생의 성장 발달에 맞게 권위를 나누어주는 교사의 지혜로운 역할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화력 에너지 관련 초·중·고 교육과정·교과서 분석 및 개선방향 탐색*

**

이 동 원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1. 서론

2011년 나라지표에 제시된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 및 소비 현황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증가추세에 따른 기여도는 석유, 석탄, LNG,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와 기타 순이다. 에너지 수급 및 소비 추세가 석유에서 천연가스, 원자력 등 친환경, 고급에너지로 전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실적인 에너지 수급 및 소비는 석유, 석탄, LNG 등을 활용한 화력 에너지에 가장 크게 의존하고 있다.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원의 연구와 투자가 활발하나 획기적인 기술개발이나 인간 삶의 변화 없이는 2050년이 되어도 우리 생활의 주된 에너지원은 화석연료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박영숙 외, 2012: 330).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한 전 세계 화력발전소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이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 총량의 1/4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친환경, 미래에너지의 개발과 활용의 중요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화력 에너지원은 현재 한국의 에너지 수급 및 소비에 가장 큰 비중과 역할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방지 기술 CCS(Carbon Capture & Storage) 기술 발전, LNG 등의 비중 증가로 화력 에너지가 환경오염의 주된 요인이라 단정 짓기는 어렵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석유, 석탄 등의 화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의 수급 및 소비 현황에 대한 국민적, 학교 교육적 차원의 현실적, 객관적 기술과 홍보는 부족한 반면, 미래 지향적 친환경 에너지원의 장밋빛 미래 부각으로 화력 에너지는 우리 생활에 있어 환경오염, 환경파괴의 주요인이며, 장차 폐기되어야 할 부정적 에너지원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현실이다. 특히 초·중·고 교육에서 화력 에너지 관련 내용이 어떤 관점에서 어느 정도의 넓이와 깊이로 기술되어 있는지에 대한 실태 분석 연구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는 현재의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화력 에너지 관련 내용 분석을 통해 화력 에너지에 대한 기술 실태와 특징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초·중·고 학생 및 교사, 교육연구기관, 교과서 출판 관계자들에게 화력 에너지에 대한 미래지향적이고 균형 잡힌 인식 형성과 교과서 개발 방향 제언을 목적으로 한다.

* 이 논문은 2012년 서부발전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화력 에너지 관련 초·중·고 교육과정·교과서 분석 및 개선방안 탐색' 연구를 요약,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연구참여자 : 김만근(한국교과서연구재단), 이면우(춘천교육대학교), 김희필(제주대학교), 권부경(청주주성고등학교), 정태호(용인문헌초등학교), 임용덕(한국교원대학교 박사과정), 박재용, 김문섭(강원과학고등학교), 계광선(경기안곡고등학교), 주현주(제주성산초등학교), 유순기(한국교과서연구재단)

II. 초·중·고 화력 에너지 관련 교육과정·교과서 분석 및 특징

본 연구는 초·중·고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 인간 생활 영위를 위한 중요한 에너지원의 하나로써 화력 에너지의 의미와 중요성, 미래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부각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초·중·고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화력 에너지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그 특징과 문제점을 파악한다. 분석 대상 교과과는 화력 에너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 도덕, 과학, 환경, 실과(기술·가정)의 5개 교과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초·중·고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화력 에너지 관련 내용 진술의 특징과 문제점에 따라 이후 교육과정, 교과서 개발의 개선방향을 제안한다.

1. 교육과정, 교과서 분석 대상과 분석틀

화력 에너지 관련 초·중·고 교육과정과 교과서 분석은 전술한 5개 교과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분석 대상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2007 개정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과학과 환경의 경우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가 고등학교에 선택과목으로 개발, 적용되고 있기에 2007, 2009 개정 교육과정을 함께 분석하였다. 교과별 분석 대상 교과서는 초·중·고 학교급을 합쳐 사회 21개 출판사 53권, 도덕 6개 출판사 12권, 과학 11개 출판사 31권, 환경 4개 출판사 4권, 실과(기술·가정 포함) 12개 출판사 51권, 총 151권을 분석하였다.

교육과정과 교과서 분석을 위한 내용요소는 교과명, 학교급과 학년(영역), 분석 대상 교육과정, 단위명, 교육과정과 교과서 원문, 교육과정과 교과서 서술 특징, 평가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대안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분석의 필수내용요소들은 교육과정과 교과서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은 분석틀을 만들었으며 이에 따라 교육과정과 교과서 분석이 이루어졌다.

〈표 1〉 교육과정 분석 틀

과 목	학년(영역)	교육과정
서술 내용	교육과정 전문 진술	
서술의 특징 및 평가	○ 특 징 ○ 평 가 ○ 대 안	

〈표 2〉 교과서 분석 틀

과 목	교과서	학년	교육과정
구 분	출판사 (대표저자)	검정일 (출판일)	쪽
단위명			
교과서 원문	※ 교과서 원문 스캔 제시		
교과서 서술내용	※ 교과서내 관련 서술 원문 제시		
서술의 특징 및 평가	○ 특 징 ○ 평 가 ○ 대 안		

교육과정과 교과서 분석은 사회, 도덕, 과학, 환경, 실과(기술·가정)순으로 이루어졌으며 개별 교육과정, 교과서 분석 이후 그 특징을 종합, 정리하였다. 이렇게 개별 교과와 교육과정과 교과서 분석이 이루어진 후 종합적으로 화력 에너지 관련 초·중·고 교육과정, 교과서의 특징을 정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교과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지면관계상 교과별 교육과정, 교과서 분석 전문은 생략하고 교과별 기술 특징의 종합 내용을 제시하였다.

2. 화력 에너지 관련 교육과정 내용 기술의 특징

화력 에너지 관련 교육과정 내용 기술은 초·중·고 학교급, 분석 대상 교과별로 모두 포함하고 있었다. 사회과는 6, 7, 9, 10, 11~12학년에, 도덕과는 4, 7, 11학년, 과학과는 4, 5, 6, 7, 8, 10~12학년에, 실과(기술·가정)과는 6, 7, 9, 10학년에 제시되고 있었다. 환경과는 중·고등학교 선택교과로 화력에너지 관련 교육과정 내용을 1~3학년 전학년에서 학년, 내용영역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여 교수할 수 있도록 편성하고 있었다. 교과별 화력 에너지 관련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첫째, 화력 에너지, 화석 에너지, 화력 발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교육과정 단위, 목표, 성취기준은 없었으며, 에너지 자원, 대기오염에 따른 환경문제 극복, 신재생 에너지 개발 관련된 단위에서 함께 기술되고 있었다.

둘째, 교육과정 대강화로 인해 교육과정상의 목표, 내용, 성취기준에서 화력 에너지, 화석 에너지, 화력발전에 대한 편향성은 구체적으로 보이고 있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화력 에너지, 화석 에너지의 사용이 환경문제, 대기 오염의 원인이며, 이의 극복 방법으로 친환경적 삶,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에 초점을 둔 교육과정 구성이 하나의 큰 방향이 되고 있었다.

교과별 특징으로는 사회·도덕과의 경우, 전술한 특징과 같이 화력 에너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없으며 에너지의 종류, 신재생 에너지, 환경문제, 친환경적 삶의 내용과 함께 화력에너지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에서 '화력 에너지→대기오염원→지구온난화→폐기대상 에너지→신재생 에너지 개발'이라는 도식적 인식이 특징적이다.

과학과의 경우 역시 교과와 성격상, 에너지, 화석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다루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화력 에너지를 다룬 경우는 거의 없다. 환경과의 경우 화석 에너지를 많이 다루고 있지만, 주로 지구온난화나 환경오염의 주된 원인으로서는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실과과의 경우, 내용 측면에서는 사회, 도덕과와 유사한 측면이 많으나 교과와 특성상 전기 에너지, 발전소, 전기 에너지의 이동, 전동기 등 보다 직접적인 내용을 포함함은 물론 전기 에너지 관련 체험활동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3. 화력에너지 관련 교과서 내용 기술의 특징

교과서 분석은 초·중·고 사회, 도덕, 과학, 환경, 실과(기술·가정)의 5개 교과, 151권을 대상으로 교과서 원문 제시, 서술상의 특징, 서술 내용 평가, 대안 제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분석 결과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화력 에너지 관련 내용이 하나의 독립적인 단원으로 기술된 교과서는 없었다. 대부분의 교과서는 환경문제, 대기오염, 지구온난화와 이의 해결방안으로써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내용, 국가와 지역별 에너지 자원 관련 내용과 함께 화력 에너지 내용이 다뤄지고 있었다.

둘째, 화력 에너지 관련 내용이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학교급은 초등학교보다 중·고등학교급이었다. 초등학교에서는 분석 대상 교과 모두 환경문제, 특히 대기오염에 따른 지구온난화, 생태계 파괴, 대안으로서 신재생 에너지 개발의 중요성을 주로 언급하고 있었다.

교과별로 사회과는 6, 7, 9, 10, 11~12학년의 지리영역과 일반사회영역에, 도덕과는 4, 7, 11학년 이후 선택과목에서 환경보전과 친환경적인 삶, 환경문제 극복을 위한 생태중심주의,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과 활용 단원에서 화력 에너지 관련 내용이 기술되고 있었다. 과학과는 중1, 중3(2007 개정 교육과정 의거), 고등학교 전체학년(2009 개정 교육과정 의거) 과학 및 지구과학1의 에너지와 환경오염을 다루는 내용에서, 환경과는 중학교 환경교과서와 고등학교 환경과 녹색성장 교과서의 환경오염이나 에너지 문제와 관련된 내용에서 화력 에너지 관련 내용이 기술되고 있었으며, 실과(기술·가정)과는 6, 7, 9, 10학년의 생활 속의 전기전자, 기술의 발달과 미래사회, 전자·기계·기술, 수송기술 단원에서 발전소의 종류, 전기에너지의 이동, 전기에너지 이용 기계 등의 내용에서 화력 에너지 관련 내용이 다뤄지고 있었다. 하지만 중·고등학교 교과서 역시 화력 에너지를 지역별 에너지 자원, 환경문제, 신재생 에너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었다.

셋째, 초·중·고 교과서 모두 화력 에너지, 화석 에너지를 유한 자원, 대기오염 발생의 주요인, 미래의 폐기대상 에너지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교과서 기술은 “화력 에너지→대기오염 문제 발생→폐기대상 에너지→해결대안으로서 신재생 에너지 개발, 사용”이라는 도식적이고 기계적인 교과서 기술과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기계적 인식은 화력 에너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착화시키고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장밋빛 미래, 장점만을 부각시키는 교과서 기술로 이어지고 있었다.

넷째, 화력 에너지에 대한 부정적, 도식적, 기계적 인식은 교과서 기술에 있어 신재생 에너지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부각시키는 반면, 상대적으로 화력 에너지의 유용성, 과거와 현재의 기여도, 기술 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성 증대 노력, 미래 에너지로써의 유용성, 대기오염 방지 노력과 같은 내용을 축소, 또는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었다. 고등학교 사회과 세계 지리, 한국지리 교과서의 경우, 화석 에너지의 역사적 기여, 현재적 유용성을 긍정적으로 기술하는 사례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교과서 기술 분량의 균형성 측면, 대기 오염과 관련된 사진과 삽화 측면, 에너지 자원의 생산과 소비 현황 관련 그래프, 자료 측면에서 화력 에너지 관련 내용을 축소, 또는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었다. 과학과 환경과 역시 화석에너지 사용이 지구온난화나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지적하고 있다. 화석에너지 사용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류 문명의 발전에 견인차역할을 한 것 역시 화석연료의 사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오늘날 화력 에너지는 친환경적인 첨단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어 실제로 우리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III. 화력 에너지 관련 초·중·고 교육과정, 교과서 개선 방향

화력 에너지 관련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특징을 바탕으로 화력 에너지 관련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개선 방향을 몇 가지 관점에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화력 에너지를 바라보는 인식 메커니즘의 개선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화력 에너지를 바라보는 논리에는 부정적 이미지를 목표로 한 고정적이며 도식적인 특징이 있다. 즉,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화력 에너지를 바라보는 주된 논리는 화석 에너지는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발생시키는 에너지원이며, 대기 오염과 온난화의 주범이다, 따라서 폐기의 대상이며 그 위치는 신재생에너지가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정 지향적 논리
메커니즘

한정 자원의 화석에너지 → 메탄 발생 → 대기 오염 및 지구 온난화 주범 →
폐기의 대상 및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 필요

이러한 화석에너지에 대한 인식 메커니즘은 화석 에너지의 특징에 근거하고 있으나, 학생들에게 화석 에너지의 실체를 파악하기 보다는 부정적 이미지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화석에너지에 대한 실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부정적 논리에 대한 대안 논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화석에너지는 한정된 자원으로서 과거의 인류의 문명 발달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현재에도 에너지 자원 개발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메탄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공해 저감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무한 에너지인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그 대체 비용이 높아 많은 시간과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대안의 한 예로 제시될 수 있다.

실체 지향적 논리
메커니즘

한정 자원의 화석에너지 → 과거 인류 문명 발달에 기여 및 현재에도 에너지 개발의
주요 대상 → 메탄 발생으로 인한 공해를 줄이기 위한 저감 기술 개발 → 신재생 에너지
로의 대체를 위한 장기 계획과 기술 개발 필요

2. 인류 문명 발전에 대한 화석에너지의 기여도 진술

교육과정과 교과서에는 화석에너지의 인류 문명사적 의미 해석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 즉, 화석 에너지가 인류 문명의 발달에 긍정적이며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에도 그 역사성이 서술되지 못하였거나 축소되어 진술되고 있다. 문명사적으로 보았을 때 석탄과 석유는 기존의 나무 땔감을 대신하여 난방에 이용하였으며, 산업 혁명의 직접적인 원동력이 되었다. 현재 우리의 생활을 풍족하게 하고 있는 플라스틱, 의류, 의약품 등은 석유화학 물질의 산물이다. 또한 비행기,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면서 수송 기술의 발달을 가져와 지구촌 시대를 여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진술은 학생들에게 화력 에너지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화력 에너지에 대한 문명사적 지식을 습득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현재의 경제와 사회에 대한 화석에너지의 기여도 진술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화석에너지와 경제와의 관계 진술이 미흡하다. 또한 각종 사회 현상에서 화석에너지는 부정적 이미지로 기술되고 있다. 화석에너지가 갖는 한계점 때문에 사회에 많은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수용해야 할 점도 있음이 간과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와 비교하여 화석에너지는 전기 생산의 비용면에서 비교 우위에 있다. 만약 화석 에너지를 폐기하고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한다면, 전기 요금을 비롯한 각종 상품의 가격 인상은 필수적이며, 이는 경제와 사회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화석에너지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 요금, 상품 값으로 현재의 경제와 사회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향의 내용을 교과서에 충분히 다루어 주어 현재의 경제와 사회 현상에서 화석에너지가 기여하는 바를 실제적으로 알게 할 필요가 있다.

4. 미래 에너지로서의 유용성 진술

화석에너지는 수십 년 이후의 미래에도 인류의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석탄, 석유의 매장량은 매장지의 발굴로 인하여 채굴 연수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여기에 메탄 하이드레이트, 셰일 가스 등 새로운 형태의 화석에너지원이 발굴되고 있어 앞으로 수십 년 동안은 이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즉, 바로 고갈될 에너지원이 아니며, 이 때문에 즉각 신재생에너지로 전환되어야 할 정도로 급박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각국은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화석에너지 개발을 통하여 국가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한 전략 수립에 고심하고 있고, 기술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은 화석에너지가 가까운 미래 시점까지는 인류의 에너지원으로서 상당한 매력을 지니고 있고, 주요 에너지원으로 취급 받을 것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기술하여, 학생들이 미래 에너지(특히, 가까운 장래의 에너지)를 생각할 때 무조건 신재생에너지만을 떠올리게 하거나 화석 에너지는 가능성이나 가치가 전혀 없다는 단정을 짓지 않도록 기술 및 안내될 필요가 있다.

5. 화석에너지로 인한 공해 저감 기술 소개

화석에너지는 연소 시 그 특성상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등의 유해 가스를 배출한다. 이는 이 에너지의 단점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고, 이런 단점으로 인해서 기피의 대상이 되었었다. 최근에는 이런 단점을 축소시키고자 공해 가스 저감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교과서에는 이런 노력이 구체적으로 진술되지 못하고 있다. 교과서의 대부분은 화력 발전소 그림을 그릴 때 연기 나는 굴뚝을 강조하여 표시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적이지 못한 그림이다. 화력 에너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서 화석 에너지로 인한 공해 저감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이 소개되면 화력 에너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6. 화석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 진술 양 불균형 해소

교과서에 진술된 화석에너지의 양은 신재생 에너지에 비하면 매우 적다. 이는 신재생 에너지가 미래에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되어 진술되는 특성으로 인한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화석에너지도 인류의 문명사적 기여도는 물론 현재에도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교과서 저자의 철학에 따라 화석에너지와 신재생 에

너지의 진술 분량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그 차이가 현격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이런 양의 차이는 학생들에게 관련 지식을 전달하는데 있어서도 기회의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두 에너지원 간의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정보 제공에 따른 교과서 진술 양 불균형 해소는 학생들의 균형 잡힌 인식 전환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IV. 결론 및 제언

화력 에너지 생산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다. 이 중 특히 우리 삶과 가장 밀접한 전기 에너지는 대부분이 화력 발전에 의해 생산된다. 이 과정에서 화력발전이 지구 대기오염과 이로 인한 온난화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화력발전에 의한 전기 생산은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도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대기 오염 발생원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건설비용과 함께 지형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필요한 시간에 발전량을 쉽게 조절할 수 있고, 최첨단장비를 갖추어 공해방지 대책에 대응하고 있는 점이 화력 발전을 포기할 수 없게 하는 이유일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화석에너지, 화력 발전을 폐기 대상 에너지원으로 재단하는 것은 사려 깊지 못하다. 오히려 화력 에너지의 경제성, 유연성, 고효율성 측면에 대한 균형 잡힌 인식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화력 발전에 대한 교육이 이러한 균형적인 시각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2012년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교육되고 있는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화력 발전, 화력 에너지, 화석에너지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그 특징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교육과정과 교과서 분석 결과와 특징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에 있어 화력 에너지, 화력 발전 관련 기술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화력 에너지의 관점에서 앞으로의 교육과정, 교과서 개발을 위한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서술은 화력 에너지를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보는 일방적인 시각을 견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화력 에너지는 인류 문명 발달에 크게 기여한 에너지 자원이며 오늘날에도 주요한 에너지가 된다. 또한 최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환경오염을 최대한 줄이고 에너지효율을 높이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화력 에너지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둘째, 화석에너지가 인류 문명의 발달에 긍정적이며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에도 그 역사성이 서술되지 않고 있거나 축소되어 진술되고 있다. 석탄과 석유와 같은 화석에너지는 산업 혁명의 직접적인 원동력이 되었으며, 오늘날 우리 생활을 풍족하게 하는 물질이 된다. 화석에너지가 인류 문명에 기여한 바를 올바르게 언급해야 할 것이다.

셋째, 화석에너지와 경제와의 관계에 대한 진술이 대단히 미흡하며, 각종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화석 에너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 화석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와 비교하여 비용만 고려하더라도 비교 우위에 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 생산비용으로써 경제와 사회에 기여하는 측면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넷째, 화석에너지는 앞으로도 인류의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첨단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메탄 하이드레이트, 셰일 가스 등 새로운 형태의 화석에너지원이 발굴되고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서는 미래 에너지원으로 무조건 신·재생에너지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화석 에너지의 적절한 활용과 개발 역시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화석에너지가 가지는 고유의 장점도 진술할 필요가 있다. 물론 화석에너지는 자원의 한정성과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 기체를 배출한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저비용으로 지형적인 제약을 받지 않으며 적재적소에서 시간에 맞추어 적절한 양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첨단과학기술을 도입하여 화석에너지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화력 발전소의 경우 환경오염을 줄이는 최신의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첨단과학기술을 개발하고 바로 적용하는 최첨단 설비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이다.

일곱째, 현행 교과서에서 제기하고 있는 단순한 논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즉 화석에너지는 폐기되어야 할 에너지이며, 이것을 모두 신·재생에너지가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단순 논리이다. 화력 에너지의 모든 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앞으로도 화력 에너지는 중요한 에너지자원이 될 것이므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대책이 된다는 사실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여덟째, 신·재생에너지도 많은 기술적 제약이 있음을 이해시켜야 한다. 신·재생에너지가 먼 미래에 화력 에너지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는 다른 에너지원에 비하여 실용성이나 경제성에서 비교 우위에 있지 못하다는 사실도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홉째, 화석 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 진술의 분량에서 불균형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교과서에 진술된 화석 에너지의 양은 신·재생에너지에 비하면 매우 적다. 화석에너지도 인류의 문명사적으로 기여한 바가 크고, 현재에도 주요 에너지원으로서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에너지원의 현황과 활용에 대한 거시적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전기 에너지 생산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화력 에너지에 대한 초·중등 학생의 인식의 전환을 촉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의 서술 내용에 대한 지침으로도 제공될 수 있다. 이 연구가 화력 에너지를 포함한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한 균형 잡힌 교육으로 에너지 자원에 대한 현실적, 미래지향적 활용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길 기대된다.

참고 문헌

- 과학동아 편집부(2011), 에너지와 환경, 과학동아북스.
- 김도연(2011), 기후, 에너지 그리고 녹색 이야기, 생각의 나무.
- 김성호(2012), 검은 눈물 석유, 미래아이.
- 박영숙 외(2012), 유엔미래보고서, 교보문고.
- 박영숙 외(2011), 기후와 에너지로 재편되는 세계-유엔 미래보고서, 교보문고.
- 박영숙 외(2010), 유엔 미래보고서, 교보문고.
- 박중구(2009), 에너지 경제학, 아진.
- 배재근(2005), 첨단에너지 환경기술, 아진.

- 하백현, 남인식, 이영무(2012), 최신 에너지 공학 개론, 청문각.
- 하상안, 구현서(2012), 에너지환경개론, 형설출판사.
- 한국미래기술연구원(2009), 2009 신재생 에너지 산업전망 컨퍼런스-태양/풍력/석유/석탄/가스/폐기물/바이오/에너지저장(원자력, 수소 외).
- 한국서부발전(2012), 2012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한국서부발전(주).
- 한국전력공사(2012), 석탄화력발전실무, 신기술.
- (사)인본화학공학회 SCE NET(2012), 김봉석 · 오태선 · 이석구 · 정영관 · 채명석(역), 신 · 재생에너지공학, 북스힐.
- Fresh L. & Infield D. (2011), Renewable Energy in Power Systems, Jhon Wiley & Sons Ltd and Green Publishing Company, 차준민, 국경수, 김진오, 박한석, 안민철, 오용택, 최장영, 최준호, 허견(역), 신재생에너지, 그린.
- Maugeri N. (2006), The Age of Oil, Greenwood Publishing Group, 최준화(역), 당신이 몰랐으면 하는 석유의 진실, 가람기획.
- Shepherd, W & Shepherd, W. D(2010), Energy Studies(2nd edition), Imperial College, 박한용(역), 에너지 개론, 아진.





나와 교과서!



김 안 제(金安濟)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한국자치발전연구원 원장

1. 머리말

나는 생애의 거의 전부를 교과서와 더불어 살아왔다고 할 수 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교과서 내지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였고, 초·중·고등학교 교사 및 대학·대학원 교수 시절에는 교과서를 가지고 학생을 가르쳤다. 학교에서의 공식적인 교과용 책이 교과서인만큼 배우고 가르침에 의당 교과서가 기본이 되었던 것이다. 참으로 수많은 교과서를 접했고, 그로부터 배우고 얻은 바도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크게 세 부문으로 나누어 교과서와 얽힌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는 내가 접한 교과서와의 인연을 이야기하고, 둘째는 내가 직접 참여한 교과서 편찬의 경력을 소개하며, 끝으로는 교과서에

대한 개인적 소감을 피력기로 한다. 다시 말하면 교과서를 통하여 실력과 인격을 길렀고 교과서를 가지고 학생을 가르쳤으며 교과서를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한 나의 경험담이다.

2. 교과서와의 대면

광복을 맞이한 1945년 9월 초등학교(당시는 국민학교)에 입학하여 교과서라는 것을 처음 만났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었기 때문에 모든 교과서는 무료로 배부되었다. 당시는 교과서 뿐만 아니라 노트나 다른 종이도 질이 좋지 않았고 조잡했으며 교과서의 제본도 매우 허술하였다. 고학년이 될 때까지 교과서에 나오는 글들의 상당 부분이 광복 이전에 나왔던 것들로

되어 있었던 기억이 난다. 3·4학년 무렵에 참고서가 나오기 시작하여 교과서를 보완하는 참고 책자로 많이 이용하였다.

나는 그 무렵 기억력이 좋았는지 국어 교과서만은 학기 초에 책을 받아마자 그 내용을 모두 암기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읽으라고 시키면 다른 학생들은 책을 보며 읽었지만 나는 그냥 서서 암송하였다. 가끔 틀리기도 하여 선생님께 꾸중을 듣기도 했지만.

그리하여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여 공부한 나는 중학교 진학을 위한 최초의 국가고시에서 고향 문경군에서 1등을 하였고, 중학교 입학에서 당연히 수석을 하였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에 돈을 내고 교과서를 구입했다. 나는 집이 넉넉치 못하여 주요 과목의 교과서만 사고 나머지는 친구들 것을 빌려 손으로 베껴서 사용했다. 그때는 참고도서가 많아서 교과서의 보완용으로 활용했다. 그리하여 고등학교와 대학에 진학할 때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고 참고서를 보완 도서로 하여 공부했으며, 무난히 합격했던 것이다.

대학에 들어가서는 일정한 교과서가 없이 담당 교수분들이 지정해 주는 국내외 교재들을 사가지고 공부했다. 초·중·고등학교와는 달리 대학에서는 과목별로 여러 책을 보게 되어 부담이 컸다. 특히 자연과학 분야보다는 사회과학 분야가 더 많은 교재와 참고서적을 읽어야 하였다. 나는 대학에서는 물리학을 전공하여서 교재가 비교적 단순했지만 대학원과 미국 유학에서는 행정학·도시계획학·지역경제학 등을 전공하였기 때문에 많은 책을 읽었고, 그래서 무척 힘이 들었다.

3. 스승의 길과 교과서

나는 여러 종류의 학교와 다양한 학생을 가르친 경험을 갖고 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정교사로 들어간 것을 시작으로 하여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초·중·고등학생을 가르치는 가정교사 내지 그룹지도 교

사였었다. 주로 영어와 수학을 가르쳤고 교재는 교과서였다. 사범학교 3학년 2학기 때 교생실습을 나가 초등학교 6학년을 3개월 가량 가르쳤고 전 과목의 교과서를 교재로 삼았다.

대학교 3학년 재학 중에 모교 중학교에 가서 3개월 동안 강사로서 수학과 물상을 가르쳤고, 대학 졸업후에는 고등학교의 정교사가 되어 대수와 기하를 가르쳤다. 물론 모두 교과서를 기본 교재로 하였으나 선생인 나는 따로 교사용 지도서나 다른 참고서적을 활용하였다. 가르치는 교사는 배우는 학생보다 더 많은 지식과 정보 및 자료를 학생보다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학 및 대학원의 교수가 되어 거의 36년간에 걸쳐 지방자치론, 도시계획론, 지역개발론, 국토환경론, 통계학, 수리분석론 등을 가르쳤다. 학생들에게 교과별로 여러 가지 교재를 소개했으며, 이 가운데는 우리나라 책을 위시하여 영문으로 된 외국 책자도 많았다. 내가 직접 쓴 저서도 있었으나 다른 사람의 책자가 더 많았다.

학생으로 공부할 때에는 배우는 교과서가 잘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지 못한 채 그냥 열심히 배우기만 했다. 교과서의 잘 잘못을 비판하고 판단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교사가 되어 학생을 가르치면서부터는 교과서의 편제와 내용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었다. 지금 회고해 보면 내가 배운 교과서나 내가 가르친 교과서는 모두 훌륭하고 잘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훌륭하게 되었고 나머지도 건전한 삶을 살게 되었으며, 또 그런 사람들에게 의해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크게 발전하였다는 사실에서도 교과서의 훌륭함이 증명된다고 할 수 있다.

4. 교과서 편찬 관여

나는 1962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출판사인 민중서관(民衆書館)의 편집사원으로 입사했다. 주로 고

등학교 물리 과목의 참고서를 만들면서 간간히 여러 가지 사전의 교정을 보았다. 대학에서 배운 실력만으로는 고등학교 참고서를 만들기가 어려워 일본에서 발행된 참고서를 주로 이용하였다. 일본어를 전혀 몰라서 나이 많은 직원들에게 번역을 부탁하면서 근근히 만들어 나갔다. 참고서 발간을 보지 못한채 고등학교 교사로 전직하고 말았다.

서울대학교 조교수로 있던 1977년에 설립된지 얼마 되지 않았던 한국교육개발원의 편찬위원으로 위촉되어 일 주일에 하루씩 근무하였다. 그 후 연구교수, 연구위원, 집필위원 등으로 근 5년간 봉사하였다. 여기서 거의 일 년간에 걸쳐 《사회·문화》라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편찬하였다. 여덟 명의 공저로 된 이 책은 219페이지의 크기로 1982년 3월 1일자로 발간되었으며, 초판이 5,000부였고 가격은 권당 500원이었다. 이와 아울러 이 교과서의 교사용 지도서도 만들었으며, 여기에 참여한 집필진은 14명이나 되었다. 250페이지로 된 이 지도서는 교과서와 같은 날짜로 발간되었으며, 부수와 가격도 교과서와 동일하였다.

다음은 대학교 교과서의 편찬이었다. 한국방송통신대학이 서울대학교 부설로 처음 설치되면서 학과별로 교재를 만들기 시작했으며, 초창기였기 때문에 주로 서울대학교 교수들에 의해 교재 집필과 방송 강의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나는 행정학과와 세 가지 교과서 집필에 참여했으나, 《지역사회개발론》과 《지방자치론》 및 《도시행정론》이 그것이다. 다섯 명이 공동 집필한 《지역사회개발론》은 325페이지의 분량으로 1973년 3월 10일에 발행되었고, 초판 5,000부에 가격은 권당 500원이었다. 세 명의 집필자로 된 《지방자치론》은 307페이지의 크기로 1973년 9월 1일에 발행되었으며, 역시 초판 5,000부에 권당 가격 500원이었다. 그리고 역시 세 사람이 집필한 《도시행정론》은 265페이지의 크기로 1982년 8월 10일에 발간되었으며, 초판 5,000부에 권당 가격 1,000원이었다.

《국민윤리》라는 대학 교재는 1983년에 기획·집필하여 1984년 2월 7일에 발간하였다. 다섯 명의 교수

가 공동 집필하였고 책의 크기는 482페이지에 달했다. 대명출판사에서 발간하였고 초판은 5,000부를 찍었으며 가격은 권당 6,000원이었다.

이 이외에도 개인 단독 내지 공동으로 여러 권의 대학 교재를 집필·발간하여 대학 및 대학원의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만든 교과서 내지 교재들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였으니, 이는 학문의 신속한 발전과 후진들에 의한 더 좋은 저서의 발간 때문인 것 같다.

5. 교과서에 대한 소감

교과서는 말 그대로 교과와 기본서이다. 따라서 교과서는 어느 다른 책보다 표준적이고 모범적이고 대표적이어야 할 것이다. 교과서는 각 교과에 있어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훌륭하고 타당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교과서는 배우는 학생들에게 지식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상과 인격의 형성에도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훌륭한 교과서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서 중요한 몇 가지만 지적코자 한다. 첫째는 완결성이다. 교과서 하나만으로 그 과목의 학습은 완결될 수 있으면 한다. 교과서만 성실히 공부하여 수석 합격이 되었다는 보도를 보면 나는 무척 호뭇하고 대견한 느낌을 받는다. 둘째는 충실성의 요건이다. 교과서의 범위와 깊이가 그 학과, 그 학년, 그 나이에 맞게 충분하고도 완벽해야 할 것이다. 부족하거나 정확하지 못한 내용의 교과서는 배우는 학생들의 기본 교재로는 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

셋째의 요건은 적절성이다. 교과서의 내용과 수준이 학생의 학년과 연령에 맞아야 하고 그 시대와 공간의 특성과 흐름에 부합되어야 한다. 아울러 학년별로 교과서 상호간의 연계성과 진취성이 적절히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넷째는 활용성의 요건이다. 교과서에서 공부한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학생 스스로 이를 더욱 응용하는 방법과 활용하는 능력

을 갖도록 힘이 바람직할 것이다. 끝으로 다섯째의 요건은 발전성이다. 교과서만 잘 외워서 시험만 잘 치게 해서는 안되며 교과서에서 배운 것을 기반으로 삼아 생각을 깊이 하고 창조하고 개척하는 독창성과 자발성을 키워 나갈 수 있는 훌륭한 매개체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을 다양한 인간성으로 기르고자 한다면 과목별로 여러 가지 교과서가 있어 거기서 선택하여 쓰도록 함이 옳겠지만 가장 이상적인 표준형의 국민으로 육성하고자 한다면 하나의 통일된 교과서, 곧 국정교과서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국가는 교과서를 만들고 교과서는 국민을 만드는 만큼 어떤 방법으로 만들고, 특히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교과서만은 정말 올바르게 만들고, 그리고 제대로 가르쳐야 할 것이다. 이는 학생 개개인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해서도 크게 요망되는 바이다.

6. 맺는 말

나는 교과서, 그것도 국정교과서를 하늘처럼 믿고 공부했으며, 생각도, 행동도, 일상 생활도 교과서같이 하였다. 그래서인지 남들이 나를 보고 '교과서같은 사람' 또는 '교과서 인간' 이라고 불렀다. 좋게는 기본이 된 사람, 정도로 가는 사람, 모범된 사람이라는 뜻이었고, 나쁘게는 답답한 사람, 융통성이 없는 사람, 편

협한 사람이라는 의미인 것 같다. 어떤 해석을 하던간에 나는 그런 칭호를 들을 때 조금도 기분이 상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랑스럽고 만족스럽다. 또 그렇게 살아온 나의 삶에 대해 조금의 미련도 후회도 없다.

내가 공부하던 시절에 비해 오늘날의 교과서는 모든 면에서 장족의 발전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이외의 참고서나 보충 교재가 엄청나게 넘치고 있으며, 그리하여 많은 학생들이 교과서보다는 참고서에 더 열중하고 학교에서의 정규 수업보다는 학원이나 과외 수업에 더 열심인 것을 보면서 무엇인가 정상이 아닌 듯하여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왕년에 교사직을 경험했던 나로서는 오늘날의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교과서를 가지고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된다. 이와같은 어려운 현재의 상황에서 정규 학교의 교편을 잡아 교과서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교과서를 집필하고 연구하며, 편집하고 발행하는 기관이나 관계자들께서는 부디 훌륭한 교과서를 만들어 학생들로 하여금 교과서만으로 공부하여도 진학과 사회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리하여 학교와 교사와 학생 모두가 교과서만 가지고 마음 놓고 가르치고 배우는 정상적 풍토가 조속히 조성되기를 마음 깊이 기원드리는 바이다.



중학교부 금상

부모도 자격증이 필요하다!



박진한

김해중학교

3학년

시끄러운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빗소리였습니다. 재빨리 휴대폰을 찾아 시간을 확인합니다. 새벽 5시, 평소 기상시간보다 두 시간이나 이릅니다. 다시 한 번 잠을 청해보지만 한번 깬 잠이 쉽게 올 리가 만무하지요. 하기가 중간고사가 끝난 뒤로는 봄은 어디로 사라지고 예년보다는 훨씬 일찍 찾아온 무더위가 기승을 부려서 우선 짜증스러웠고 또 전국적인 가뭄으로 온 나라가 비상사태인지라 땅을 적어주는 시원한 비를 더욱 더 고대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달콤한 새벽잠에다가 기분 좋은 꿈까지 날려 보냈으니 어쨌든 새벽비가 알미웠습니다.

갑자기 새벽비가 보고 싫어졌습니다. 조용조용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내려섭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 쪽에서 두런두런 부모님의 대화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하여 창문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새벽의 고요함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분명히 평소 들어왔던 부모님 말씀의 볼륨보다는 적어도 한 옥타브는 높았습니다. 호기심에다가 놀람까지 더해져서 잔뜩 긴장한 채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절을 때 너무 준비가 부족했다는 엄마의 질책성 말씀에 묵묵부답으로 응수하시는 아빠였습니다. 평소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라서 조금 우스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씁쓸하였습니다. 마당에서 내리는 새벽비를 바라보면서 기분은 상쾌하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떠오르는 어제 기술·가정시간의 수업내용, “생애단계와 가족복지”였습니다. 가족복지에서는 무엇보다도 가정형성기, 가정확대기와 가정축소기의 시기가 중요하며 각 시기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가족 전체가 큰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던 선생님의 말씀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특히 수업 막바지에 크고 굵은 고딕체 글씨로 교과서에 쓰여 있는 “부모도 자격증이 필요하다”를 인용하여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어린 나이지만 지금까지 학교나 가정에서 부모님에 대한 효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만 들어왔던 저로서는 부모님도 자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솔직히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선생님께 질문하기로 마음먹고 팔에 힘을 주는 순간 2년 전 1학년 때 수업 후반부에 한두 번의 질문으로 “혼자 잘난체한다, 손을 좀 봐야한다”는 등 속덕거리던 친구들의 비웃음과 함께 왕따 일보 직전까지 갔던 쓰라린 기억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기 때문에 잔뜩 힘을 주었던 팔에 힘을 빼고 부모도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그냥 예비 부모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저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수업내용과 저의 가정을 비교해보았습니다.

부모님의 나이는 모두 50대로 처음에는 가정축소기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지만 2명의

누나 모두가 대학생이고 저는 중3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정확대기의 자녀교육기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교과서에서는 자녀가 대학교에 다니는 가정확대기 후반부에 이르면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자녀의 독립, 결혼에 대하여 준비를 해야 하므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목소리는 낮았지만 잔뜩 힘이 실려 있었던 부엌에서의 엄마 말씀도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었을 것

이라고 짐작하는 순간 중3의 장남으로서 평소 넉넉하지 못한 집안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주위 친구들의 생활모습에 부화뇌동하여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했던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파출부 일을 하시는 엄마는 약 십년 전 불의의 사고로 머리를 다쳐서 뇌수술 후 장애인인 되어 집에서 요양과 통원치료를 반복하시는 아빠와 저희 3남매의 뒷바라지를 해 오시면서 항상 미소로 저희들을 대하셨고 특히 웃음의 힘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엄마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불만과 걱정을 우연히 듣게 된 순간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리는 빗줄기는 점점 가늘어지고 아침햇살이 간간히 빛났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바로 그 때 들려왔던 엄마의 목소리 “진한아! 아침 먹고 학교에 가야지!” 그 순간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말씀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아침 식탁에서 부모님께 그동안 무리하게 요구했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용서를 빌었고 현재 요구 중이었던 휴대폰 교체 등 몇 가지도 말씀히 철회하였습니다. “우리아들! 이제 다 컸구나!” 하시면서 이슬이 맺힌 얼굴을 애써 감추시던 엄마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재빨리 식사를 마치고 등교인사도 하는 등 마는 등 가방을 둘러메고 모자는 조금 삐딱하게 눌러쓰고 도망치듯 대문을 나섭니다. 등푼길에 평소 엄마께서 강조하시던 웃음을 호탕하게 웃어봅니다. 부모의 자격증은 예비부모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마음속으로 외치면서...



중학교부 은상

교과서에게 인공호흡을...



강 우 림

목포 애향중학교

1학년

어휴! 한숨부터 나왔다. '이 많은 것을 언제 외울까? 올 한해도 얼마나 역사에 시달려야 할까?' 작년의 악몽이 떠올랐다. 작년에도 사회 과목 때문에 애를 먹었다. 시험공부 할 때마다 어려운 용어 외우느라 진땀을 흘렸다. 중학생이 되면 상황이 좋아지겠지 했는데, 아 뽀빠! '역사' 과목이 우리 학교 올해의 집중이수 과목으로 선정되었다. 말 그대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 벌써부터 식은땀이 이마에 주르륵 흘렸다. '어쩌다가 역사가 오래 된 나라에 태어나서 이렇게 두꺼운 역사책으로 공부를 해야 하나, 우리도 미국처럼 역사가 짧으면 교과서도 얇았을 텐데,' 오천년의 역사가 갑자기 원망스러웠다.

원래부터 내가 역사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다. 역사가는 아니지만 역사애호가이다. 텔레비전에서 방송하는 역사드라마도 좋아한다. 옥쟁이 세종대왕님, 액막이 무녀와 왕의 사랑 이야기도 재미있게 시청했다. 역사는 즐겁다. 적어도 삼국시대부터의 이야기는 흥미진진하다. 나를 골탕 먹이는 것은 그 이전시대의 이야기이다. 특히 선사시대인 석기시대, 청동기 시대는 정말 어렵다. 뎨석기, 찰개, 막집, 돌보습, 비파형 동검, 추리소설에 나오는 암호 같은 단어들이 나열되면 내 뇌는 순간적으로 하얗게 비어버린다. 겨우겨우 인터넷을 뒤져 위키피디아를 보며 보충설명을 읽고 사진을 보며 대충 이해한다. 무엇인가 뒷맛이 개운하지 않다. 두루뭉술하게 구름 속을 헤매는 기분이다.


교과서는 굵은 골격만 설명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해의 틀을 잡는 데 유리하다. 그런데 나처럼 이해력이 부족한 학생에게 친절하고 자세히 설명해줄 무엇인가가 필요했다. 부족한 1%를 채울 필요가 있었다. 아빠께 호소했다. 그것이 우리 가족 역사탐방 여행의 시작이었다. 전주-김제-고창-익산. 나는 여행배낭에 '중학교 역사(상)'를 챙겼다. 내가 궁금하게 여겼던 내용은 모두 교과서에 형광펜으로 표시해 두었다. 길가에 핀 벚꽃을 구경하며 한참을 국도를 따라 달렸다. 전주에 도착해서 한옥마을부터 살폈다. 온통 기와집만 있었다. 전주에서는 하인들도 기와집에서 살았을 것 같다. 태조 이성계의 제사를 모시는 경기전(慶基殿)도 둘러보았다. 드디어 전주박물관에 도착했다. 아빠가 미리 연락했는지 아빠 친구 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 박물관에서 학예사를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아빠는 일부터 전주박물관으로 여행의 목적지를 정한 것이다.

백문이 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 1층의 '고대 문화실'부터 찾아갔다. 넓고 환한 조명 아래 많은 유물들이 뽐내고 있었다. 나는 역사 교과서를 펴서 내가 표시해 두었던 곳을 찾아갔다. 석기류가 먼저 눈에 띄었다.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맹이를 모아 전시하는 것 같았다. 학예사 친구 분이 친절하게 뎨석기와 간석기의 차이를 설명해 주셨다. 구석기인들은

아직 손재주가 서툴러 정교한 도구를 만들기 어려웠다. 신석기시대에 사람들은 머리도 푹 푹해지고 여러 도구를 이용해서 간석기를 만들 수 있었다. 아! 그렇구나. 내 머리 속에 전구가 밝은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아니, 텐석기같이 울퉁불퉁하던 내 뇌가 간석기처럼 반질반질하게 정리되고 있었다. 빗살무늬 토기, 화살촉, 농기구들이 설명과 함께 잘 전시되어 있었다. 빗살무늬 토기가 신기했다.

교과서의 사진을 열심히 보고 있는 나를 친구 분이 칭찬하였다. 준비성이 좋은 학생이라는 칭찬에 어깨가 으쓱해졌다. 그래서 무엇인가 보답을 해야 할 것 같았다. 토기에 관한 질문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빗살무늬토기가 혹시 갈빗살을 저장하려고 만든 것 아니냐고 물었다. 친구 분은 박장대소 하셨다. '고인돌 사회와 문화'라는 제목의 제1전시실에는 마한시대까지의 유물들이 있었다. 다양한 고인들의 특성과 청동기 도구들이 있었다. 제일 인상적인 것은 청동검이었다. 비파형 청동검과 세형 청동검이 굉장히 많이 전시되어 있었다. 비파(琵琶)라는 악기를 닮아서 비파형 청동검이라고 한다. 국사를 잘하려면 악기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겠다. 국사책 33페이지에는 청동검의 사진이 있었다. 교과서의 사진과 전시관 유리 속의 실물을 비교해 보니 더 재미있었다. 마치 '역사교과서'라는 보물지도를 들고 보물을 찾아 떠나는 탐험대장이 된 기분이었다. 청동검이 교과서 밖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다. 체험실에서 동생과 함께 선사시대 토기 만들기에 도전했다. 교과서를 펴고 사진 속의 빗살무늬 토기를 직접 만들기로 했다. 찰흙이 나를 싫어하는 것이 분명했다. 생각처럼 쉽게 만들어지지 않았다. 킁하면 그릇처럼 단순하게 생긴 토기흙이아 쉽게 만들 줄 알았다. 결국은 벽돌 한 덩어리만 만들었다. 그리고는 동생에게 이것은 차세대 핸드폰이라고 우겼다. 21세기 현대인이 돌도끼 들고 다니는 신석기인보다 손재주가 없다니 슬픈 일이었다. '신석기인들은 토기 하나 만들려고 고생도 많이 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교과서만 보고 그냥 시험 준비하느라고 외웠다면 느끼기 힘들었을 소중한 체험이었다.

김제의 벽골제, 고창의 고인돌 공원과 고인돌 박물관, 익산의 미륵사지 유물전시관도 방문했다. 청동기시대, 삼한시대, 백제시대의 모습들이 상상되었다. 오천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아왔던 조상들의 흔적이 우리나라 곳곳에 숨어있었다. 박물관은 그것을 발굴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 역사 교과서는 우리에게 그것들의 정보를 요약해서 알려준다. 교과서가 백과사전도 아닌데 너무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 마치 자동차의 네비게이션처럼 목적지에 이르는 간편하고 편리한 길을 알려주는 것이다. 목적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우리가 직접 해야 할 일이다.

전자제품을 구입하면 사용설명서를 먼저 읽는다. 여행을 가고 싶으면 먼저 여행안내서와 지도를 찾아본다. 교과서는 사용설명서나 여행안내서와 같다. 아무리 여행안내서가 잘 정리되었다고 하더라도 나그네가 직접 체험을 해야 완전한 의미의 여행이 된다. 좋은 안내서와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여행자가 만나면 환상적인 여행이 된다. 우리가 사용하는 교과서도 이와 같다. 우리는 글자만 읽고 시험 준비만 하는 죽어있는 교과서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 주어야 한다. 교과서에게 '체험'이라는 인공호흡을 실시해야 한다. 다음에는 아빠에게, '세계역사'가 어렵다고 해야겠다. 그러면 혹시 비행기 타고 해외로 체험하러 갈수 있지 않을까? 



중학교부 등상

교과서 따라 떠나는 활동



임 지 수

북인천여자중학교
1학년

중학교가 배정되고 예비소집이 있던 날, 1학년 1학기 교과서를 받아왔다. 초등학교 교과서보다 사이즈도 크고, 두껍고 무거워서 두 개의 가방에 나눠 담았다. 낯선 학교, 낯선 교실, 낯선 얼굴들 속에서 중학교 생활은 기대와 걱정이 한가득이었다. 거기다 두꺼운 교과서들은 학업 스트레스로 다가왔다. 교과서가 든 가방을 받아든 부모님께서는 무얼 배우게 될지 궁금하다며 나보다 더 관심을 보이셨다. “국어교과서에 자전거 도둑이 실렸구나! 이것 초등학교 때 권장도서였잖니. 어머! 기상청 견학도 한번 해야겠네. 우리나라의 기후와 주민생활에 대해서 배우는 구나…….” 초등학교 입학하고 매년 새 교과서를 받아올 때면 온가족이 둘러앉아 교과서 내용을 살폈다. 학교, 학년, 반, 이름을 쓰고 깔끔하게 표지도 썼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모님의 학년도 같이 올라갔다. 국어교과서는 우리 집 필독도서로 함께 읽고, 사회교과서는 우리가족 체험활동 지침서 역할을 했다. 학원을 다니지 않고 자기주도 학습을 하면서 교과서 따라 떠난 활동을 통해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쌓아온 나로서는 교과서의 위력을 잘 안다. 진정 교과서 마니아만이 알 수 있는 자부심일 것이다.

그러나 사춘기에 찾아온 신체의 변화와 7교시에 45분 수업, 수학, 영어 과목 이동수업, 매시간 다른 선생님을 만나고 어려워진 수업내용은 중학교 생활을 더 힘들게 했다. 거기다 주말이면 시간 채우기 봉사활동에 무거운 교과서는 표지 싸는 건 고사하고 단원별로 들어가지고 다니는 악습을 하게 했다. 부모님은 지친 나를 재촉하지 않고 지켜봐주셨다. 나와 함께 중학교 1학년을 겪고 계셨던 것이다. 어려워진 교과목에 처음 교과서만으로 공부가 가능할까? 의심하게 됐다. 난 신념을 갖고 일관된 교과서 파고들기만 했다. 진단평가 전교 1등과 중간고사 2등! 교과서와 부모님 덕분이다. 치솟는 기쁨과 다시 찾은 기운은 예전의 명랑한 나를 되찾아주었다. 하면 되는 거였다. 단원별로 해부된 교과서는 다시 한 몸이 되어 투명 표지옷을 입게 되었다.

그리고 중학교 생활 적응 후 교과서와 떠나는 활동을 계속하기로 한 우리가족은 첫 번째 장소로 국립생물자원관을 택했다. 과학 4단원 생물의 구성과 다양성에 관한 비슷한 내용의 교육이 주말 가족 프로그램에 있어서 참여하게 됐다. 수업 주제는 ‘현미경으로 본 세포이야기와 생물의 다양성’이었다. 가족 당 광학현미경이 하나씩 주어지고, 강사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현미경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알아보았다. 현미경의 종류로는 광


학, 전자, X선, 초음파 현미경으로 구분한다. 현미경은 사람의 눈으로 관찰이 불가능한 미세한 물질이나 기타 샘플을 광학렌즈와 적당한 빛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크기로 확대시켜 주는 도구이다. 그런 현미경으로 세포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로버트 훅'이다. 하지만 로버트 훅이 관찰한 것은 살아있는 세포 자체가 아닌 식물의 세포벽이었다. 그 후 살아있는 세포를 처음 관찰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네덜란드의 '레벤훅'였다. 직접 현미경을 제작하고, 지붕 위에서 떨어진 물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다가 빗방울에는 존재하지 않는 동물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미생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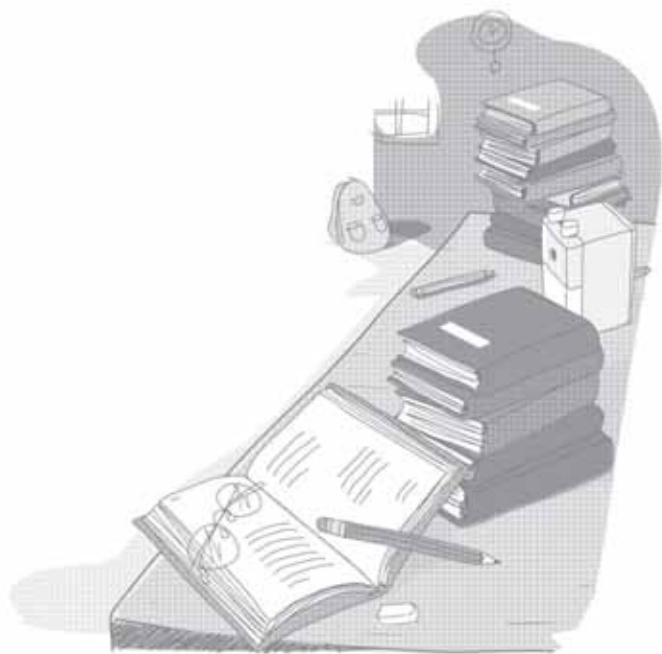
이어서 현미경의 관찰순서를 익힌 후 몇 가지 재료를 직접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포란? 생물을 이루는 구조적, 기능적 단위를 말하며 생물의 몸을 구성하며 생명활동을 일으키는 기본 단위이다. '우산이끼 엽상체'는 화려한 담장으로 보였고, '토마토액과'는 수국, '김'은 바코드, '옥수수씨'는 나무에 화려한 꽃이 가득 핀 모습으로 관찰되었다. '성모충류'는 석류알, '고추표피세포'는 피부를 확대한 모습처럼 보였다. 이와 같이 눈으로는 전혀 형태 구분을 할 수 없지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 점 한 개로 보이던 재료들이 크게 확대되어 신비롭기만 했다. 생물의 구성을 식물과 동물로 나누어 모형을 가지고 세포의 구조도 알아보았다. 핵, 세포질, 세포막, 미토콘드리아는 식물과 동물세포에 모두 있고 엽록체, 세포벽은 식물세포에만 있다. 생물체를 구성하는 단계를 영양을 통해 본 후 아이클레이를 사용해 식물과 동물세포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직접 만들어보니 눈으로 볼 때와는 달리 훨씬 이해가 쉬웠다. 죽기 12시간 전까지도 세포 관찰을 계속했다는 레벤훅! 무언가에 호기심이 생기고 흥미를 가졌다면 거기서 머물지 않고 탐구하는 도전정신은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이다.

다음으로 동물과 식물을 구분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광합성여부에 따라 구분하는데, 동물은 대부분 운동을 하고 광합성을 하지 못해 먹이를 섭취해야 살아간다. 반면 식물은 운동을 하지 않고 엽록체가 있어서 광합성을 해 스스로 양분을 생성한다. 동물은 다시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로 나누며 척추동물엔 어류(붕어), 양서류(도롱뇽), 파충류(악어), 조류(닭), 포유류(고래)가 해당되고 무척추동물은 연체(오징어), 환형(지렁이), 절지(곤충류~), 극치(성게), 편형(촌충), 강장동물(산호)이 해당된다. 식물은 종자로 번식하는 식물과 포자로 번식하는 식물로 나누고, 떡잎 수에 따라 외떡잎식물과 쌍떡잎식물로 분류한다. 이처럼 지구상에는 여러 종류의 생물이 살고 있다. 이것을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에 의해 서식지 파괴와 환경오염으로 인해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되고 있다.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생물자원의 보존과 생명존중 정신을 갖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해야 지구 안에서 모두가 잘살 수 있다. 동물 분류표를 만들어 각각 해당되는 곳에 동물을 붙여봄으로써 수업은 마무리 되었다.

초등학교 과학시간에 꾸준히 배워왔던 걸 좀 더 깊이 있게 중학교 과학시간에 다루고 있는데, 학교수업 전에 실험하고 체험해보면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듯 공부를 좀 더 쉽



고 재미있게 하기 위해 교과서 속 내용과 관련된 체험활동을 많이 해오면서 수업에 적극적이게 되고 이해하는데도 빨랐다. 그동안 꾸준히 교과서 따라 활동을 떠났던 게 지식과 시야를 넓혀주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시험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는 플러스 요인이 되기도 했다. 그랬으니 그 활동은 멈출 수가 없다. 앞으로도 교과서 따라 떠나는 체험활동은 계속 될 것이다. 



교과서 보는 안목 높여주는 『교과서 연구』


이수진 서울 삼봉초등학교 교사


교직 경력에도 1·3·5·7 법칙이 있다고 한다. 교직 1년차는 대체로 방향이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 3년차는 타성에 젖기 시작하는 시기, 5년차는 실력이 늘지 않으면서 앞날이 불투명한 시기, 7년차는 혼자서 확실히 이끌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할 시기. 현재 나는 교직 7년차이다. 지금 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실력을 확실히 갖추어야 할까? 그 순간 내 눈 앞에 들어온 것이 바로 '교과서'이다.

교과서는 그 자체가 목적물이 아닌 교육과정 실현의 한 도구라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실상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크다. 일종의 규범이나 사전처럼 표준이나 모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돌이켜보면 나는 교재연구를 할 때, 이미 제시된 교과서의 내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까, 어떻게 이해를 잘 시키지?' 즉, 교과서 자체보다는 전달 방식, 교육방법에 중점을 두어 나의 전문성 발달시키려 노력해 온 것 같다.

그러나 『교과서 연구(제70호)』를 읽으며 내가 발휘할 수 있는 교과서에 관한 전문성의 범위를 너무 협소하게 여겼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70호에서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교과서 정책의 동향과 전망을 다룬 국제교과서심포지엄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었다. 지난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

에 의거한 교과서 정책은 숨 가쁘게 변하고 있는데 정작 교과서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교사들은 실상 교과서 연구와 교과서 정책에 있어서 소외되고 있으며, 교과서 발행의 자율화에 대해 무지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자율화될수록 교과서를 선정 활용하는 교사의 역할과 전문성을 더욱더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단지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검정도서 선정이 번거롭다는 이유만으로, 국정 교과서를 선호하는 현상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교육과정을 연구하고 수업을 혁신하면서 "우리에게는 이런 교과서가 필요하다" 요청하고 주장하며 우리 스스로의 전문성을 신장시켜야 한다. 또한, 우리의 필요에 의해 교과서의 다양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과서 연구』를 통해 '교과서'를 보는 안목을 높일 수 있었다. 개인적 바람은 『교과서 연구』가 매개체가 되어 현장의 많은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교과서와 교육과정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 결과물을 공유하는 배움 공동체가 조직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나부터 『교과서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나의 바람을 실천해 보고자 한다. 다음호에는 어떤 내용으로 지적 욕구를 충족시킬 지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편집자 주 우리 '교과서 연구지'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교과서 연구'를 보시고 도움이 되었다고 느낀 특집기사 또는 다른 원고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담당자에게 보내주세요. 담당자의 이메일(editor@textbook.ac) 또는 연구재단 홈페이지의 참여마당-연구지 제언에 접수된 의견 중에서 독자의 소리에 게재되면 교과서 연구지를 1년간 무료로 배송해 드립니다. 

[교과서 개발 연수 안내]

우리 재단에서는 전국 초·중등학교 선생님 및 교육전문직 대상으로 여름·겨울방학 중에 교과용도서 개발 전문가 양성을 위한 특수 분야 연수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과정 소개

- 과정명 : 교과용도서 개발 전문가 양성 과정(전문성 향상 과정)
 - ※ 서울특별시교육청 2012년도 특수분야 연수 과정 지정(서울교육 2012-473)
- 연수종별 : 직무연수
- 연수 대상 : 전국 초·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
- 연수 시간 : 30시간(인정 학점 : 2학점)
 - ※ 최저 이수 기준 시간 : 24시간, 80% 이상 출석(성적 산출 없음)
- 교과 편성 : 교과서 정책·제도와 법령, 개발 방법, 편집 및 인쇄 등

□ 기간 :

구 분	기 간	시 간	인 원	신청마감
제 3 기	2013. 7. 29 ~ 8. 2	10:00~17:00	40	연수시작 20일전까지
제 4 기	2013. 8. 5 ~ 8. 9	10:00~17:00	40	연수시작 20일전까지
제 5 기	2014. 1. 6 ~ 1. 10	10:00~17:00	40	연수시작 20일전까지
제 6 기	2014. 1. 13 ~ 1. 17	10:00~17:00	40	연수시작 20일전까지

□ 신청 방법

- 교원직무연수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
 - 주소 : (137-808)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06-9 한국교과서연구재단 특수분야 연수 담당자 앞
(팩스 : 02-2651-1954)
- 연수비
 - 총 연수비 : 본인 부담 7만원(재단 부담액 8만원, 계 15만원)
 - 납부 방법 : 해당 과정 신청 마감일까지 지정 계좌 입금
(신한 140-009-109202, 예금주 :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선종근)
 - ※ 연수비 환불조건 : 연수 시작 3일전까지 연수취소(포기) 신청서 제출한 자에 한함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과서연구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교과서 연구’ 후원제도 안내

□ 목 적

교과서연구의 재정적 안정을 기하기 위해 후원제도를 도입하여 발행비용을 보전하고자 함

□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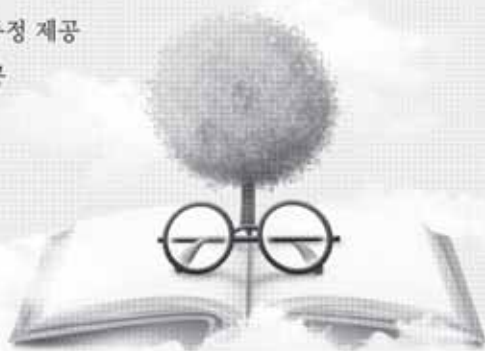
- 회원제 도입을 통한 발행 후원금 모집
 - 기존 배포제는 유지하며, 추가요청분에 대해서는 회원제 등급을 두어 배포
 - 일반, 연간, 단체 회원제를 두고 차등적 혜택안 마련

□ 후원 회원 종류

- 일반회원 : 매월 5천원 정액 계좌납부
- 연간회원 : 매년 5만원 정액 일시 계좌납부
- 단체회원 : 매년 단체, 기관, 법인, 기업이 1,000만원 이상을 일시불로 계좌납부

□ 후원 회원 혜택

- 일반회원, 연간회원
 - 교과서 전문 학술지 ‘교과서 연구’ 제공 및 회원동정 제공
 - 재단 주관 학술행사 초대 및 간행 연구보고서 제고
- 단체회원
 - 교과서 전문 학술지 ‘교과서 연구’ 제공 및 회원동정 제공
 - 재단 주관 학술행사 초대 및 간행 연구보고서 제공
 - 교과서연구지 연간 광고게재(광고제작비 불포함)
 - 해외 탐방시 우선권 제공



[한국교과서연구재단 후원회원 가입서]

성명(한글)	※ 기재필수	회원 구분	<input type="checkbox"/> 일반회원 <input type="checkbox"/> 연간회원 <input type="checkbox"/> 단체회원
생년월일	※ 기재필수 (음 · 양)	주민등록번호	※ 기재필수
직장명		집 전화	
E-Mail	※ 기재필수	휴대전화	※ 기재필수
주소	<input type="checkbox"/> 자택 <input type="checkbox"/> 직장 (-) ※ 기재필수		
회 비	CMS자동이체 납부 동의서 (일반회원일 경우에만 해당)		
	출금은행	※ 기재필수	계좌번호
	예금주	※ 기재필수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출금일	매월 <input type="checkbox"/> 10일 <input type="checkbox"/> 25일	인출금액
	일시불 납부(연간/단체회원일 경우)		
	입금은행	신한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재)한국교과서연구재단	입금금액
			매월 5,000원

금융거래정보 제공 및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동의하며, 상기와 같이 CMS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기재필수	예금주	※ 기재필수
-----	--------	-----	--------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직장명, 계좌번호, 가입정보

2. 수집 · 이용 목적

본인 확인, 후원회비 회계관리, 웹진 등 정보메일 전송, 후원혜택 적용시, 서비스 안내전화, 우편물 발송, 설문조사, 메시지(SMS), 후원회원 신청 및 해지 기타 업무처리에 필요한 동의 · 철회 등 의사 확인, 민원처리

3. 보유 · 이용 기간

후원회원 가입기간 동안 이용하고, 해지 후 6개월까지 보유 · 이용(재가입 시 사용)

- ※ 본인은 개인정보 및 후원회 가입 관련정보를 귀기관이 위와 같이 수집 · 이용함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또한 본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다음 금융거래정보를 신규 신청하는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상기 수납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하며 이에 따라 출금이체거래를 신청합니다. (주의: 신청접수 후부터 해지 신청 전까지 결재금액이 청구됩니다.)

* 후원 회원 가입서는 <http://www.textbook.ac>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수신주소 : editor@textbook.ac)

* 절취하여 팩스 전송도 가능합니다. (FAX : 02-2651-1982)

*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국정 교과서

● 온라인 구입

- 각 과목의 발행사를 확인하여 해당 발행사 홈페이지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공업계	2007 개정	건축설계제도, 금속제조, 기계일반, 기계제도, 역학, 재료가공, 측량, 토목재료·시공, 토목제도 및 설계, 건축계획일반, 건축구조, 공업영어, 구조세라믹, 기계공학법, 기계기초공학, 기능성세라믹, 기계공학법, 기계기초공학, 기능성세라믹, 디자인제도, 디지털논리회로, 방송시스템, 방적방사, 사진·전자제판, 선박이론, 선박제도, 섬유재료, 세라믹디자인, 인쇄·사진재료, 주조, 평판인쇄, 공작기계·II, 기계설계, 로봇기초, 발효공업, 전자기계이론, 전자기계회로, 인쇄일반, 만화애니메이션기초, 만화창작, 영화·방송제작, 자동차·건설기계, 자동차기관, 자동차채색, 촬영·조명, 항공기체계, 항공기일반, 항공기전자장치, 수질관리, 컴퓨터게임그래픽, 컴퓨터게임기획, 컴퓨터게임프로그램, 환경공업일반, 공업화학, 전기기기, 전기일반, 전기회로, 전력설비, 전자회로, 통신일반 및 시스템, 공예, 디자인일반, 색채관리, 조형	(주)천재교육
농업계	2007 개정	농업이해, 농업기초기술, 농업정보관리, 재배 및 작물생산기술, 숲과인간, 원예및생활원예, 동물자원, 농업과물, 농업관광, 식품과학, 생물공학기초, 환경보전, 조경, 농산물유통	
상업계	2007 개정	경영과법및국제화외국어경영, 금융과생활	
외국어계	2007 개정	심화영어, 영어청해, 영어회화, 영어독해, 영어권문화, 기초독일어, 독일어청해, 독일어회화 I, 독일어청해, 독일어회화, 독일어독해, 독일어권문화, 기초프랑스어, 프랑스어청해, 프랑스어회화, 프랑스어독해, 프랑스어권문화, 기초스페인어, 스페인어청해, 스페인어회화, 스페인어독해, 스페인어권문화, 기초중국어, 중국어청해, 중국어회화, 중국어독해, 중국문화, 기초일본어, 일본어청해, 일본어회화, 일본어독해, 일본문화, 기초러시아어, 러시아어청해, 러시아어회화, 러시아어독해, 러시아문화, 기초아랍어, 아랍어청해, 아랍어회화, 아랍어독해, 아랍문화, 심화영어보완교재, 영어청해보완교재, 기초독일어보완교재, 독일어청해보완교재, 기초프랑스어보완교재, 프랑스어청해보완교재, 기초스페인어보완교재, 스페인어청해보완교재, 기초중국어보완교재, 중국어청해보완교재, 기초일본어보완교재, 일본어청해보완교재, 기초러시아어보완교재, 러시아어청해보완교재, 기초아랍어보완교재, 아랍어청해보완교재	
체육계	2007 개정	스포츠개론, 스포츠경기과학, 체육과진로탐구, 육상운동, 체조운동	(주)미래엔
수산 해운계	2007 개정	수산물유통, 수산생물, 수산일반, 수산해운정보처리, 열기관, 잠수기술, 항만물류일반, 해사일반, 해양레저관광, 해양일반, 해양정보관리, 해양환경및해양오염	
가사 실업계	2007 개정	간호의기초 및 보건간호, 공중보건, 관광영어, 관광일반, 급식관리, 기초복지서비스, 식품과영양, 영유아교육원리, 의복재료관리, 인간발달, 자수와편물, 주거, 패션디자인, 한국조리	(주)지학사
특수학교	2007 개정	*60책 (초등 저시력 확대교과서 제외) 지도서 *45책	(주)미래엔
	2009 개정	*47책 (초등 저시력 확대교과서 제외) 지도서 *71책	

● 방문 구입

- (주)미래엔 직매장 : 지하철 7호선 논현역 5번 출구 직진 도보 5분 소요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41-10 (주)미래엔빌딩 1층)
(초등학교 국정교과서만 판매) ARS : 02-3475-4097

□검정(전과목)·인정(일부과목: 1,064책)

● 온라인 구입

- (사)한국검정교과서 홈페이지 "www.ktbook.com" 또는 "(사)한국검정교과서"로 검색하여 '교과서구입' 메뉴에서 조회 및 판매되는 검정교과서(전과목) 및 인정교과서(일부과목:1,064책)는 온라인 주문하시고, 나머지 인정교과서는 발행 출판사로 구입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검정교과서 및 일부 인정교과서(1,064책) 판매)

● 방문 구입

- (사)한국검정교과서 직매장
- 교과서 판매서점 : 각 지역별 교과서 지정 판매점

● 단체구입

- (사)한국검정교과서 홈페이지 "www.ktbook.com" '교과서구입' 메뉴의 '단체주문' 항목을 참고

2013학년도 교과서 개별 구입 안내



□ 교과서별 구입처

학교급	교육과정	교과용 도서	발행사	전화번호
초등학교	2009 개정	• 국어 1~2 학년군 (국어, 국어활동, 국어 교사용지도서)	(주)미래엔 www.mirae-n.com	080-730-3800
		• 수학 1~2 학년군 (수학, 수학익힘책, 수학 교사용지도서)	(주)천재교육 www.chunjae.co.kr	1577-0902
		• 통합교과 (학교1,봄1,가죽1,여름1,나2,봄2,가죽2,여름2) • 통합교과 지도서	(주)지학사 www.jihak.co.kr	02-330-5302
	2007 개정	• 읽기, 듣기·말하기·쓰기, 국어지도자료 3,4,5,6 • 과학, 실험관찰, 과학지도자료 3, 4, 5, 6 • 음악 3, 4, 5, 6 음악 지도자료 • 미술 3~4, 5~6 미술 교사용지도서 • 체육 3, 4, 5, 6 체육 교사용지도서	(주)미래엔	02-3475-3800
		• 도덕 3, 4, 5, 6 • 생활의 갈잡이 3, 4, 5, 6 • 도덕 교사용지도서수학 3, 4, 5, 6 • 수학익힘책 3, 4, 5, 6 • 수학교사용지도서 • 사회 3, 4, 5, 6 • 사회과부도 4~6 • 사회과탐구 5, 6 • 사회 교사용지도서	(주)천재교육	1577-0902
중학교	2007 개정	• 생활독일어, 생활프랑스어, 생활러시아어, • 생활아랍어 (각 언어 보완교재)	(주)천재교육	1577-0902
고등학교 (보통교과)	2007 개정	• 러시아어 I, 러시아어 II 보완교재 • 아랍어 I, 아랍어 II 보완교재	(주)천재교육	1577-0902
		• 안전과건강	재향군인회 www.veterans.or.kr	02-417-0641
검정	초등 중등 고등	• 위 교과서 이외의 교과서 * 검정교과서 전체 * 인정교과서 일부(1,064책)	한국검정교과서 www.ktbook.com	02-3663-5409~12

□ 서울지역 직매장

(사)한국검정교과서 직매장 - 검정교과서 전문매장 (국·인정일부)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31-12 다옥빌딩 별관 2층 ☎ 02-3663-5409~12)
- 지하철 : 2호선 당산역 1번, 9호선 당산역 13번 출구에서 롯데리아, 스타벅스 사이 골목 30m 지점 (동양생명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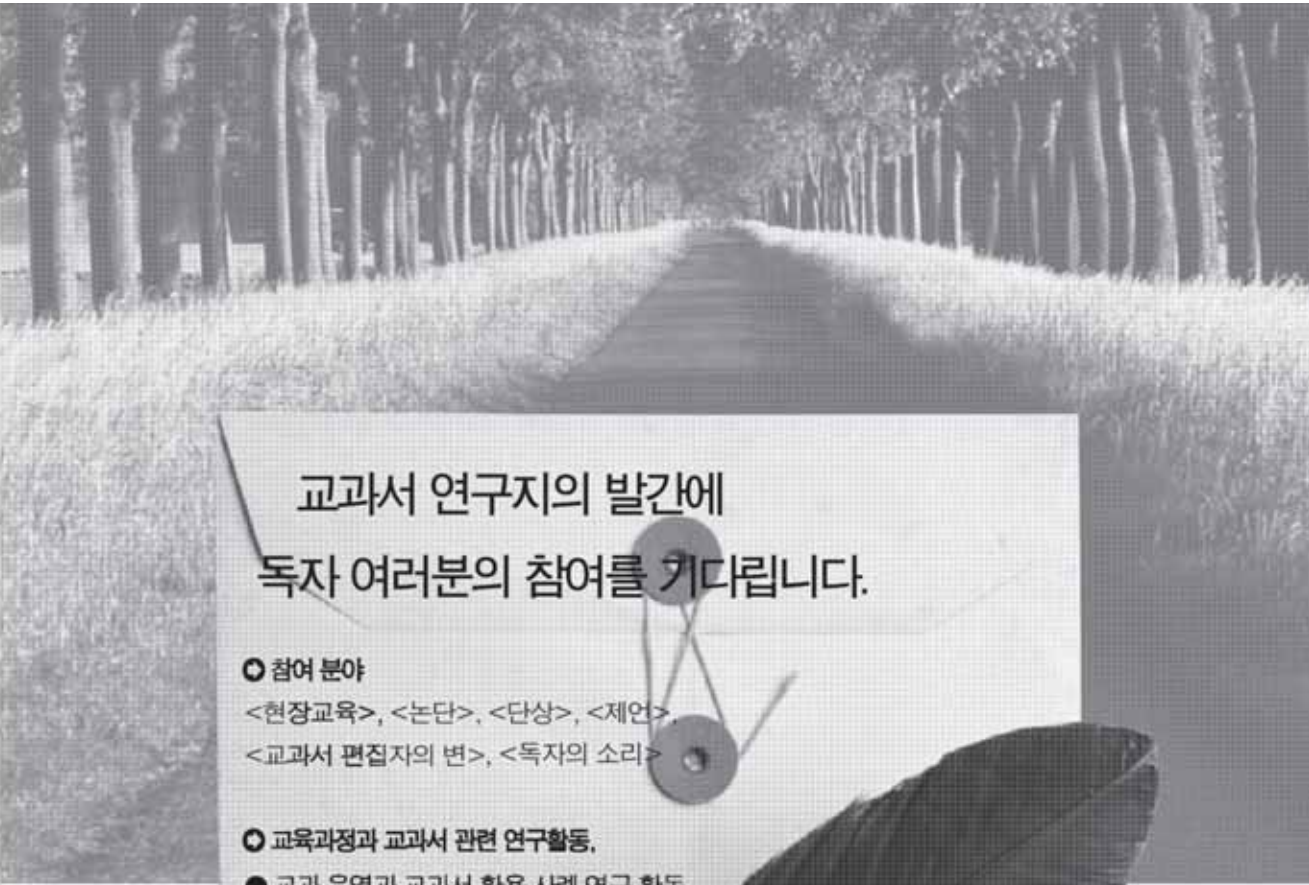
(주)미래엔 직매장 - 초등학교용 국정교과서만을 판매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41-10 (주)미래엔빌딩 1층 ☎ 02-3475-4097)
- 지하철 : 7호선 논현역 5번 출구에서 직진 도보 5분소요

각 지역별 교과서 지정 판매점

지 역 별				상 호	전화번호	판매 도서
서울	종로구	(주)교보문고	02- 397-3551~2	검정, 국정		
	서초구	교보문고(강남점)	02- 530-0313	국정		
	송파구	교보문고(잠실점)	02-2140-8821	국정		
	종로구	(주)영풍문고	02- 399-5625	검정, 국정		
	서초구	영풍문고(강남점)	02- 595-0928	국정		
	성북구	영풍문고(미아점)	02-2117-2880	국정		
	성동구	경 일 사	02-2296-7671	검정		
	중 구	(주)리브로(을지점)	070-4006-4317	검정, 국정		
	동대문구	성 현 문 고	02- 967-3838	검정		
	영등포구	(주)지에스북	02-2671-5651	검정, 국정		
	관악구	광 장 서 적	02- 876-9081	검정, 국정		
	광진구	프 라 임 문 고	02-3424-1450	국정		
	강남구	반디앤루니스	02-6002-6021	검정, 국정		
	노원구	그 랜 드 문 고	02- 938-1065	국정		
	강동구	예 립 문 고	02- 477-8600	국정		
	동작구	쿨 드 북	02- 841-7100	국정		
	용산구	(주)대교문고	02-2012-3544	검정, 국정		
	노원구	(주)노원문고(중계점)	02-2091-0633	검정, 국정		
	도봉구	예 일 문 고	02- 995-5206	국정		
강동구	대 성 문 고	02- 427-8190	국정			
부산	부산진구	영 광 도 서	051- 816-9500	검정, 국정		
	중 구	문 우 당 서 립	051- 241-5555	국정		
	사하구	문 학 서 점	051- 204-0465	검정, 국정		
	사하구	예 립 서 적	051- 203-3383	검정		
	중 구	남 포 문 고	051- 245-8911	검정		
	사상구	태 학 도 서	051- 313-1718	국정		
	부산진구	교보문고(부산점)	051- 806-3501	국정		
	해운대구	영 재 서 적	051- 703-0708	국정		
대구	수 성 구	(주)세원출판유통(범어점)	053- 423-0517	검정, 국정		
	중 구	영풍문고(대구점)	053- 428-6700	국정		
인천	중 구	(주)대한서림	032- 764-7337	검정, 국정		
	부 평 구	부 평 문 고	032- 529-0077	국정		
광주	동 구	종 합 도 서	062- 222-4354	검정, 국정		
대전	중 구	(주)계룡문고	042- 222-4600	검정, 국정		
	서 구	세 이 북 스	042- 483-4441	국정		
울산	남 구	민 중 서 립	052- 275-0313	국정		

지 역 별		상 호	전화번호	판매 도서
경기	수 원	(주)경기서적	031- 248-6300	검정, 국정
	의 정 부	송 문 당	031- 846-2666	검정, 국정
	안 산	대동서(재주)	031- 406-6666	검정, 국정
	부 천	(주)경인문고	032- 613-2197	검정, 국정
	수 원	동 남 서 적	031- 251-3929	검정
	부 천	영 글 북 스	032- 623-1600	국정
	성 남	리브로본당점	031- 701-2800	국정
	성 남	중 원 문 고	031- 736-2600	국정
	성 남	베 스트 북	070-7570-5172	국정
	구 리	동 원 서 적	031- 563-4621	검정, 국정
	일 산	정 글 북	031- 922-5000	검정, 국정
	광 명	일 지 서 적	02-2613-2744	국정
	시 흥	한 가 램 문 고	031- 404-8664	국정
	평 택	평 택 문 고	031- 651-9204	검정, 국정
	안 양	교보문고(안양점)	031- 466-3501	국정
	용 인	수 지 문 고	031- 265-4031	국정
	김 포	열 린 문 고	031- 982-2007	국정
	화 성	삼 성 문 고	031-8003-3838	국정
	성 남	공 손 서 점	031- 703-7279	국정
강원	춘 천	교 학 사	033- 244-0044	검정, 국정
원 동	해 제 일 서 점	033- 521-3131	국정	
충북	청 주	유 신 상 사	043- 252-5945	검정, 국정
	충 주	이 학 사	043- 844-3494	국정
충남	천 안	열 린 문 고	041- 573-0827	검정
	천 안	국 민 도 서	041- 556-0003	국정
전북	전 주	홍 지 서 립	063- 288-5311	검정, 국정
전남	순 천	중 앙 서 립	061- 723-9902	검정, 국정
	목 포	책 사랑문고	061- 279-2504	국정
경북	포 항	학 원 사	054- 249-3396	검정, 국정
	경 주	현 대 서 점	054- 742-4885	국정
	경 산	경 산 서 적	053- 813-2724	국정
	구 미	춘양당서점	054- 455-6669	국정
경남	창 원	그랜드문고	055- 283-2848	검정
	창 원	창 원 서 적	055- 282-1544	국정
	진 주	대 양 서 적	055- 741-2835	국정
	김 해	근 비 도 서	055- 321-1387	국정
제주	제 주	탐라도세(주)	064- 755-3335	검정
	제 주	현 대 서 점	064- 748-1177	국정



교과서 연구지의 발간에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참여 분야

<현장교육>, <논단>, <단상>, <제언>,
<교과서 편집자의 변>, <독자의 소리>

○ 교육과정과 교과서 관련 연구활동.

- 교과 운영과 교과서 활용 사례 연구 활동,
- 교과서와 관련된 제언 또는 단상,
- 기타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등



보내실 곳 : editor@textbook.ac

문의전화

02-6206-6357 「교과서연구」 담당자 유순기



● 교과서 정보관 이용 안내

| 운영 개요 |

- 우리나라 교과서의 수집 및 보존
- 외국 교과서 수집 및 보존
- 교육과정·편수 자료의 수집 및 보존
- 교육과정·교과서 제도 관련 자료 수집 및 보존
- 교과서 관련 자료의 DB 및 정보 인프라 구축
- 교과서 관련 연구 단체 협력 체제 구축
- 교과서 및 교육과정 정보 제공
- 교과서 비교 전시회 개최 등

| 보유 자료 |

구분	국내	국외	계
교과용 도서	39,400	8,379	47,779
일반 자료	2,988	-	2,988
계	42,388	8,379	50,767

| 열람 시간 |

평일 | 오전 9시~ 오후 5시

점심시간 | 12:00~13:00 *토요일, 공휴일은 휴관합니다



02-2651-1953
www.textbook.ac

서울 서초구 반포동 706-9 한국교과서연구재단 빌딩 4F

- 지하철 7호선 논현역 3번 출구
- 버스 : 3412, 462, 4312, 642, 9408번

한국교과서연구재단
KOREA TEXTBOOK RESEARCH FOUNDATION




호두가 1등 이 되는 1-계상

천재교육이 앞장서겠습니다.

66 “엄마, 독도에 코끼리바위가 살아요.
코끼리바위가 광이갈매기를 매일 엮어주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

우리 독도엔 코끼리바위가 있습니다.
이제 독도도 교과서로 배웁니다.
우리의 독도는 우리가 더 많이 알아야 하니까요.
독도 사랑도, 독도 공부도 우리가 1등입니다.

 천재교육



1948년

교과서 사업으로 대한민국 교육을 이끌었습니다.

2013년

교육, 출판 및 국내외 인쇄사업을 아우르는
새로운 교육출판문화를 창조해가고 있습니다!



미래엔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교육사업본부

검정교과서, 참고서, 파사준술



교과서사업본부

국정교과서, 인정교과서



출판사업본부

아이세움, 아이즐, 휴이념, 북폴리오, 와이즈베리



인쇄사업본부

국내·해외인쇄, 디지털인쇄



계열사

전북도시가스, 서해도시가스, 현대문학, 미래엔 에듀케어, 미래엔 인천에너지, 부흥개발
목정문화재단, 목정장학회